

2009學年度

朝鮮時代 孝의 意味와 教育的
活用 方案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Meaning of 'HYO' in Choseon Dynasty
and its Application to Modern Education

圓光大學校 大學院

教育學科

李 滄 桓

朝鮮時代 孝의 意味와 教育的
活用 方案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Meaning of 'HYO' in Choseon Dynasty
and its Application to Modern Education

指導教授 張 德 三

이 論文을 教育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0月

圓光大學校 大學院

教育學科

李 滄 桓

이창환의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장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원 광 대 학 교 대 학 원

2009년 12월

목 차

국문초록	v
ABSTRACT	ix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4. 선행 연구 고찰	5
II. 조선시대 효 교육의 전개	11
1. 효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11
2. 전통적 효의 의미	18
3. 문헌을 통한 효의 보급	26
III. 조선시대 효의 의미 분석	35
1. 『三綱行實圖』의 분석	35
2.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분석	51
3. 行實圖에 수록된 효의 교육적 의미	70

IV. 조선시대 효의 활용 방안	73
1. 현행 도덕 교과서의 효 관련 내용 분석	73
2. 효에 대한 현대 교육의 인식	89
3. 현대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	95
V. 결론	101
참고문헌	104
부 록	119

표 목 차

<표 1> 조선시대에 발간된 효 관련 문헌	32
<표 2> 조선시대의 교육기관과 사용 학습 교재	33
<표 3> 조선시대 『三綱行實圖』의 발간 일람	37
<표 4> 『三綱行實圖』의 한문본과 언해본	38
<표 5> 『三綱行實圖』 효자도 내용	45
<표 6> 『三綱行實圖』 효행 유형	50
<표 7>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도 시대별수록 사례 수	54
<표 8> 『東國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효행 사례	57
<표 9>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내용 일람	58
<표 10>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유형별 분류	62
<표 11>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내용 분석	62
<표 12>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도덕과(3학년~10학년)의 내용 체계	75
<표 13>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바른생활’과(1,2학년)의 내용 체계	77
<표 14>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도덕 교과와 학년, 학기별 대단원 편성 일람 ...	78
<표 15> 제7차 교육과정 바른생활 및 도덕 교과와 효 관련 내용	85

국 문 초 록

朝鮮時代 孝의 意味와 教育的 活用 方案에 關한 研究

이 창 환

서구적 교육의 도입은 우리나라 교육풍토의 근본을 뒤흔드는 대변혁이었다. 이 과정에서 종전에 교육적으로 유용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은 이른바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배척되었다. 외부 문물을 수용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종전의 전통적 문화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문물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이겠으나,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서구식 교육의 흐름은 우리의 전통적인 것 모두를 부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졌고, 앞으로도 중요한 가치성이 유지되어야 할 ‘효’도 함께 소홀히 여겨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에게 삶의 보람과 지향점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통 ‘효’에 관심을 두고, 조선시대 ‘효’의 교육적 특징을 살펴서 그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발간된 효 관련 문헌 중에서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효행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대의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여 효 교육의 수용과 실천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조선시대의 효는 우리 고유의 한 사상을 비롯한 무격신앙,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온 것으로 우리 민족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도덕적 의식이다.

둘째, 조선시대의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효행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효는

- 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고 추진된 교육정책의 결과로 백성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되었으며,
- ② 부모에 대한 보답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 ③ 자식의 온 생활과 정성으로 실천되었으며,
- ④ 생전의 효는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養志]을 소중히 여겼고,
- ⑤ 부모 사후에도 변함없는 공경과 정성으로 받드는 것이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에도 전통적 효를 위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실천으로 연결되기에는 과목의 비중이나 교과서의 관련 내용 부분이 부족하다.

넷째, 조선시대 효의 교육적 의미가 현대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 ① 가정은 효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효 의식의 함양을 위해 부모의 언행이 모범적으로 자녀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 ②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의 세심한 배려와, 가정과의 연대 교육을 통하여 효 의식이 길러질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며, 교과 간 연대 교육이나

효행 학생에 대한 표창을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 ③ 사회 교육의 측면에서는 모범적 효행자의 적극적 발굴과 표창 및 사례 집을 발간하여 국민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것과, 효행 표창자에 대한 정책적 우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해 효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 교육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효’ 의식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효’는 결코 과거 속에 사라져야 할 낡은 덕목이 아니라 새 시대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견인차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HYO(Filial Piety)' in Choseon Dynasty and its Application to Modern Education

Lee Chang-Hwa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

Advisor : Chang Duk-Sam. Ph.D

The introduction of western-style education brought about a drastic change shaking our education foundation. In this course, the pre-education values were rejected as old-fashioned and unuseful things. The desirable way to accept foreign cultures was to get new things on the traditional culture bases but our traditional values were wholly denied by accepting foreign cultures indiscriminately. So we rejected 'Hyo' that has been valued and kept Korean traditions important until now.

This study had an emphasis on our tradition 'HYO' that has played a important role on Koreans' desirable life and view of life, and I tried to search for practical and modern uses by studying educational traits of Choson Hyo. For this study, I made analyses of 'HYOs' in the books 「Samgangaengsyldo(三綱行實圖)」 「Dongkugsinsoksamgangaengsyldo(東

國新續三綱行實圖)」, Besides, I analyzed the Korean moral text in the 7th curriculum. I paid much attention to 'Hyo' education and its effective application and tried to get some desirable applied uses in our modern education. In this course of study, I got to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Choson Hyo is a moral consciousness that was formed and deeply seated in our soul influenced by our unique thoughts, traditional Korean Shamanism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Second, analyzing 'HYO' examples in 「Samgangaengsyldo(三綱行實圖)」 「Dongkugsinsoksamgangaengsyldo(東國新續三綱行實圖)」, 'HYO' was

- ① seated in the inner world encouraging forward and driving it nationwide.
- ② repaying parents labors.
- ③ carried out through offsprings' devotion and love.
- ④ valued by accepting parents' wills through respects and devotions.

Third, in the moral text of the 7th curriculum the contents of traditional 'Hyo' were presented but was deficient in carrying out them.

Forth, in order to apply the educational points of Choson 'HYO' to our present age,

- ① as the starting mark depending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our

education, the parents' model words and deeds to develop the soul of 'Hyo' should be presented to their students.

- ② school education should help students to learn the Hyo spirits by teachers' concerns and joint responsibilities connected with home teaching, and also should need joint educations among other subjects and award Hyo prizes substantially.
- ③ as the social educational aspects, we should find out 'Hyo' deeds and award prizes to related students and publish ' the books about 'Hyo' deeds, and use them as the textbook for nationwide education. Also we need to consider respecting students awarded prizes as a matter of policy.

Household, school, and society altogether should make active efforts to practice 'HYO' into our education and life in order to develop more beautiful future society. Above all, we need parents' education to pave the way to students' HYO spirits since they were young. Now 'Hyo' should be reconsidered as important means of education leading to a new society, not as old-fashioned virtues disappearing in the pas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에 서구식 근대 교육이 도입된 지도 이미 1세기를 넘어섰다. 이전의 서학의 도입 및 정착 시기를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서구적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이 설립된 1886년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100년이 훨씬 넘었다¹⁾.

서구적 교육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교육 풍토의 근본을 뒤흔드는 대변혁이 아닐 수 없었다. 전혀 생소한 문화에서 형성된 교육의 이념이 무차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겪게 된 혼란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과거로부터 이어온 우리 고유의 교육 의식이나 사상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조선 말의 이른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나,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 화혼양재론(和魂洋才論) 등은 우리와 같은 동양 문화권인 중국,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겪게 된 충격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로 생긴 이론이었다.

외부 문물을 수용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종전의 전통적 문화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문물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문물의 도입은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딪혔다. 유교 문화에 젖은 보수

1) 장덕삼(1996), 『신교육사 철학』, 재동문화사, p.171. 김영우·피정만(1995), 『최신 한국교육사 연구』, 교육과학사, p.214. 등. 한국 교육사상 최초의 서구식 교육기관은 1855년에 충북 제천에 설립된 ‘배론신학당’이 있고, 1883년 설립된 ‘원산학사’도 근대적 학교로 개교하였으나, 정부가 직접 구미식 학교운영의 예에 따라 운영 준칙을 제정하여 개교한 학교로는 ‘육영공원’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적인 성향은 기존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저항으로 서구 문화에 맞서게 된 것이다. 단발령(斷髮令)은 유림을 비롯한 전국적인 저항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하려는 신식 학교는 일부 출세의 계단으로 예상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을 모집하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계몽, 개화가 주도되었지만, 종전의 전통 문화와 새로 들어온 서구 문화가 잘 융화되어 창조적 바탕을 이룩하기까지는 요원하였다.

신문물 도입을 위한 교육적 노력은 불행히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탄되면서 주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1910년의 강제 합병으로 일본이 의도한 제국주의적 식민지 교육이 기획되고 수행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한국인이 전통을 지키고 민족적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당연히 도외시되고, 조금이라도 식민지 통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철저히 말살되었다. 일제는 전국 각지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세시풍속이나 민속적인 동제(洞祭) 등과 같은 풍속도 미신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였고, 풍수사상의 전통적 요소를 말살하기 위하여 명산의 혈에 쇠못을 박기도 하였다.

일제 치하 교육에서 전통 사상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교육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우민화(愚民化) 정책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은 식민지 통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었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꺾어내리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하여 철저히 폄하하여 식민사관(植民史觀)의 틀을 적용하였다.

일제 36년은 사실상 민족 전통 교육의 공백기이며, 일제에 의해 민족 전통 사상의 말살이 진행된 시기이다. 더욱이 해방 후 좌우의 대립과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민족상잔의 비극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구미의 자본주의가 유입되면서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식민지 치하에서 연약해진 우리의 전통 사상은 미처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통 유교 사상의 붕괴를 가져왔다. 유교적 전통 사상인 ‘효(孝)’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한층 두드러졌다. 즉,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충’과 ‘효’에 대한 의식과 행위도 그 본질이 퇴색되었다.

교육적으로 볼 때 삶의 보람과 지향점을 설정하는 기준으로서의 효는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전통의 계승 차원에서 전통적인 효의 특징을 살펴, 현대의 교육 목표로 설정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효가 지니고 있던 본질과 이상을 살펴서 현대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효 교육을 위한 교재로 발간된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전통적 효의 구현 양상과 특징을 살펴 조선시대의 효의 교육적 의미를 구명하여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와 효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효를 현대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효에 관심을 두고 조선시대 효의 교육적 특징을 살펴서, 그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경시된 우리 전통의 효를 복원하여 현대 우리 사회와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효 의식의 근원 탐구를 통하여 ‘효’가 지닌 가치를 파악한다.

둘째, 효 관련 문헌 중 일반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발간된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효행 사례를 분석하여 조선시대

효의 의미와 특징을 규명한다.

셋째, 조선시대 효의 특징을 파악하여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효 교육의 덕목을 추출한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의 초·중등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여 효 교육의 수용과 실천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조선시대 효 교육의 교육적 특징과 현대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로 문헌 연구의 방법을 취하였다.

유교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효행을 강조한 문헌들은 많이 간행되었으나, 그 수준이 높아서 일반 서민층에 보급될 만한 정도의 책은 많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빈번히 활용되었던 문헌으로는 ① 『孝經』, ② 『父母恩重經』, ③ 『論語』, ④ 『孟子』, ⑤ 『大學』, ⑥ 『中庸』, ⑦ 『詩經』, ⑧ 『童蒙先習』, ⑨ 『小學』, ⑩ 『三綱行實圖』, ⑪ 『東國新續三綱行實圖』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특히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효자편(孝子篇)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일반 백성들과 밀착된 효 교육의 자료로서, 언해된 내용과 그림을 통한 내용 전달이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효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본 연구에 참고한 자료로는,

- ① 조선시대 이전의 사료로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 ② 조선시대 사료로는 『朝鮮王朝實錄』, 『書堂學規』를 위시한 각종 교재,
- ③ 일제시대 사료로는 「朝鮮總督府官報」, 「統計年譜」 및 각종 신문,

④ 일반적 사회 배경을 알기 위한 사료로는 ㉠ 김대연의 『조선조 경로교육과 노인복지연구』, ㉡ 김영모의 『조선 지배층 연구』, ㉢ 정재철의 『일제의 대한(對韓) 식민지 교육정책사』, ㉣ 한우근의 『한국통사』, 『이조 후기의 사회와 사상』,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한국문화사대계』, ㉥ 국사편찬위원회의 『일제 침략하 한국 36년사』, ㉦ 최소자의 『동서문화교류사연구』 등과 기타 간행물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초·중·고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대 교육에서 효 교육의 비중과 방법,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조선 왕조 5백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효 관련 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이 글에서는 일반 서민 교육을 위해 편찬·발간된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의 효에 대한 교육과 인식에 직접 관련된다고 판단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에 한정하였다.

4. 선행 연구 고찰

효에 관련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효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현대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인데, 여기에서는 이 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한정하여, 조선시대의 효에 관한 연구 중 『三綱行實圖』 및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관련한 것과, 현행 도덕 교과서의 분석에 관한 연구의 두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三綱行實圖』 및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업적이

있다. 우선 언어적 특징을 밝히기 위한 국어학적 연구, 문학적 구성과 그 내용을 분석한 국문학적 연구를 비롯하여, 책의 발간과 체제 및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과 영향을 위한 역사학적 연구 등이 많이 확인된다. 또한 그 내용과 편찬 의도에 관련한 교육학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이 글에서는 교육학적 연구를 주로 하되, 여타 분야의 학문적 성과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노태조는 「국역삼강행실도」의 서지사항과 편찬년대를 추정하고, 수록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학적 실상을 검토하였다²⁾. 일반적으로 『三綱行實圖』의 국역이 성종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하여, 이 논문에서는 「初刊國譯三綱行實圖」 복각본(覆刻本)의 언어적 특징에 주목하여, 세종-세조 연간에 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수록 사례들을 전기문으로 간주하여 서사적 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 특징적이다. 노태조는 또한 『三綱行實圖』의 효행 내용을 중심으로 유교적 효행 전기의 특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³⁾. 임명옥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효 사례를 바탕으로 효행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⁴⁾. 조은상은 『三綱行實圖』의 효자편에 나타난 자기 파괴적 행동을 중심으로 효행의 심리를 살펴보았다⁵⁾.

조선 초기의 유교 윤리의 보급과 관련한 연구물로는 하우봉의 연구가 있다⁶⁾. 『孝行錄』과 『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세종대의 유교 윤리가 어떻게

2) 노태조(1982), 「국역 삼강행실도」에 대하여, 어문연구 Vol. 11, 충남대학교 문리대 어문연구회.

3) 노태조(1999), 삼국유사와 삼강행실도의 효행전기 대비 연구, 어문연구 제31집, 충남대학교 문리대 어문연구회.

4) 임명옥(1997),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나타난 효사례 고찰, 한남어문학 제22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5) 조은상(2001), 『삼강행실도』와 효자전에 나타난 자기 파괴적 효행의 심리, 겨레어문학 제26집, 건국대학교.

6) 하우봉(1983), 세종대의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 전북사학 제7집, 전북대학교 사학회.

이루어졌는지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효행자에 대한 포상 정책과 효 관련 문헌 간행이 어떤 목적과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문헌의 내용과 더불어 세세히 밝히고 있다. 김훈식은 보급의 대상에 중심을 두어 분석한 결과, 『三綱行實圖』가 단순히 ‘우부우부(愚夫愚婦)’만을 대상으로 한 교화용(教化用) 교재가 아니라 사회의 상층부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혔다⁷⁾. 조광은 조선 사회가 성리학적 효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구축하였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의 효 관련 문헌의 간행 의의와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⁸⁾.

김향수는 『三綱行實圖』와 효 사상의 보급에 대하여 관심을 둔 연구물을 남겼다. 세종 때 발간된 『三綱行實圖』로부터 광해군 때의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이르기까지 편찬 및 발간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⁹⁾, 『小學』 및 동몽교육서의 발간을 백성 교화 정책의 추이와 더불어 유기적으로 파악하였다¹⁰⁾. 한관일은 조선 초기의 정표정책(旌表政策)과 관련하여 『三綱行實圖』가 사회 교육의 차원에서 삼강에 대한 행동 규범을 제시하였음을 밝혔다¹¹⁾. 장덕삼은 『三綱行實圖』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청각적 교육 방법의 체제로 발간되었음에 주목하였고¹²⁾,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의 『세계도회(Oribis Sensualium Pictus, 1658)』보다도 더욱 보편타당한 교육원리를 지향한 시각적 교수매체로서의 교육

- 7) 김훈식(1996), 조선초기 삼강행실도 보급의 대상, 인제논총 제12권 제1호, 인제대학교.
- 8) 조광(1998), 조선조 효 인식의 기능과 그 전개, 한국사상사학 제10집 1호, 한국사상사학회.
- 9) 김향수(1998), 삼강행실도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No.85, 진단학회.
- 10) 김향수(2003), 조선 전기 삼강행실도와 소학의 편찬, 한국사상과 문화 Vol.19, 한국사상문화학회.
- 11) 한관일(1995), 삼강행실도의 사회교육적 의의, 교육과학연구 제9집, 청주대 교육문제연구소.
- 12) 장덕삼(1998), 삼강행실도의 시청각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인간교육연구 Vol. 5 No.1, 인간교육연구원.

적 의의를 밝혔다¹³⁾. 이용길은 『三綱行實圖』, 『小學』 등의 문헌이 조선사회의 의리지학(義理之學) 실천을 위한 대중교육의 기본 교재로 확립되어 그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였음을 논하였다¹⁴⁾. 강미희는 『三綱行實圖』가 아동교육사적으로 매우 탁월한 교재였음을 밝혔다¹⁵⁾. 이광렬은 조선 초기 이래의 유교 이념 보급과 교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성립의의를 파악하였다¹⁶⁾.

한편 이재영은 『孝經』의 간행에 대하여 서지학적인 고찰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효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편찬과정과 서지적 특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다¹⁷⁾. 이 외에도 『三綱行實圖』나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대상으로 조선시대의 교화정책이나 문헌상에 나타난 교육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다¹⁸⁾.

다음으로 현대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효 관련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는 효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고 효가 포함된 전통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 내용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우선 박재주의 논의가 있다. 박재주는 제

-
- 13) 장덕삼(2000), 삼강행실도와 세계도회의 비교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2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 14) 이용길(1998), 조선전기 교재보급을 통한 대중교육의 전개, 한국교육사학 제20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 15) 강미희(2005),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Vol. 10 No. 3,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16) 이광렬(2007), 광해군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편찬의 의의, 한국사론 제53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17) 이재영(2007), 조선시대 효사상의 전개와 효경의 간행,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18) 김중도(2002), 정일영(2007) 등 특히 석사학위논문에서 많은 연구 사례가 보인다.

7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덕 윤리와 행위 윤리 간의 통합적 차원에서 전통 예절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¹⁹⁾. 이영경은 현행 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가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한국 전통의 문화와 윤리에 대하여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고, 한국 전통 규범들에 대한 해석에서 의미의 굴절이 드러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⁰⁾. 김재식은 전통 덕 교육에 초점을 두고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분석하여, 현행 도덕과 교육이 역사성이 배제된 교육이었음을 지적하였다²¹⁾. 비록 6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도덕·윤리과 교육에서의 한국 전통사상의 위상과 역할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이경무의 연구가 있다²²⁾.

이 외에도 전통적 도덕 교육과 현대 교육과의 연관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논의들이 다수 보인다. 이홍우는 동양적 도덕교육의 전통에서 규범의 의미와 정당성은 언설보다는 일상 사태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며, 오로지 ‘심성’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한다²³⁾. 김용재는 전통문화 및 유교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인성 도덕교육과 예절교육, 경전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전통 유교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²⁴⁾. 김철호는 전통 도덕교육과 현대 도덕교육의 비교를 통하여, 7차 교육과정과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

19) 박재주(2005),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중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윤리교육 내용에 관한 비판적 연구, 윤리교육연구 Vol. 7, 한국윤리교육학회.

20) 이영경(2006), 7차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 분석, 윤리교육연구 Vol. 11, 한국윤리교육학회.

21) 김재식(2006), 전통 덕(목)교육에 기초한 초등 도덕과 교육, 초등도덕교육 제20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2) 이경무(1999), 도덕·윤리과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한국전통사상, 교육논총 Vol.3,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3) 이홍우(2005), 도덕교육의 동양적 전통, 도덕교육연구 제17권 1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4) 김용재(2008), 전통문화 및 유교교육의 활성화, 유교사상연구 제31집, 한국유교학회.

을 인생의 최우선 이념으로 하여 의(義)를 중시하고 이(利)를 경시하는 최대 도덕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²⁵⁾. 정대련은 전통 동몽교재와 현행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효 교육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현대 아동들의 효 실천의 근거와 계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²⁶⁾. 류점숙은 전통사회에서 효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현대에 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조기도덕교육 모델을 통한 생활 교육, 충실한 가정생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²⁷⁾.

이상에서 보면, 『삼강행실도』나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대하여 발간 배경이나 편찬 의도, 역사적·사회적 의의, 교육적 의미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현대의 도덕 교과서에 대한 분석도 도덕 교육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 전통 교육의 계승을 위한 제언 등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과거의 국민교육의 교재로 사용된 문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현대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三綱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특히 효 관련 분야에 깃들여 있는 교육적 함의를 추출하여, 현대 도덕 교육의 효 교육 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한다.

25) 김철호(2008), 우리 도덕교육의 전통과 현대화,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6) 정대련(1995), 아동기 효 교육의 조명 - 전통동몽교재와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효행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13호,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27) 류점숙(1995), 조선시대 아동 효행교육의 현대적 의미, 1995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아동학회.

Ⅱ. 조선시대 효 교육의 전개

1. 효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가. 효의 개념과 성격

‘효(孝)’라는 글자의 어원(어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신(許慎)의 『說文解字』에서 ‘善事父母者, 子承老也’라고 풀이한 것을 근거로 들어, ‘부모를 잘 모시는 것으로, 아들이 노인을 받들고(업고) 있는 모습이다.’로 해석한다. ‘孝’字는 회의문자(會意文字)²⁸⁾로 ‘老(老者, 父母)’를 ‘子(少子, 子女)’가 업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흔히 ‘孝’는 살아 계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 최고(最古)의 시가집(詩歌集)이라 할 수 있는 『詩經』에 나오는 ‘孝’字의 쓰임을 살펴보면, 모두 조상에 대한 제사(祭祀)와 관계가 있고, 살아 계신 부모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다²⁹⁾. ‘孝’의 ‘子’는 고대에 제사지낼 때의 ‘시동(尸童)’³⁰⁾과 연관이 있고, 그로 인해 ‘子’字는 제사지낸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孝’는 원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었다가, 후에 살아 계신 부모를 잘 모신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효’의 어원에 대한 논의가 어떻든 간에 그 근원은 부모를 섬긴다는 본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효’는 아버지와 자녀 간에 형성되는 원시적인

28) 상형(象形), 지사(指事), 형성(形聲), 회의(會意),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한자를 만드는 여섯 가지 원리 중 하나. 둘 이상의 글자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합쳐져서 새로운 뜻의 한자(漢字)가 만들어지는 원리이다.

29) 우준호(2000), 유교의 기본 관념에 대한 재고찰, 중국학논총 제10집, 한국 중국문화학회. p.34.

30) 옛날에 제사(祭祀) 지낼 때에 신위(神位) 대신으로 교의(交椅)에 앉히던 어린아이.

관계로부터 출발하며 그 관계를 규정하는 질서라고 볼 수 있다. 유교에서는 예로부터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왔는데, 이러한 사실은 공자의 가르침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효’를 ‘天之經이요, 地之誼요, 民之行’³¹⁾이라고 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개별적인 관계를 일종의 자연법적인 기초를 가진 관계규범으로 해석하였고, ‘夫孝, 德之本也’³²⁾라고 하여, ‘효’를 모든 덕목의 기본으로 보았다.

유교적 ‘효’의 특징은 유교의 경전 중에 효에 대한 생각이 집약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孝經』에 잘 나타나 있다. 『孝經』은 공자가 한거시(閑居時)에 제자 증자와 문답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증자의 문인이 공자 및 증자의 설을 정연(整然)한 조직 체계를 세워서 서술한 것으로, 유교적 생활윤리의 기본이 되었다³³⁾. 『孝經』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만덕(萬德)의 근본이 ‘효(孝)’라는 점이다. 부모는 내 몸 전체를 주었으니, 그 신체를 조금도 훼손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보존함이 효도의 시작이요, 스스로 입신(立身)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남겨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은 효의 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효는 일의적(一義的)인 것이 아니고 사회 계급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유교의 도덕 자체가 계급사회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고 동시에 모든 행위 덕목이 각 계급에 합당한 행위 표준에 준거하여 이루어졌다. 효경에서는 천자(天子), 제후(諸侯), 경대부(卿大夫), 선비(士), 서인(庶人)의 다섯 계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셋째, 효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이며 근본적인 것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형삼천(刑三千)에 불효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다.’고 하여 효도는 하늘의 경륜이요, 땅의 정의요, 백성의 행할 바임을 말하고 있다.

31) 『孝經』, 三才章.

32) 『孝經』, 開宗明誼章.

33) 오선균(1981), 효 윤리의 현대적 구명, 교육논총 제1집, 건국대 교육대학원, pp.44-45 참조.

넷째, 효는 애경(愛敬)의 원리와 정의 양심의 원리와 생활의 원리 위에 서 있다고 본다. 성치장(聖治章)에 ‘아버이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덕에 어긋나는 짓이라 말하고, 그의 아버이는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예에 어긋나는 짓³⁴⁾’이라고 하여 사랑과 공경의 원리를 말하였다. 아버이를 제대로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고서 남을 사랑하거나 공경하는 것 자체가 덕(德)과 예(禮)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효도는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다는 내용으로, 간쟁장(諫爭章)에 ‘옛날에도 천자에게 간하는 신하 일곱 명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다 하더라도 그의 천하를 잃지 않았고, 제후에게 다투어 간하는 신하 다섯 명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다 하더라도 그의 나라를 잃지 않았으며, 대부에게 다투어 간하는 신하 세 명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다 하더라도 그의 집안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다투어 간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자신은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³⁵⁾’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부모가 만약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이 그에 대하여 간(諫)하여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와 양심의 원리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기효행장(紀孝行章)에는 ‘효자로서 아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그의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고, 봉양함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즐거움을 다하도록 하며, 병이 나셨을 적에는 그의 근심을 다하도록 하고, 상을 당했을 적에는 그의 슬픔을 다하며, 제사를 지낼 적에는 그의 엄숙한 마음을 다해야만 한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연후에야 아버이를 제대로 섬기는 게 되는 것이다.³⁶⁾’라 하여 효자가 생활 속에서 부모를 섬기는 자세를 말하였

34) 『孝經』 聖治章：“不愛其親，而愛他人者，謂之悖德，不敬其親，而敬他人者，謂之悖禮。”

35) 『孝經』 諫爭章：“昔者，天子 有爭臣七人，雖無道，不失其天下，諸侯 有爭臣三人，雖無道，不失其國，大夫 有爭臣三人，雖無道，不失其家，士 有爭友，則身不離於今名，父 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

36) 『孝經』 紀孝行章：“孝子之事親，居則致其敬，養則致其樂，病則致其憂，喪則致其哀，祭則致其嚴，五者備矣然後，能事親。”

다. 아울러 밖에 나가 생활할 때의 효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말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불평·한탄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며, 대중(大衆)과 더불어 다투지 말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효가 도덕 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주(周)왕조에 접어들면서 부터이다³⁷⁾. 주왕조는 동일한 성씨 즉 희(姬)씨 혈족 집단에 의해 종법제³⁸⁾와 봉건제의 시행을 통하여 그 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이에 따라 통치계층 내부의 질서 유지와 결속의 강화를 위해 효라는 도덕관념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혈족의 결속도 느슨해지고 통치계층 내부의 질서도 흐트러지게 되어 결국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춘추시대 말기에 활동하였던 공자는 효를 포함한 예(禮)가 외재적 형식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인(仁)이란 덕성의 발로임을 밝혔다. 덕성에 기초한 예(禮)는 자율적 도덕 실천의 덕목이며 그 가운데 효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감은(感恩)·공경(恭敬)의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이 된다.

흔히 효(孝)를 비롯한 유학에서의 윤리는 상하로 이어지는 종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학에서의 윤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쌍방적(雙方的)이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가 놓인 위상에 합당한 도의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말하였다³⁹⁾. 이른바 정명(正名) 사상을 담고 있는 이 문구는 유

37) 정상봉(2000), 유학에서의 효와 그 현대적 의미, 건국대 인문과학논총 제34집, p.34.

38) 종법제(宗法制)는 주나라 봉건제도의 유지를 위해 운영했던 혈족 중심의 제도로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나뉜다. 대종은 적장자(嫡長子) 상속으로 무한히 이어져 나가도록 한 가계이며, 소종은 적장자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적장자 집안의 남동생들이 세운 가계이다. 주나라 왕실과 제후, 제후와 경대부(卿大夫)의 관계도 모두 이와 유사한 질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교 윤리의 쌍무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맹자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윤리로 오륜(五倫)을 제시하였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 임금과 신하 간의 의로움, 부부 간의 구별, 웃어른과 젊은이 간의 차서(次序), 친구 간의 믿음 이 다섯 가지도 역시 윤리의 쌍무적 성격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윤리의 쌍무적 성격은 퇴색(退色)되고 일방성·맹목(盲目)성이 강조되었다. 군현제를 통한 수직적 통치 구조를 형성하였던 한대(漢代) 이래로 윤리의 핵심으로 거론된 삼강(三綱 -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이 그 폐해의 빌미를 제공한 근원이다. 즉 신하의 임금에 대한 맹목적 충성, 자식의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효도,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일방적 순종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⁴⁰⁾.

나. 효의 교육적 의의

효는 한국의 고유도덕으로 출현되었으며, 한국 교육사상의 중핵을 이루어 왔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이 교육적 전통이었으며, 교육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를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왔다. 또한 인의를 존중하였으며 예양(禮讓)하는 생활 태도를 지녀 왔다. 일찍이 한국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 호칭을 받게 된 것은 예의가 있고, 인의(仁義)를 존중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⁴¹⁾.

효의 핵심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윤리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은 사랑의 마음을 펴는 출발점이다. 기본적인 인간 관계

39) 『論語』 顏淵篇, “君君臣臣父父子子.”

40) 정상봉, 앞의 논문. p.35.

41) 이경식(1986), 충효사상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사회문화연구 제5집,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p.119.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학에서 그것을 천륜(天倫)이라고 하듯이 혈연에 기초하여 뗄 수 없는 존재 연관을 갖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마음을 쓰는 것을 ‘자(慈)’라고 한다.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곡진(曲盡)히 하는 것이 효이다⁴²⁾.

효의 교육적 의의는 효경에서 제시한 ‘효의 처음과 끝’에서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효경에서는 ‘신체발부(身體髮膚)’를 ‘불감훼상(不敢毀傷)’하는 것이 효의 처음이라고 했다. 우리의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조금도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효가 자녀들의 건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큰 불효(不孝)가 자녀가 부모 생전에 병들어 죽는 것이라는 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⁴³⁾. 이는 부모의 육신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아픔을 고려한 것으로, 부모에게 정신적인 평안함을 주기 위해 자녀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녀의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적 건강이 더욱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⁴⁾.

『孝經』 기효행장(紀孝行章)에는 삼불효(三不孝)로, 윗자리에 있다고 교만하거나, 남의 밑에 있다고 어지러운 일을 일으키고, 더러운 자리에 있다고 다투면, 비록 날마다 세 가지 고기로 봉양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효가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⁴⁵⁾. 맹자(孟子)도 오불효(五不孝)를 말하였는데, 첫째, 게으름, 둘째, 주색잡기(酒色雜技), 셋째, 금전(金錢) 욕심과 처자(妻子) 편애(偏愛), 넷째, 탐심(貪心)에 의한 부모 망신, 다섯째, 만용(蠻勇) 호쟁(好爭)이다⁴⁶⁾. 이러한 관

42) 정상봉, 앞의 논문. p.35.

43) 이러한 의미로 ‘참척(慘慫)을 당하다, 참척을 보다.’라는 말이 쓰인다.

44) 이계학(1978), 효교육의 당위성과 인간교육에 관한 인간학적 고찰, 동대논총 제8권 1호, 동덕여자대학교. p.39.

45) 『孝經』 紀孝行章 “事親者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此三者不除 雖日用三性之養 繇爲不孝也.”

46) 『孟子』 離婁下 “世俗所謂不孝者五 惰其四肢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好飲酒 不告父母

점에서 보면 ‘자녀의 건강’이란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결국 효경에 제시된 효 시작의 본질은 어버이에게 공경하는 마음과 자아의 건전한 정신을 실현하는 데 있다.

효(孝)의 ‘끝’으로는 ‘입신행도(立身行道)’를 언급하였다⁴⁷⁾. ‘입신(立身)’하여 사람의 도리(道理)를 행함으로써 후세(後世)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효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모와의 경(敬)의 관계형성을 통해 ‘입신(立身)’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여기에서 ‘입신(立身)’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⁸⁾.

‘입신행도’를 자구(字句)대로 해석한다면 ‘몸을 일으켜 길을 걷는다.’는 뜻이다. 정상아의 경우는 출생 1년이면 ‘立身(몸을 일으킴)’하고 이후 3, 4 개월이면 ‘行道(길을 걸음)’한다. 이로 보면 효의 마지막 단계인 ‘입신행도’는 다른 의미를 내포(內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입신(立身)’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전인적(全人的) 자기완성, 사회인으로서의 인격, 어엿한 인격형성으로서 칸트(I. Kant)의 자기동일성(自己同一性)의 상태에 도달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입신’은 자기완성, 인격형성 및 자기동일성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생물학적 인간의 상태에서 인간학적 인간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입신’이고 효도의 완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효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부자의 관계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격의 완성과 자아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

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爭 以危父母 五不孝也.”

47) 『孝經』, 開宗明誼章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48) 이계학, 앞의 논문 pp.40-42

적 의의가 크다. 그것은 동시에 이상적(理想的)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이기도 하다. 과거 한 시대의 종적인 질서를 위한 구태의연한 낡은 관념이 아니라, 인간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수천 년의 경험 속에 전통으로 자리 잡은 효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명되고 교육적인 실천을 통하여 고양되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2. 전통적 효의 의미

가. 한 사상

우리나라는 아득한 고대로부터 황하문명이라는 인류 문명을 발상시킨 중국이라는 문화적 선진국과 인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영향이 지대했다. 그 영향은 문화 전반에 걸친 광대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상적인 측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사상은 당연히 그 연원을 중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문화의 모든 연원을 중국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비록 다른 문화의 영향이 아무리 막대하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우리만의 특성은 분명 존재하고, 그것은 유구한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언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국어와 한자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 적어도 2천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한문을 배워 한자로 문자언어 생활을 한 세월만도 역시 그러한데, 우리말의 고유한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음식 문화, 의복 문화의 예를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전해 온 많은 사상이 있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 고유의 사상이 깔려 있으리라는 것을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고유의 전통 사상으로서 연구자들은 ‘한’사상을 제시한다. ‘한’은 한민족의 고유사상으로서 민족의 전통과 역사의 근거가 된다. ‘한’이야말로 외래사상인 유·불·선 삼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한민족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정통 사상으로서 그 본질은 민족 주체적 자각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단군신화에 나오는 ‘桓因’의 ‘桓’은 ‘한’사상의 ‘한’과 통하는 것으로 본다. 다산 정약용은 『我邦疆域考』에서, 옛날 대륙에서 남쪽으로 향해온 한민족이 그들의 우두머리를 ‘한’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통치형태에서 ‘한’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한’을 근거로 하는 한민족의 도덕사상은 경천사상(敬天思想), 충효사상(忠孝思想),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 자유·평등 사상, 민족주체사상 등이 있다. 경천사상(敬天思想)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바탕으로 제천보본(祭天報本)의 숭천사상(崇天思想)과 경조여천(敬祖如天)의 경조사상과 애인애기(愛人愛己)의 애인사상(愛人思想)을 민족정신에 심어 주었다. 한민족의 윤리사상을 일관하여 오고 있는 효 윤리의 사상적 토대는 ‘한’의 대아정신(大我精神)이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나와 남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 대아의 윤리인 충효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큰 하나로 보았으며,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선(善) 실현의 가치덕목으로 인식하였다⁵⁰⁾.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등의 고대 기록을 보면 효의 윤리가 한민족의 생활윤리였음이 드러난다. 고구려의 ‘조의선도(阜衣仙道)’나 신라의 ‘화랑도(花郎道)’의 기록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윤리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마신앙’에

49) 이근철(1985), 한민족의 전통윤리사상 고찰 - 「한」 사상을 중심으로 -, 논문집 제21집, 인천교육대학교. p.73.

50) 이근철, 앞의 논문 p.96.

도 효 사상이 깃들여 있다⁵¹⁾.

효는 원초적으로 가장 자연발생적인 것이요, 생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가치 수행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효도를 하는 데는 본심에서 우리나라는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였던 것이다. 부모를 섬기는 일에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으나 한민족의 효 윤리는 물질적 봉양과 함께 정신적 봉양을 중요시하였다. 또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사의 형식을 통하여 계속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의 효 사상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중국의 유학사상이 유입됨에 따라 우리의 심성에 맞는 부분이 더욱 강화되고, 학문적·이론적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이 뒤따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무격 사상

우리의 국조(國祖)로 추앙되는 단군왕검의 ‘단군(檀君)’이라는 명칭이 이미 ‘무당(巫堂)’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라시대의 임금 호칭에서도 제2대 임금인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은 일명 ‘자충(慈充)’으로 불리었고, 이 말은 우리 말로 ‘무(巫)’를 뜻하였다⁵²⁾. 이처럼 무격신앙은 고대로부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무속에서는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할 때까지 삼신의 수호를 받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집의 가택수호신인 성조신(成造神)의 수호를 받게 된다. 성조신은 건강과 재수를 함께 맡아서 인간의 성공과 출세에 이르기까지 수호하는 신이다. 이러한 대표적 신도 있지만, 무속의 신은 섬기는 무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51) 정호완(2005), 고마 승배와 인성 교육, 교육연구 제1권 1호, 대구대학교 사범대 부설 교육연구소. p.165.

52) 『三國遺事』卷 第一 奇異 第一 第二代 南海王, ‘…次次雄 或作慈充…次次雄方言謂巫也…’.

는데, 무속의 신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친다는 것이 서사무가의 줄거리를 이루게 된다. 무속 신화로서 널리 알려진 것 중에 ‘바리공주’가 있다⁵³⁾.

바리공주는 부모의 잘못을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효녀로 심청전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행실을 보여준다.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음에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온갖 고초를 감내하고 마침내 저승 너머에 있는 신선세계에서 영약(靈藥)을 구해 와서 아버지를 살려낸다. 서울지역 전승본에서는 이 공적으로 인하여 바리공주가 무조신(巫祖神)이 되며, 영남지역 전승본에서는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된다.

무속 신앙에서도 효도라든지, 충성이라든지 하는 도덕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크게 가치로운 것으로 부각되어 있지는 않다⁵⁴⁾. 하지만 효와 관련된 영웅적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무조신(巫祖神)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무속 신앙에서도 ‘효’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민족 정신의 저변에 깔려 있는 무격사상에서도 역시 ‘효’의 배경사상적 요소가 확인되는 것이다.

다. 유교 사상

효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유교사상이다. 중국 고대로부터 형성되어 온 유교사상은 공자·맹자를 거치면서 확고한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유교사상은 우리의 전통적 조상숭배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

53) <바리데기>·<칠공주>·<오구풀이> 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혼령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베풀어지는 사령제(死靈祭) 무의(巫儀)에서 구연된다. 무가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울지역 전승본이 바리공주의 영웅적 행위와 신성(神性) 획득 과정의 인과적 전개를 통해 신화적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함경도지역 전승본은 인과의 논리가 허물어지고 골계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민담으로의 변모를 보인다. 『출전:브리태니커(daum 백과사전 사이트 收錄』

54) 최길성(1996), 무속에 나타난 종교의식, 『한국 사상의 심층』. p.44

고, 통치 이념으로 활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 수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 이미 도입되어 우리의 사상과 정치, 사회에 크게 작용하기 시작한 유교 사상은 특히 조선시대에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내면 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은 ‘인(仁)’이다. 인(仁)은 공자 이전에는 군주가 백성에게 보이는 친애(親愛)의 뜻 정도로 이해되다가 이후에 그 의미가 확대되어 하나의 개별적인 덕목인 자비로움을 가리키게 되었다. 공자는 모든 개별적인 덕목을 포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완전한 덕성을 나타내는 말로 인(仁)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인(仁)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효(孝)이다. 인간 삶의 출발점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생활원리로서 효(孝)는 유교에서 인간적으로 완성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육친애로써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라 하고 윗 사람을 경애하고 순종하는 것을 제(悌)라 하는데, 이 효제(孝悌)가 인(仁)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 인(仁)은 이인(二人), 즉 두 사람의 사랑,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존재를 각성하고 육친애를 바탕으로 전 인류에게까지도 사랑을 넓혀나가는 것을 말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시작하여 수신(修身)하고, 제가(齊家)하여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까지 나아가자는 동양적 인본주의인 이 인(仁)은 효(孝)를 중요시하지 않는 서구의 인본주의에 비해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효는 인을 성취하는 바탕이라 했고, 이 바탕 위에서 모든 도가 생긴다고 보았다⁵⁵⁾. 흔히 유교를 거론할 때 이야기 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출발점도 ‘부자유친(父子有親)’에서 찾을 정도로 유교사상은 전통 효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다.

55) 최용학(1987), 효윤리의 현대적 고찰, 논문집 제4집, 평택대학교. p. 7

라. 불교 사상

석가모니에 의하여 창시된 불교는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정신적·문화적·사상적·사회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불교는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10년(A.D. 65년)에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래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A.D. 372년) 전해졌다. 불교에는 원래 효 사상과 관련된 두드러진 내용이 없었으나 중국에 전래되어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보은(父母報恩)의 사상이 형성되었다⁵⁶⁾. 중국이라는 기성사회 윤리와의 충돌, 반격, 조화, 타협의 역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래 불경(佛經)에는 없던 효(孝) 사상이 보완된 것이다.

불교는 세상을 벗어난 도로서 출가(出家)의 도(道)를 지켜 나가려는 데서 승려(僧侶)의 불배군친(不拜君親)의 문제점이 중국 토착화 과정에서 드러났다. 중국에서 사군(事君)의 사상은 천명설(天命說)로 성립된 것으로, 제왕(帝王)을 천자(天子)라고 부르며, 민간신앙의 여러 신보다 더 위에 있으며, 하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예(禮), 악(樂), 제도를 정하여 천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제왕은 도(道), 천(天), 지(地)와 함께 하는 위대한 존재이므로, 승려는 제왕의 신하로서 당연히 제왕을 공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불교에서는 출가(出家)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의 도덕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도 집중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효의 문제에서도 조상숭배와 제사가 없는 불교는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오계(五戒)와 효(孝)와의 일치’를 주장하였다⁵⁷⁾. 불교 윤리의 기본이 되는 오계(五戒), 즉 ‘불살(不殺), 불도(不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飲酒)’가 유교 윤리의 근본인 효와 일치한다고 번역

56) 김진동(1979), 부모보은에 관한 연구, 원광교학연구 제9집, 원광대 원불교학 연구회. p.45
원광(1995), 불교의 효사상과 특성, 승가 제12집, 중앙승가대학교. p. 262.

57) 김진동, 앞의 논문. p.47.

해석해 넘으로써 타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효의 윤리를 중심으로 불교 교리를 전개함으로써 『父母恩重經』과 같은 효 관련 불경이 등장하게 되었고, 불교의 부모 보은 사상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효 관련 불경인 『父母恩重經』에는 부모의 은덕을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잉태하고서 지켜준 은혜, 둘째, 해산할 때 고통을 받는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서 근심을 잊는 은혜, 넷째, 쓴것도 삼키고 단것도 뱉어 먹여주신 은혜, 다섯째, 진자리 마른자리를 가려 뉘어 주신 은혜, 여섯째, 젖을 먹여주고 키워주신 은혜, 일곱째, 깨끗하지 않은 것을 씻어주신 은혜, 여덟째, 자식이 멀리 여행함을 걱정해 주시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서 악업을 거둬주시는 은혜, 열째,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이다.

이 책은 이 외에도 보은의 막중함과 보은을 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무거운 죄를 말하고 있다. ‘지옥고(地獄苦)’를 강조하여 자식이라면 마땅히 어버이에게 보은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불효한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아비무간지옥에 떨어진다(不孝之人 身壞命終 墮阿鼻無間地獄).’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는데, ‘부모를 위해 거둬 경전을 간행하여 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일(爲於父母 重興經典 是真報得父母恩也)’이라고 말하고 있다.

『父母恩重經』은 그 내용면에서 효경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부모의 은혜가 구체적이고, 둘째, 과학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셋째, 효경이 아버지를 두드러지게 표출한 것에 반해 『부모은중경』은 어머니의 은혜를 더 강조했으며, 넷째, 어떤 것이 은혜인가를 구체적으로, 효경보다 더 많이 설명한 뒤 은혜를 갚는 방법과 아울러, 실천하지 않은 부도덕하고 불효한 자식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보다 적극적인 보은을 강조하고 있다.

마. 도교 사상

삼국시대에 유입된 도교 사상은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대한 행사가 거행되기도 하면서 민중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렸으나,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도교적 행사는 유교적 이념에 어긋난 이단으로 취급되어 국가적 행사는 축소되고, 약화되었다. 하지만 왕실을 중심으로 선조 무렵까지는 도교적 제례가 행해졌다. 왕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취지와 아울러, 왕이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왕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교적 사대주의로 인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황제만이 가능하고, 그 외의 왕들은 다만 땅에만 제사 지내야 한다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조선시대에 도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시되지는 않았지만, 삼국시대로부터 이어 온 전통의 맥 가운데에서 민중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도교 계통의 문헌 중에 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것으로 『三聖寶典』과 『太上感應篇圖說諺解』가 있다.

『三聖寶典』은 도교의 신앙 대상인 문창제군(文昌帝君), 관성제군(關聖帝君), 부우제군(孚佑帝君)과 관련된 경전과 영험기(靈驗記) 등에서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 1권으로 엮은 책인데, 편찬 시기나 편저자를 알 수 없는 책이다. 서문 시작 전 표제면에 서명(書名)과 함께 ‘諸惡莫作 衆善奉行(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많은 착한 일을 하라.)’이라는 불교 용어가 씌어 있어 책의 발간 의도가 대중의 교화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⁵⁸⁾. 본문은 제군(帝君)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효와 관련된 내용은 문창제군 부분에 실려 있다. 문창제군은 어머니의 종기를 빨아주는 등 지극한 효성을 통하여 제군의 지위에 올랐으며, 세상을 교화하는 데 특히 효를 장려하였다.

58) 이재영(2007), 조선시대 효 사상의 전개와 효경의 간행,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논문, p.46.

『太上感應篇圖說諺解』는 철종 3년(1852)에 간행된 이후 고종 17년(1880)에 고종의 명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모두 5권 5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된 이 책은 내용상으로 크게 착한 업보에 대한 것과 악한 업보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권1의 ‘至孝之報’와 권4의 ‘子道惡報’에서 효와 불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至孝之報’에는 4명의 효행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 ‘子道惡報’에는 불효한 사례 6건을 제시하였다. 그림을 덧붙였고, 종교적인 보답과 응징이 효, 불효에 뒤따르게 됨을 말함으로써 효를 장려하고 있다.

비록 조선시대에 도교가 이단으로 취급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 오기 전부터 유교, 불교, 도교는 상호 교섭하는 과정을 거쳤다⁵⁹⁾. 도교는 불교에서 의식(儀式)의 측면을, 불교는 도교에서 선적(禪的)인 면을, 유교는 도교에서 무극태극(無極太極) 등의 본체론적인 개념을 서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이미 고려시대에 널리 변진 도교 사상은 조선 시대에도 민중의 의식 깊이 남아 작용하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유교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는 도교 사상에도 효를 중시하도록 하는 요소로 심어져, 민중의 효 의식 고양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문헌을 통한 효의 보급

가. 조선의 건국과 송유 정책

조선은 건국이념(建國理念)부터 유교를 기본으로 하였다. 건국 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한양성의 배치에서부터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개념을 건물에 배치하였다. 사대문(四大門)과 종각(鐘閣)의 명칭을 승례문

59) 송향룡(1996), 한국 도교·도가사상의 특질, 『증보판 한국사상의 심층』 所收, pp.420-422.

(崇禮門),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홍지문(弘智門), 보신각(普信閣) 등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조선의 백성들을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통치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⁶⁰⁾. 한양 도성의 건축물과, 매일 드나드는 성문의 이름을 공자의 인(仁)과 맹자의 사단(四端)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이름으로 붙임으로써 백성들의 삶 속에서 유교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인(仁)’을 이루는 첫걸음이 ‘효(孝)’라는 점을 상기할 때 결국 조선은 효 사상을 근본으로 백성을 교화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조는 또한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화하기 위해 정표정책(旌表政策)을 확대 시행하였다. ‘旌表(정표)’란 선행을 칭찬하여 널리 세상에 알리는 것을 뜻하며, ‘旌閭(정려)’는 효자, 충신, 열녀들이 배출된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이를 표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표정책은 신라 때부터 발생하여 고려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조선이 건국과 더불어 태조의 즉위 교지(教旨)에 명시됨으로 인하여, 정표 정책은 충신(忠臣), 효자(孝子), 의부(義夫), 절부(節婦)를 권장하고, 발탁(拔擢)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교화사업의 성격이 띠게 되었다⁶¹⁾. 이러한 정표정책은 태종대를 거쳐 세종대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세종은 조선 왕조의 개막 이후 진행된 불교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유교진흥정책을 펼쳐나갔다. 세종대는 특히 유교 이념이 단순한 통치 원리의 차원을 넘어서 민중의 의식과 관습에 뿌리를 내려 사회의 전반적 가치 기준으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유교의 의례적 기능을 강화하고 윤

60) 김무현(2006), 유가의 교화사상에 관한 연구 -효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p.149.

61)太祖實錄 卷1 元年 七月 丁未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충신(忠臣)·효자(孝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勸獎)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게 할 것이다...”

리적 행위 규범을 밝혀 보급함으로써 유교 이념의 보편화와 국민에 대한 교화를 추구하였던 시기이다.

세종대에 이루어진 유교진흥 정책을 보면 우선 세종 2년(1420) 집현전을 설치하여 제도의 정비와 유교 의례 및 윤리에 관련된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⁶²⁾. 명으로부터 『性理大典』과 『四書五經大典』을 수입하여 각도에 간행 보급하였고, 『資治通鑑綱目』의 수입과 경서의 주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또한 세종은 도의 규범과 윤리의 기초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小學』을 청소년 교육에서 꼭 이수하도록 권장하였다. 특히 유교적 실천 윤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표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孝行錄』과 『三綱行實圖』가 편찬 보급되어 이후 대(對) 국민 교화를 위한 기본 교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표정책이 유교적 이념 실천의 모범이 된 자를 표창하여 선양하는 역할을 했다면, 『三綱行實圖』는 유교적 윤리의 내면화를 위한 기본 교재로 기능한 것이다.

세종은 ‘以孝治國 人民成化’라는 효치주의적(孝治主義的)인 입장을 굳게 하여 유교윤리의 보급에 힘을 기울였는데, 세종실록에 보이는 포상기사만도 13 건이 보인다⁶³⁾. 이는 고려 시대 전 기간에 걸쳐 40여회, 태조대 2회, 태종대 5회에 대비해 볼 때 압도적으로 많은 포상이다. 세종은 매년 교지를 내려 효순자(孝順者)들에 대한 보고와 포상을 독려하였으며, 만약 보고 태만이나 허위 보고가 있으면 관련된 향리인(鄕里人)과 관리(官吏)를 벌하기도 하였다.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실 내용은, 효자의 경우 부모의 생시에 극진히 봉양하고, 상제(喪制)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행하고, 사후에는 시묘(侍墓) 3년을 하며, 절부(節婦)의 경우 지아비를 위해 수절하고 삼년상을 지내며 남편이 죽은 후 시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 등이었다. 포상에 신분적 제약은 없었으며, 포상

62) 하우봉(1982), 세종대의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 전북사학 제7호, p.20.

63) 하우봉, 앞의 논문, pp.24-26.

내용은 정문(旌門), 면역(免役), 관직제수, 가작(加爵) 등이 있었다.

조선 왕조에서 실시된 기로정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기로연(耆老宴)이었다. 노인을 귀중히 여겨 잔치를 베풀어 경로의 의식을 드높였는데, 존비(尊卑)를 따지지 않고 천인(賤人)들까지도 사대부와 함께 기로연(耆老宴)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잔치는 왕과 세자까지 참석하여 엄격한 의식 아래 치러지는, 뚜렷한 의미가 부여된 연회였다. 태조 이성계가 기로(耆老) 정책을 왕정의 최우선으로 실시함에 따라 조선 전 시대에 걸쳐서, 설혹 기근(饑饉)이 드는 경우에도 행해졌다. 아울러 시정(侍丁)·복호제(復戶制)라는, 늙은 부모를 봉양하도록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부역(負役)을 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노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해주는 사면제(赦免制), 노친(老親) 봉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원이나 군역자(軍役者)에게는 급가제(給暇制), 노인을 우대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높여 주며 위로하기 위해 귀천에 관계없이 관직을 내리거나 자급(資級)을 높여 주는 가자제(加資制)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 조선의 효는 더욱 고양되었으며, 효 교육이 지상(至上)의 목표로 자리 잡아 효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유교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 조선의 효 교육 교재

건국 이념을 유교로 삼으면서 조선은 사회규범, 가정제도, 교육,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유교에 바탕을 둔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의 사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는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이 강조되었다. 결국 유교의 사상적 특징은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유교적 이념은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각종 교육 기관

에서 공부해야 했던 『小學』의 내용을 통해서 깊이 각인될 수 있었다.

조선왕조에서 삼강오륜(三綱五倫)이 국민 윤리로 일반화된 것은 세종조의 일이다. 세종은 모든 백성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림으로 된 『三綱行實圖』를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충(忠)·효(孝)·열(烈)을 최고의 윤리 가치로 장려함과 아울러, 불충, 불효, 부정(不貞)을 최대의 죄악으로 규정했다. 중종 때는 『續三綱行實圖』를 완성하였으며, 광해군 때는 『新續東國三綱行實圖』를 효행 8권, 충신 1권, 열녀 8권으로 간행하였다. 『新續東國三綱行實圖』에는 신라 이래 효자 742명을 수록하였는데, 그 중 조선조에 해당되는 효자만도 676명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에서 얼마나 효를 숭상하고 장려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조 때는 『五倫行實圖』가 발간되었는데, 조선의 역대 임금들이 효 관련 문헌을 그림까지 곁들인 문헌으로 출간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정치의 근본과 교육의 방침으로 효를 얼마나 중시했던가를 짐작하게 해 준다.

조선조에서 효 윤리를 언급할 때 불교의 『父母恩重經』 또한 빠뜨릴 수 없다. 이 책은 왕조 초기부터 『佛說父母恩重經』이라 하여 특유한 삽화(插畵)를 곁들인 판본으로 널리 보급되었는데, 중기 이후에는 언해본도 출간되었다. 정조(正祖)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한문본과 한글본을 아울러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부터 여러 번 출간된 효 교육 교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단연 세종 때 나온 『三綱行實圖』이다. 처음 한문본으로 발간된 이 책은 이후에 언해본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발간된 ‘행실도’ 계통 백성 교화용 교재의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광해군 때 나온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三綱行實圖』의 맥을 이으면서,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만 내용을 선정했으면서도 그 방대한 수록 양을 보인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부터 이어진

유교적 교화 정책의 결과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의 유교적 교화 정책이 실행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충(忠), 효(孝), 열(烈)’의 유교적 사상의 기초로서 조선 전 시기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 책으로 『小學』이 있다. 이 책은 송나라 때 주자가 갖가지 유교 경전과 고전 중에서 어린아이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항목과 사례를 뽑아 편찬한 책으로, 고려 시대에 성리학의 전래와 더불어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이지만, 유학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잘 가려서 편찬하였고, 조선시대 내내 서당, 향교, 서원, 사부학당에서 기본 교재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정신적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엮은 유교 관련 서적으로 『孝經』이 있다. 『孝經』은 공자와 그의 제자인 증자가 효에 대해 서로 문답을 주고받은 것을 대화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유교의 경전 중에 처음부터 ‘경(經)’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은 『孝經』이 유일한 예인데, 전한(前漢)의 공안국(孔安國)은 ‘古文孝經序’에서 “효(孝)란 사람의 고상한 행실이요, 경(經)이란 불변의 것”이라고 하여 효경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⁶⁴). 『孝經』은 저자도 분명하지 않고, 작성된 시기도 확실하지 않은 책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⁵).

『孝經』의 국내 전래 시기 역시 분명하지 않다. 다만 삼국시대에 이미 시험의 한 과목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국내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孝經』은 신라의 국학(國學)과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의 필수 과

64) 『古文孝經』序, “孝經者 何也 孝者 人之高行 經常也…”

65) 이재영(2007), 조선시대 효사상의 전개와 『효경』의 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pp.57-58.

목이었고, 고려 때의 국학(國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조선시대 들어서는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孝經』이 더욱 중시되어 우리 민족의 효 전통을 한층 굳건히 하는 유교 윤리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 효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는 많이 존재한다. 불교경전 계통의 효 관련 서적이 다수 전하며, 도교 계통의 교재도 있다. 심지어 서학(西學: 天主教) 계통의 발간물 중에도 효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효 사상이 얼마나 조선조에 커다란 비중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조선시대에 발간된 효 관련 문헌들이다⁶⁶⁾.

<표 1> 조선시대에 발간된 효 관련 문헌

구분	서책명	저자 (편찬자)	간행시기	주요내용	비고
儒家系	孝行錄	權溥 權準	태종5년(1405)	權準이 중국 효자 24인의 이야기를 書工에게 그림으로 그리게 한 뒤 李齊賢에게 贊을 받아 실은 前贊 24장과, 權溥가 뽑은 38명의 효를 이제현의 贊과 함께 수록한 後贊 38장	고려 충목왕 때 발간된 것을 태종 때 權近이 後序를 붙여 발간. 선조 33년(1500) 중간됨.
	五倫錄	梁誠之	세조11년(1465)	五倫 관련 사례 수록	현전하지 않음.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발간 확인 가능
	敦孝錄	朴聖源	영조38년(1762)	『孝經』 등의 여러 문헌에서 효 관련 교훈과 故事를 선정하여 수록	57권 23책. 효 관련 내용을 집대성한 문헌
	敦孝須知	未詳	未詳(연산군 이후)	효의 實踐項目과 도리를 부모의 상황에 따라 세분하여 설명	2권1책의 筆寫本. 왕실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임.
	三綱行實圖	俛循	세종16년(1434)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孝子, 忠臣, 烈女 각 110명의 사례를 그림과 함께 수록	諺解本은 성종 21년(1490)에 三綱 사례를 각 35명씩으로 간추려 발간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重刊되었으며, 續三綱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 등으로 개편 간행되기도 하였음.

66) 이재영(2007), 앞의 논문 내용에서 추출하여 보완 정리한 것임.

	五倫行實圖	李秉模 등	정조 21년 (1797)	三綱行實圖와 二倫行實圖의 주요 내용을 모아서 편찬	5권4책
	孝經	未詳	隨時	孔子와 曾자가 효에 대해 서로 문답한 내용	조선 전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수시로 발간되었으며, 諺解本과 註釋書도 여러 차례 간행됨.
佛家系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阿難陀(編)	隨時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며, 특히 어머니의 은혜를 더 강조	한문본41종, 언해본 32종, 한글본 4종이 전국에서 간행됨.
	佛說大木連經	法天三藏 (漢譯)	隨時	木蓮尊者가 餓鬼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는 내용	13종 정도가 전하며, 전국에서 간행됨.
道家系	三聖寶典	未詳	未詳 (19세기 말)	도교 三聖帝君의 행적. 文昌帝君의 孝行	‘文昌帝君孝經, 關聖帝君忠義經, 孚佑帝君醒心眞經’으로 구성됨.
	太上感應篇圖說諺解	宋 李昌齡(編) 崔理煥	철종3년 (1852)	業報에 대해 말하면서 孝와 不孝의 업보를 포함	고종17년(1880)에 王命으로 再刊.
西學系	성찰기략 (省察記略)	Daveluy, A. 崔炯(刊)	1864	告白聖事 준비서	1882, 1890에 新式鉛活字로 重刊됨.
	신명초형 (神明初行)	Daveluy, A.	1864	天主教 信仰生活 入門 默想書. 마지막 장 『성강 모마리아』에서 孝 강조	上, 下 2권 木版本으로 간행된 후 수 차례 重刊됨.

이를 검토해 보면 조선시대에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효 관련 문헌은 『三綱行實圖』, 『孝經』, 『父母恩重經』이다. 특히 『三綱行實圖』는 세종 때 간행된 이후 민중을 위한 교화서(教化書)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오경 및 『孝經』과 더불어 조선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향교(鄕校)에서 교재로 쓰인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표 2> 조선시대의 교육기관과 사용 학습 교재

교육기관	설립주체	설립목적	학습교재	비고
成均館	국가	유교의 보급, 관리의 양성, 聖賢祭享	四書五經 및 製述	현대의 대학교육에 해당 고려의 國子監을 개편

四部學堂	"	성균관 의 교 예비 학 교 적 성격	小學, 孝經, 四書, 五經, 文公家禮集, 諸史, 楚辭, 文選, 歷代諸家詩	현대의 중등교육에 해당 태종11년(1411) 남부학당 설립 후 세종 때 본격화
鄉校	"	유학 교육 및 교화, 성현 제향	小學, 四書五經, 性理大典, 三綱行實, 二倫行實, 孝經, 心經, 近思錄, 諸史, 諸說, 鄉約, 家禮	현대의 중등교육에 해당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짐
書院	개인	국가에 필 요한 선비 양성 先賢祭享	小學, 家禮, 四書五經, 諸史, 子集	유학의 탐구와 연마에 초점. 중종 38년(1534) 주세붕이 백운 동서원 설립 이후 전국적으로 번짐
書堂	개인	유학의 기 초 및 기 초 교육	千字文, 童蒙先習, 小學, 通鑑, 四書三經, 史記, 唐宋文, 唐律	현대의 초등 교육에 해당 고구려의 扁堂에서 비롯. 성종 때 처음 '書堂' 명칭 보임. 현대 까지 존속됨.

Ⅲ. 조선시대 효의 의미 분석

1. 『三綱行實圖』의 분석

가. 『三綱行實圖』의 편찬 배경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고 출발한 조선은 이전의 고려시대에서 국교(國敎)로서 자리 잡은 불교의 사회적 풍미를 불식하고 새로운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유교는 통치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민중의 의식과 관습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적 전반적 가치 기준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유교 이념의 보편화와 민중의 교화가 중요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⁶⁷⁾. 이에 따라 조선 전기 사회교육의 이념과 목적은 성리학적(性理學的)인 틀에 근본을 두고 있었다.

성리학적인 교육 이념은 성현(聖賢)과 군자(君子), 그리고 사(士)에 기초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덕목(德目)으로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제시된다⁶⁸⁾. 『三綱行實圖』의 교육 목적은 결국 ‘수기(修己)’에 있으며, 조선 전기 사회교육은 사대부(士大夫), 평민(平民), 그리고 천민(賤民)에 이르기까지 삼강(三綱)의 실천 덕목을 생활화, 내면화하여 인륜과 풍속을 정비하여 사회질서(社會秩序)를 바로잡는 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었다.

세종대(世宗代)는 유교 윤리 보급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⁶⁹⁾. 그 중 『孝行錄』과 『三綱行實圖』의 편찬 보급은 유교적 실천 윤리인

67) 하우봉(1983), 世宗代의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 전북사학 제7집, p.18.

68) 한관일(1995), 『三綱行實圖』의 社會教育的 意義, 교육과학연구 제9집, p.103.

69) 하우봉(1983), 앞의 논문 p.20 참조. 세종대에 이루어진 유교진흥정책으로는 集賢殿 설치,

‘효(孝)’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효(孝)’는 흔히 ‘백행(百行)의 근본’으로 이야기되듯이, 유교윤리의 기초를 이루는 덕목이다. 이미 효 윤리의 보급은 이전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孝經』은 고려시대 교육기관이나 과거(科擧) 시험에서 기초적 선수과목으로 우선시되었으며,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과 불효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으로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세종 시대에는 ‘以孝治國 人民成化’라는 효치주의적(孝治主義的) 입장을 더욱 굳게 하여 유교윤리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三綱行實圖』의 편찬 동기가 된 것은 세종 10년(1428) 9월에 있었던 패륜사건(悖倫事件)이었다. 진주의 김화(金化)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⁷⁰. 이에 세종은 자책(自責)하면서 신하를 소집하여 효제(孝悌)를 돈독히 하고, 풍속(風俗)을 후하게 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였다. 이 때 판부사(判府事) 변계량(卞季良)이 『孝行錄』 등의 책을 간행 반포하여 여항소민(閭巷小民)들로 하여금 암송케 하고 서로 권면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세종이 집현전 직제학 설순(薛循)에게 명하여 『孝行錄』을 중수(重修)하도록 하였다⁷¹. 원래 변계량이 말한 『孝行錄』은 고려 말 권부(權溥)의 것을 의미했던 듯하나, 세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이 증보(增補) 편찬할 것을 지시하였다.

『三綱行實圖』는 세종 14년(1432) 6월에 완성되었으며, 집현전에서 이를 세종에게 올리자 세종이 ‘三綱行實圖’란 이름을 내리고, 이어서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간행하도록 하여, 세종 15년(1433)에 반포되었다. 초간본은 효자, 충신, 열녀 각 110 건을 수록하여 3권 3책 한문본으로 발간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책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다가 또 3책으로 되어 있어 일반 백성들이 간편하게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성종 21년(1490)

『性理大典』, 『四書五經大典』 수입 및 간행, 보급 등이 있다.

70) 世宗實錄 卷42, 世宗十年 十月 辛巳條.

71) 世宗實錄, 위 記事.

에 한글 번역을 추가하고 수록 사례를 각각 35개로 축소한 언해본(諺解本)이 1책으로 발간된다. 이후 『三綱行實圖』는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고 보급되면서 백성 교화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노태조(1982)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三綱行實圖』를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⁷²⁾.

<표 3> 조선시대 『三綱行實圖』의 발간 일람

順	書名	收錄人員	刊行年代	備考
1	原刊 漢文 三綱行實圖	330	세종 15년	선덕 7년
2	初刊 國譯 三綱行實圖	330	세종 26년 이후	정음 반포 후
3	再編 國譯 三綱行實圖	105	성종 12년	
4	覆刻 國譯 三綱行實圖	105	미상	定庵本
5	重刊 國譯 三綱行實圖	105	영조 2년	藏菴本
6	後刊 國譯 三綱行實圖	105	미상	성균관대 간행

한편, 최근에 이루어진 서지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문본은 원래 인출 수량이 적은 데다 언해본이 간행된 이후 통용이 줄었으나 언해본은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⁷³⁾. 특히 중종 6년(1511)에 풍속의 교화를 위해 반포한 『三綱行實圖』는 2,940질에 달할 정도였다. 성종대 이후 여러 차례 중간된 언해본(諺解本)은 크게 국한문병용본과 한글표기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한문병용본은 다시 초간본과 이를 번각(飜刻)한 중간본(重刊

72) 노태조(1982), 「國譯 三綱行實圖」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11집, 충남대 어문연구회, p.261 참조, 노 교수는 이 논문에서 「覆刻國譯三綱行實圖」의 표기법을 검토하고, 세종 세조년간에 발간된 문헌에서 보이는 ‘병’의 예를 들어, 최초로 『初刊國譯三綱行實圖』가 성종대 이전에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학계에서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마도 實錄 등에 기록이 언급되지 않았고, 실제 문헌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3) 이재영, 앞의 논문 pp.26-27 참조.

本)으로 구분되며, 한글표기본은 다시 의역(意譯)하는 방식과 직역(直譯)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역하는 방식은 영조 2년(1726) 이후 감영(監營)에서 간행된 판서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조선 후기까지 출간된 『三綱行實圖』의 한문본과 언해본 발간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⁷⁴⁾.

<표 4> 『三綱行實圖』의 한문본과 언해본

區分	刊行時期	所藏處	備考		
漢文本	세종16년 (1434)	고려대 도서관	초간본		
	16세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중간본		
諺解本	國漢文 並用	성종 21년(1490)	성암고서박물관	초간본	
		선조 14년(1580) 이전	구택대 도서관(日)	중간본	
		선조 41년(1608) 이전	고려대 도서관		
	한 글 표 기	意 譯 系 統	16세기	동경대 도서관	초간본
			효종 4년(1653) 이전	성균관대 도서관	중간본
		1727년	전남대 도서관		
		고종 19년(1882)	규장각		
	直 譯 系 統	영조 2년(1726)	성균관대 도서관	箕營刊	
		영조 6년(1730)	규장각	原營刊	
		영조 6년(1730)	고려대 도서관	海營刊	
영조 6년(1730)		이화여대 도서관	咸營刊		

성종 때 축소 개편되어 현재까지 전해오는 『三綱行實圖』는 孝子篇·忠臣篇·烈女篇 등 3편에 각편 35장씩 총 105장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마다 한 가지 사례를 싣고 앞면에는 삽화를, 뒷면에는 한문으로 된 전기(傳記)를

74) 이재영, 앞의 논문 p.27에 제시된 내용 중 서지적(書誌的) 형태 사항을 제외하고 발간 연대 위주로 재정리하였음.

실었으며, 다음에 그 내용을 읊은 칠언율시(七言律詩)를 붙여 놓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찬(贊)을 붙이기도 하였다. 삽화와 본문의 난 윗부분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붙여 놓아서 무식한 백성들도 모두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당시의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성리학의 실천 이념을 널리 보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시각적(視覺的)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⁷⁵⁾.

하지만 시(詩)와 찬(贊)은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붙여 있지는 않다. 충신편과 열녀편은 모두 시(詩)만이 부기되어 있는 점에서 통일되어 있는데 비하여, 효자편은 시(詩)와 찬(贊)이 다 붙여 있는 것이 10장, 찬(贊)이 없고 시(詩)만 있는 것이 20장, 시는 없고 찬만 있는 것이 5장으로 되어 있다. 효자편에 실려 있는 찬은 거의 다 고려말 권부(權溥)가 편찬한 『孝行錄』에 나오는 이세현의 찬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이 찬을 추가한 것이 한 장(皐魚道哭) 있으며, 시 중에는 명 태종 문황제가 지은 시가 있고, 나머지 시는 문신들이 나누어 지은 것이라고 『三綱行實圖』 서(序)에 기록되어 있다.

서술 순서는 중국인 기사를 먼저 배치하고 다음에 우리나라 기사를 넣었으며, 시대순으로 기록하였다. 각 기사 제목은 인물의 행실 내용을 축약하여 4자의 한자어로 우측 상단에 기록하였고, 그 바로 밑에 인물의 국적이 표시되어 있다. 행실을 기록한 내용은 대략 1행이 22자로 총 60자에서 80자 내외의 길이로 되어 있고, 시(詩)는 칠언율시(七言律詩)의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찬(贊)은 4언 14구의 형태로 적었다.

수록 인물은 한문본 『三綱行實圖』에 실린 330명 중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54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전의 『孝行錄』에 실린 인물 전체가 중국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록 수는 적을지언정 우리나라 인물을 선정하게 된 것은 다분히 세종 시대의 민족적 주체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훈민정

75) 장덕삼(2000), 『三綱行實圖』와 『世界圖繪』의 比較 研究, 한국교육사학 제22권 제2호, p.177 참조.

음 창제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점차 안정되어 가는 왕조의 토대 위에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을 붙여서 사례를 설명한 것은 풍속의 교화를 위해 문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국가 주도의 사업이었던 만큼 안건(安堅)을 비롯한 당대의 유명 화가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⁷⁶⁾.

나. 『三綱行實圖』 효자편의 내용 분석

『三綱行實圖』의 편찬 동기 자체가 ‘孝’ 윤리의 타락을 걱정한 데에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유교적 윤리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논리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효’가 중시된 이유는 부자관계야말로 삼강(三綱)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효’가 백행(百行)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자관계는 군신관계(君臣關係)보다도 더 일차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효’ 윤리는 ‘부자자효(父子慈孝)’를 기본으로 한다지만 반드시 부모의 ‘慈’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효’의 특성은 그대로 ‘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효’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고 할 수 있는 『孝經』 기효행장(紀孝行章)에는 다음과 같이 부모 섬기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효자로서 아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평소에는 그의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고, 봉양함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즐거움을 다하도록 하며, 병이 나셨

76) 이태호·송일기(2003), 초판본 삼강행실효자도의 편찬과정 및 관화양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5집, 서지학회. p.426.

을 적에는 그의 근심을 다하도록 하고, 상을 당했을 적에는 그의 엄숙한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연후에야 아버이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 된다...77)

효행이란 부모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지극한 정성과 엄숙한 예법에 따라 공경해야 한다는 절대적(絶對的)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부모를 모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리학의 전래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윤리의식 형성에 크게 작용한 『小學』의 明倫篇 父子之親 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 효를 실천하는 전범(典範)이 되었다.

『小學』, 『擊蒙要訣』 등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효를 살펴보면,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78).

첫째, 효행의 근간을 수신(受身 및 修身)에 두고 있다. 공자는 “부모가 나를 낳으셨으니, 이음이 이보다도 더 큰 것은 없다(小學 明倫).”고 하였으며, 율곡은 “성명과 혈육, 기맥 등 모두 부모가 나에게 이 몸으로써 주셨으니, 부모의 은혜를 알아 효도를 다해야 한다(『擊蒙要訣』 事親章).”고 하였다. 일차적으로 몸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점 하나로도 효행의 근거가 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행은 우선 자신의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남녀로서 아직 관 쓰지 않고 비녀 꽂지 않은 자는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하고, 머리 빗고...(『小學』 明倫)’라고 하여 매일 문안드리기를 해야 하며, 자식은 부모 앞에서 ‘추위도 감히 꺼입지 못하고 가려워도 감히 굶지 못하며, 물을 건널 때가 아니면 옷을 걷어 올리지 못하며, 속옷과 이불은 안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감히 구역질, 트림, 재채기, 기침을 하지 못하며, 하품하고, 기지개 켜고, 한쪽 발로 비스듬히 서서 다른 물체에 몸을 의지하거나

77) 『孝經』 紀孝行章, “子曰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五者備矣 然後能事親...”

78) 정대련(1995), 아동기 효 교육의 조명 - 전통동몽교재와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효행을 중심으로 -, 교육철학 제13호,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pp166-170.

결눈질하여 보지 못하며, 감히 가래침 뱉고, 콧물 흘리지 못한다(『士小節』童規).’라고 하였다. 또한 ‘아버이가 명령해 부르시거든 빨리 대답하고, 손에 일을 잡았으며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있으면 뱉어버리고 달려가며, 방 아랫목에 거처하거나 한가운데 자리에 앉거나 길 한복판으로 다니거나 문 한가운데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로하시거나 병든 부모를 걱정하고 모시는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가는 곳을 바꾸지 않으며, 집에 돌아옴이 약속한 때를 넘기지 않는다. 부모가 병이 있으면, 관(冠) 쓰는 자는 머리를 빗지 않고, 다닐 때에 나는 듯이 걷지 않으며, 다른 일을 말하지 않으며, 거문고와 비파를 타지 않으며, 맛을 모르도록 고기를 먹지 않으며, 얼굴빛이 변하도록 술 마시지 않으며, 잇몸이 드러나도록 크게 웃지 않으며, 성내어도 소리 질러 남을 꾸짖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은 항상 부모의 안녕을 염려하여 근신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의 도리는 집 밖에서의 몸가짐과도 연결된다. 밖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여쭙고, 돌아오면 반드시 뵈어야 한다. 노는 것이 반드시 일정한 곳이 있어야 하고, 익히는 것이 반드시 일정한 업(業)이 있어야 하며, 평상시에 자신을 늙었다고 말하지 않으며, 높은 곳에 오르지 않으며, 깊은 곳에 가지 않으며, 구차하게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구차하게 웃어서도 안 된다.

몸을 부모에게서 받았으므로 자신의 몸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남은 설혹 효심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불효가 된다. 또한 자식 된 자는 자신의 선행이나 악행이 부모 사후까지도 관계됨을 유념하여 행동해야 한다. 부모가 비록 죽었더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부모에게 명예가 돌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과감하게 실행하며, 불선(不善)을 행하려고 할 때는 부모를 욕되게 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봉양(奉養)이다. 『童蒙先習』은 ‘부모가 계시면 그 공경함을 극진히 하고, 봉양할 때는 그 즐거움을 극진히 하며, 병드시면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에는 엄숙함을 다한다.’고 봉양의 기본을 말하고 있다.

자식의 봉양은 어린 시절 아침 문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날마다 밝기 전에 일어나서 문안을 드리고, 낮 동안에는 항상 얼굴빛을 기쁘게 하고 태도를 부드럽게 하여 시중들기를 공경스럽게 하고, 곁에서 봉양할 적에는 자기의 있는 정성을 극진히 하며, 부모의 잠자리를 준비할 때는 이부자리를 손보아 드리고 따뜻한지 추운지 편안한지 불편한지를 여쭙어 보고 보살핀다.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무디어져 자칫 깨끗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의 청결한 생활을 돌보아 드려야 한다. 세숫물을 드릴 때에는 어린 자는 대야를 받들고 나이 많은 자는 물을 받들어서 부어 씻으시기를 청하며, 씻기를 마치면 수건을 드린다. 부모님의 가래침과 콧물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며, 관(冠)의 띠와 옷에 때가 묻었으며 젖물을 타서 빨기를 청하며, 옷이 터지거나 찢어졌으면 바늘에 실을 꿰어 깎기를 청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집기나 자리를 소중히 하고 함부로 처분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부모가 앉고 눕는 곳, 손님을 맞는 곳, 말을 타고 내리는 곳에는 아들이 감히 앉거나 눕고 사사로운 손을 맞거나 말을 타고 내리지 않으며, 부모의 책 또는 글 쓴 종이가 흩어져 있으며 마음을 써서 정리한다.

병든 부모가 있으면 자식은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익히는 등 부모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다른 일은 모두 제쳐놓고 다만 의사에게 묻고 약을 조제함으로써 병을 고치는 데만 힘쓰며,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을 용렬한 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불효로 생각하였다.

부모를 섬기는 예는 돌아가신 후 장례와 제사를 통해서도 계속된다. 장례와 제사에는 사랑과 공경,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주를 삼아, 가난하면 집의 형편

에 따라 행할 것이고, 병들어 있으며 근력을 생각하여 행하되 여력이 있는 한 음식 등의 제사 준비에 분량을 제한하지 않고 예법대로 행해야 한다.

셋째, 양지(養志)와 간언(諫言)의 효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인 것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이로울 일을 먼저 생각한다. 이러한 부모의 뜻을 공경하고 순종함은 자식된 도리의 출발점이 된다. 아버지와 자식은 친애(親愛)함이 타고난 성품으로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으니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봉양하며, 아버지가 비록 인자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부모가 사랑하면 기뻐하여 잊지 말며, 부모가 성내어 매질하여 피가 흐르더라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부모의 뜻을 섬길 때에는 부모가 말이나 형용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 그 뜻을 미리 짐작해서 받들어야 하며, 부모의 명령을 받으면 책자에 기록하여 몸에 지니고 때때로 살펴보아서 속히 실행하며, 일을 마치면 성심을 다하여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 부모의 사후에도 자식은 부모의 뜻을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 부모가 사랑하던 것을 사랑해야 하고, 공경하던 이를 공경해야 하며, 아버지 사후 3년 동안 아버지의 방침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 생전에 계시던 곳, 웃고 말씀하시던 것, 뜻하시던 것, 즐거워하시던 것 등을 생각하여 항상 눈에서 그 얼굴빛을 잊지 않으며, 소리가 귀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아버지의 심지(心志)와 기욕(嗜慾)을 마음에 잊지 않고 사랑과 정성을 극진히 하여 공경하여야 한다.

만약 부모가 명하신 일을 실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온화한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소리로 옳고 그름과 이해(利害)를 여쭙어서 부모의 허락을 얻은 후에 고쳐야 한다. 음식이나 옷을 주시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먹거나 입고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사리에 크게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

면 내 뜻을 굽혀 부모의 명력을 좇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부모의 뜻이 옳지 않을 때에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간(諫)하는 것도 자식의 도리였다. 부모의 허물이 있으며 기운을 낮추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며,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여서 허물을 고치시도록 간하여야 한다. 극진히 간하였음에도 듣지 않으실 경우에는,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기뻐하시거든 다시 간해야 한다. 세 번 간하여도 듣지 않으실 경우에는 울부짖으면서 그 뜻에 따라야 한다. 혹 부형이나 웃어른이 가르치고 타이르는 말씀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함부로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서 안 되고, 참고 잠잠히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천천히 조목조목 자세히 말하되 어른의 마음을 손상시키거나 거슬리지 않고 사리가 스스로 분명해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간언(諫言)을 세 번 한 이후에 부모의 뜻을 따른다 해도 부모가 죄를 지을 지경이 되기 전에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였다.

『三綱行實圖』의 효자편에 나타나 있는 효행의 모습은 모두 조선조에 어린 시절부터 널리 읽혀진 유교 관련서적의 효행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三綱行實圖』의 효자편에 실려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三綱行實圖』 효자도 내용

순	효행제목	효행내용	유형
1	閔損單衣	민손의 계모가 친자식을 우대하고 자신을 학대하지만 이를 참고 견디며 봉양함.	忍苦型
2	子路負米	자로가 가난하여 백 리 밖에서 쌀을 짚어다가 부모를 봉양함.	苦役型
3	楊香搯虎	양향이 열네살에 밭일을 하다가 호랑이에 물려 죽게된 아버지를 살림.	獻身型
4	臯魚道哭	고어가 학문하기 위해 집을 나가 다니다가 돌아와 부모 죽음을 애통해 하여 울다가 죽음.	喪祭型
5	陳氏養姑	진씨가 남편이 군에서 죽은 이후 혼자되었으나 재가하지 않고 시부모를 정성으로 모심.	苦役型
6	江革巨孝	강혁이 난리 속에서 홀어머니를 업고 피난을 다니는 등 가난한 중에도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고, 모사후 3년을 시묘살이 하였음.	苦役型

7	薛包灑掃	설포의 계모가 들어온 이후 구박으로 내침을 당했으나 아침이면 집 청소를 하여 부모의 마음을 되돌렸으며, 부모 사후 계모의 자식에게 좋은 전답 등을 나눠주고 자신은 나쁜 것을 취함.	忍苦型
8	孝娥抱屍	효아가 스물네 살 때 아버지가 익사하자 17일 동안 울다가 물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다음날 아버지의 시신을 안고 떠오름.	獻身型
9	黃香扇枕	황향이 아홉 살 때 어머니가 죽자 여름이면 시원하게 겨울이면 따뜻하게 아버지의 잠자리를 정성껏 돌보아 드림.	苦役型
10	丁蘭刻木	정란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부모상을 나무에 새겨 조석으로 섬겼는데, 이웃 사람이 목상을 빌려달라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은 앙갚음으로 목상에 매질을 하자 정란이 그 사람을 때려 관아에 잡혀 가게 됨에 목상이 눈물을 흘림.	喪祭型
11	董永貸錢	동영이 아버지의 상을 치르느라 지은 빚으로 종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직녀를 만나 주인집에서 비단 삼백 필을 짜고 풀려남.	感天型
12	郭巨埋子	곽거의 어머니가 항상 밥을 덜어 손자에게 주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땅에 묻고자 하였는데 땅 속에서 금이 나옴.	感天型
13	元覺警父	원각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산에 버릴 때 사용한 들것을 다시 가져와서, 장차 아버지를 버릴 때 사용할 것이라 함으로써 다시 할아버지를 모셔 오게 함.	忍苦型
14	孟熙得金	맹희가 정성껏 부모를 섬기다가 부모 사후 지극한 슬픔에 젖어 삼년을 지냈는데, 쥐구멍을 파다가 수천금을 얻어 부자가 됨.	感天型
15	王裒廢詩	왕부의 아버지가 위나라에서 벼슬하다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죽으니 벼슬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또한 위나라 쪽을 향해 앓지 않았고, 어머니가 죽은 후 묘에서 잣나무를 붙들고 우니 나무가 말라 죽음. 시경에 부모를 생각나게 하는 시구가 있는 부분을 슬픔에 복받쳐 읽을 수가 없었는데 제자들도 해당 구절을 공부하지 않음.	喪祭型
16	孟宗泣竹	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는 병든 어머니의 말에 대숲에 가서 우니 죽순이 솟아나와 봉양하여 병이 좋아짐.	感天型
17	王祥剖冰	왕상이 계모의 미움을 받아 어려움을 겪으나 원망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는데 계모가 한 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하여 고기를 잡으려 가니 얼음이 절로 갈라져 잉어가 나옴.	忍苦型
18	許孜埋獸	허자가 스승의 삼년상을 마치고 부모가 죽자 시묘하면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는데 사슴이 이를 파헤치니 슬퍼 울부짖었다. 다음날에 호랑이가 그 사슴을 물어다가 나무 밑에 두니 허자가 그 사슴을 무덤 옆에 묻었는데, 그 뒤 나무가 무성히 자랐다.	喪祭型
19	王延躍魚	왕연이 아홉 살 때 어머니가 죽고 맞이한 계모를 학대 속에서도 정성껏 섬겨 좋은 관계를 맺고,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사후에 시묘를 씀.	忍苦型

20	潘宗救父	반종과 아버지가 도적에 쫓겨 죽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를 안고 엎어져 보호하니 도적이 감동하여 부자를 살려줌.	忍苦型
21	黔婁嘗糞	유검루가 벼슬길에 있다가 꿈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병이 있음을 알고 집에 돌아가 嘗糞 등 온갖 정성을 다하여 구완하며 복두칠성에게 비니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하여 줌.	侍病型
22	叔謙訪藥	해숙경이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빌다가 정공등으로 술을 빚어 먹으면 낫는다는 계시를 받고 신령의 도움으로 약을 구하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함.	侍病型
23	吉昉代父	길분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를 청하니 이에 감복한 황제가 아버지를 석방함.	獻身型
24	不害捧屍	은불해가 아버지 죽고 늙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다가, 난리통에 어머니를 잃었는데 갖은 고생 끝에 이렛만에 시신을 찾아 정성껏 장례를 치름.	喪祭型
25	王崇止雹	왕숭이 부모 사후 지극한 마음으로 시묘사니 새와 초목이 異蹟을 보이고, 바람과 우박이 그의 발을 비껴감.	喪祭型
26	孝肅圖像	서효숙이 어려서 아버지가 죽자 그 화상을 그려 사당에 모시고 제를 올렸으며, 어머니 사후 정성을 다하여 시묘살이를 함.	喪祭型
27	盧操順母	노조가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지냈으나 계모의 아들 셋을 감싸고 가르치며 사랑하였고 계모가 죽자 지극히 애통해 하며 부모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다함. 후에 관리가 되어서도 백성을 사랑하며 항상 부모를 추도하는 행실을 함.	忍苦型
28	徐積篤行	서적이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자라나 어머니를 지극히 섬겨 심지어 과거를 보러갈 때도 모시고 갈 정도였는데, 아버지 이름이 石이어서 죽을 때까지 돌그릇을 쓰지도, 돌을 밟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머니가 죽자 정성을 다하여 시묘살이를 함.	喪祭型
29	吳二免禍	오이가 꿈속에서 다음날 벼락 맞아 죽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자 늙은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간청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됨.	感天型
30	王薦益壽	왕천이 자신의 수명을 털어 아버지에게 줄 것을 빌어 1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고, 어머니가 병에 걸려 한겨울에 오이를 찾으니 산골짜기에서 이를 구하여 어머니 병을 낫게 함.	感天型
31	劉氏孝姑	유씨가 시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팔의 피를 내어 약에 섞어 먹이고, 허벅지 살을 베어 죽에 섞어 먹이는 등 지극한 정성으로 모심.	獻身型
32	婁伯捕虎	최루백이 열다섯 살 때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으니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찾아가 죽이고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지냄.	獻身型
33	自強伏塚	김자강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다가 어머니도 죽으니 삼년상을 살고, 또 아버지를 위해 삼년상을 살려고 하니 처가에서 강제로 여막을 불태우고 데려오려고 하자, 무덤 위에	喪祭型

		사흘을 엎드려 있어, 결국 여막을 다시 지어 시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줌.	
34	石珍斷脂	유석진이 아버지 병을 낫게 하려고 약을 구하다가 산 사람의 뼈를 껍데기에 섞어 먹이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효험을 봄.	獻身型
35	殷保感鳥	윤은보와 서즐이 군사부일체를 맹세하고, 스승이 죽자 부모의 허락을 얻어 시묘를 살다가, 아버지가 병이 들어 집에 돌아와 아버지 사후에 빈소 곁에서 시묘를 살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향합이 없어졌는데 서너 달 후에 까마귀가 향합을 물어다 줌.	喪祭型

총 35건의 효행 사례는 크게 부모 생전의 효와 사후의 효로 나눌 수 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부모 생시에 잘 봉양한 것이 11장, 부모 사후에 예법에 따라 정성껏 상(喪)을 지내고 여막(廬幕)을 지어 시묘(侍墓)를 한 것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다⁷⁹⁾. 그 외에 자신을 학대하는 계모를 잘 섬긴 경우가 4건, 목숨을 걸고 부모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4건,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1건, 시부모를 잘 봉양한 효부(孝婦)의 사례가 2건, 스승을 잘 섬긴 내용이 1건, 조부모(祖父母)에게 잘못하는 부모를 은근히 깨우치게 하여 효도하게 하는 내용이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三綱行實圖』의 전기적 속성에 따라 이야기 유형을 분석해 보면 고역형(苦役型), 인고형(忍苦型), 시병형(侍病型), 헌신형(獻身型), 상제형(喪祭型), 감천형(感天型)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⁰⁾.

고역형(苦役型)은 주인공이 부모를 위하여 심한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 정성으로 봉양을 하거나, 어려운 생활과 가난 속에서도 남편 없이 노모를 홀로 봉양하는 유형이다. 난리 속에 어비를 업고 숨어 봉양하거나 스스로 수레를 만들어 끌고 다니며 지극히 봉양하는 이야기들로 나타난다. ‘江革巨孝’, ‘子路負米’, ‘陳氏養姑’, ‘黃香扇枕’ 등이 이에 해당한다.

79) 하우봉(1983), 앞의 논문 p.41 참조.

80) 노태조(1999), 三國遺事와 三綱行實圖의 孝行傳記 對比 研究, 어문연구 제31집, 충남대 어문연구회, pp.103-104.

인고형(忍苦型)은 계모나 부모가 몹시 학대하여도 참거나, 겨울철 눈과 얼음 속에서도 죽순이나 물고기를 가하기 위하여 기도와 정성으로 아버이를 구하는 유형이다. 또한 아버지와 자식이 난리로 인하여 적에게 잡혀 죽게 된 상황에서 부자간에 서로 먼저 죽기를 청하니 도적이 감동하여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盧操順母’, ‘閔損單衣’, ‘薛包灑掃’, ‘元覺警父’, ‘王祥剖冰’, ‘王延躍魚’, ‘潘宗救父’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병형(侍病型)은 자식이 그 부모의 병환을 당하여 변 맛을 보거나 또는 고풍집을 빨아내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정성을 다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병환을 낮게 하기 위하여 어렵게 약을 구하거나 지성으로 간호하여 효험을 보는 이야기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黔婁嘗糞’, ‘叔謙訪藥’ 등이 있다.

헌신형(獻身型)은 부모가 어떠한 고난을 받거나 죽게 되어, 자식이 자신의 육신과 목숨을 바쳐 아버이를 구하는 유형이다. 그 부모가 굶어 죽게 되어 자기 몸을 팔거나, 부모가 병이 깊어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기의 손가락을 베어 약으로 쓰는 사례이다. 또한 아버지가 어떤 사고로 죽게 되거나 죽었을 경우, 자식이 생명을 걸고 구하거나 너무 비통하여 스스로 따라 죽는 사례도 있다. ‘劉氏孝姑’, ‘孝娥抱屍’, ‘吉盼代父’, ‘楊香搯虎’, ‘婁伯捕虎’, ‘石珍斷脂’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제형(喪祭型)은 자식이 부모를 지극히 봉양하거나, 치료를 하다가 부모가 돌아간 다음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상례나 제례를 정성스럽게 행하는 유형이다.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삼년 동안 무덤을 지키는데, 부모 생전과 똑같이 하거나 제사를 지극히 모시는 이야기들이다. ‘殷保感烏’, ‘臯魚道哭’, ‘丁蘭刻木’, ‘王襄廢詩’, ‘許孜埋獸’, ‘不害捧屍’, ‘王崇止雹’, ‘孝肅圖像’, ‘徐積篤行’, ‘自強伏塚’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6> 『三綱行實圖』의 효행 유형

유형 분류	유형의 구조	해당 사례
苦役型	주인공이 부모를 위하여 심한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 정성으로 봉양을 하거나, 어려운 생활과 가난 속에서도 남편 없이 노모를 홀로 봉양하는 유형.	江革巨孝. 子路負米, 陳氏養姑, 黃香扇枕 (4)
忍苦型	계모·부모가 몹시 학대하여도 참거나, 겨울철 눈·얼음 속에서도 죽순·물고기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와 정성으로 아버지를 구하는 유형. 아버지와 자식이 난리를 만나 적에게 붙들리어 부자간에 서로 대신하여 먼저 죽기를 자청하니 도적이 감동하여 살려준 이야기.	盧操順母, 閔損單衣, 薛包灑掃, 元覺警父, 王祥剖冰, 王延躍魚, 潘宗救父 (7)
侍病型	자식이 그 부모의 병환을 당하여 변 맛을 보거나 또는 고름집을 빨아내어 고통을 벗게 하는 유형. 병환을 낫게 하기 위하여 어렵게 약을 구하거나 지성으로 간호하여 효험을 보는 이야기.	黔婁嘗糞, 叔謙訪藥 (2)
獻身型	부모가 어떠한 고난을 받거나 죽게 되어, 자식이 가장 고귀한 자기 육신과 목숨을 헌신·희생하여 아버지를 구하는 유형. 그 부모가 굶어 죽게 되어 자기 몸을 팔거나, 부모가 병이 깊어 그를 치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손가락을 베어 약으로 하는 사례. 아버지가 어떤 사고로 죽게 되거나 죽었을 경우, 자식이 생명을 걸고 구하거나 너무 비통하여 스스로 따라 죽는 사례.	劉氏孝姑, 孝娥抱屍, 吉盼代父, 楊香搯虎, 婁伯捕虎, 石珍斷脂 (6)
喪祭型	자식이 부모를 지극히 봉양하거나, 치료를 하다가 부모가 돌아간 다음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상례 내지 제례를 지극히 예답게 치르는 유형.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삼년 동안 무덤을 지키는데, 부모 생전과 똑같이 하거나 제사를 지극히 모시는 이야기.	殷保感鳥, 臯魚道哭, 丁蘭刻木, 王襄廢詩, 許孜埋獸, 不害捧屍, 王崇止雹, 孝肅圖像, 徐積篤行, 自強伏塚 (10)
感天型	자식이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고, 또한 부모가 병들면 지극히 간호·기도하여 구하거나, 죽음에 달하여 자신의 허벅지 살점을 베어내거나 손가락을 으깨어 피를 받아 부모에게 먹여 천지신명의 감응으로 천명보다 오래 살게 하는 유형. 제사와 시묘살이를 극진히 하여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아, 나라에 알려지고 보훈 받게 되는 사례.	吳二免禍, 董永貸錢, 郭巨埋子, 孟熙得金, 孟宗泣竹, 王薦益壽 (6)

이상의 효행 사례는 특징에 따라 편의상 나눈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지극한 심성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효행이란 것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분석

가.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편찬 배경

세종 때 편찬된 『三綱行實圖』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어 국민 교화 교재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성종은 즉위 초년부터 향교(鄕校)를 통하여 『三綱行實圖』를 보급하고 지방 수령들을 독려하기도 하였다⁸¹⁾. 그리하여 『諺文烈女圖』를 반포한 후인 성종 12년 4월에는 ‘三綱行實烈女圖 講習節目’을 마련하여 가장(家長) 또는 촌로(村老)로 하여금 『三綱行實圖』를 시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에서는 가장(家長)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고, 외방(外方)은 촌로 중 명망 있는 자를 골라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삼강의 윤리를 깨우치게 한 것이다. 이는 『經國大典』에 ‘중외(中外)의 사족(士族)의 가장 또는 교수(教授), 훈도(訓導)로 하여금 부녀, 아동들을 가르치게 한다.’로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성종의 이러한 삼강윤리 보급 노력은 연산군 때 이르러서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가 중종반정 이후 다시 이어진다. 중종 5년에 『三綱行實圖』를 8도에 반사(頒賜)하였고, 중종 6년(1511)에는 『三綱行實圖』 2940질(帙)을 찍어 전국에 반포하였다⁸²⁾. 아울러 이 해 8월에는 국초(國初) 이래의 효자 열녀 중에서 『三綱行實圖』에 실리지 않은 자도 찬집하여 그림을 그리고 시와 찬을 지어 간행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게 하라는 전교(傳敎)를 내렸다. 이리하여 중종 9년(1514) 6월 하순에 남곤(南袞)의 서문을 신고, 10월에 신용개(申用漑)의 전문(箋文)을 실어 『續三綱行實圖』가 간행되었다. 이 책은 세종대 『三綱行

81) 김향수(2003), 조선 전기 삼강행실도와 소학의 편찬, 한국사상과 문화 Vol.19, 한국사상문화학회, p.200 참조.

82) 김향수, 앞의 논문 p.201-202 참조.

實圖』의 체제와 성종대의 언해 방식을 준용하여, 중국 사례는 축소하고 조선 시대인을 대폭 수록하였다. 이 책에 실린 사례는 효자 36명, 충신 5명, 열녀 26명 등 총 67명인데, 중국인은 효자 3명, 충신 3명, 열녀 8명 등 14명에 그치고, 효자 33명, 충신 2명, 열녀 18명 등 절대 다수가 조선시대의 인물로 채워졌다.

『續三綱行實圖』에서 조선인의 모범 사례를 수록한 이유는 백성들에게 훨씬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한 의도였음이 서문에 잘 드러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그를 선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조선시대인의 사례를 대폭 수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정려(旌閭) 등의 포상을 통하여 삼강(三綱)에 관한 모범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續三綱行實圖』에 실린 인물 중 절반 가량은 정려 받은 사실이 실록(實錄)에서 확인되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대부분의 인물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⁸³⁾.

그러나 『三綱行實圖』 보급을 통한 유교 윤리 보급은 그다지 탁월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듯하다. 폐륜의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는 데 조광조 등의 사림파(士林派)의 득세에 따라 소학(小學)을 통한 교화가 주장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종은 여전히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류의 보급을 통한 교화를 고집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이후 명종대에서도 계속된다.

임진왜란은 유교적 교화를 위한 많은 사례를 제공한 사건이었다. 전국이 왜군에게 유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순절자들이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정표(旌表)와 행실 기록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조 28년(1600)에 교서를 내려서 임진왜란 중 사절(死節)한 사람을 뽑아 올리게 하였는데, 효자와 열녀의 행적도 같이 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선조 때에는 행실도가 편찬되지는 못하고, 이 때 축적된 자료는 이후 광해군 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편찬의 바탕이 된다.

83) 김항수, 앞의 논문 pp.201-202 참조.

광해군은 4년(1614) 6월, 임진년 이후의 효자 충신 열녀의 행적을 모아 포상하고 편찬하는 일을 독촉하는 전교(傳敎)를 내린다. 이미 예조에서는 정문(旌門), 상직(賞職), 복호(復戶) 등을 시행하였고, 실행(實行)을 도찬(圖贊), 감정(戡定)하여 반포(頒布)하는 일은 홍문관(弘文館)에서 거행하였다. 하지만 임란 후에 보고된 것 중 정문류(旌門類)만 해도 숫자가 방대하고, 임란 전에 정문(旌門) 된 자도 적지 않아 찬시(讚詩), 도화(圖畫), 서사(書寫) 작업은 실로 엄청난 작업이었다. 이에 홍문관에서는 국(局)을 따로 설치하고 명유(名儒)를 불러 모아 개찬(改撰)하고 교정할 것을 청하여 마침내 광해군 6년 7월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여 행실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편찬 작업은 워낙 방대한 분량인데다 임란 후의 국가 재정도 어려워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광해군 7년(1615) 10월에 역(譯)을 마치고 11월 초에 17권 1책으로 초본을 올리게 되었다. 광해군의 열람을 거치고, 추가로 넣을 사람에 대한 지시에 따라 추가 편찬 과정을 거친 후 12월에 윤근수(尹根壽)의 서문(序文), 기자헌(奇自獻)의 전문(箋文), 유몽인(柳夢寅)의 발문(跋文)을 붙여 완성하였다. 또한 앞서 발간되었던 행실도의 사례들도 함께 실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三綱行實圖』와 『續三綱行實圖』의 내용을 1권으로 추가하여 광해군 9년(1617) 3월 11일 『東國新續三綱行實圖』 총 50질(900권)을 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⁸⁴⁾. 먼저 찬집청에서는 원편(原編)과 속편(續篇)을 구분하지 않고 세종, 중종조에 만든 두 권을 합하여 1질로 만들면서 세종, 중종 때 만들어진 서문과 발문을 모두 제외하여 한꺼번에 지은 것처럼 되어 버렸다. 이는 기자헌과 이이첨의 주장으로 그렇게 되었으며, 이들 자신이나 관련 가족이 사적인 욕심으로 효자나 충신 사례에 편입되기도 했고, 실제 표창될 만한 행실이 없는데도 책 내용에 포함된 사례

84) 김항수(2003), 앞의 논문, p.207 참조.

가 있어, 이 책의 발간 이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어떤 사람은 벽 바르고 장독 덮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워낙 방대한 양을 다루다 보니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없이 책을 편찬하게 되어 생긴 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조반정 이후 별청(別廳)을 설치하여 재심을 거쳐 다시 간행하게 되었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東國三綱行實圖』, 『東國續三綱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로 구성되어 있다. 『東國三綱行實圖』와 『東國續三綱行實圖』에는 『三綱行實圖』와 『續三綱行實圖』에 실린 우리나라의 사례를 추출하여 그대로 실었고,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효자도 8권, 충신도 1권, 열녀도 8권으로, 총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된 인물은 총 1650여 인으로, 임진란 이후의 효자 충신 열녀를 모으고, ‘盛大의 全書’가 되게 한다는 취지에서 『三綱行實圖』, 『續三綱行實圖』의 사례를 앞머리에 넣고, 『東國與地勝覽』에 기재된 인물을 추가하여 수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례의 상당 부분은 임진년 이후의 사절인(死節人)이 차지하고 있다⁸⁵⁾. 그 중 효자도의 시대별 수록 사례 수(數)는 <표 7>과 같다.

<표 7>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시대별 수록 사례 수

편명	시대별 수록 사례			계
	신라	고려	조선	
東國三綱行實圖		1	3	4
東國續三綱行實圖			33	33
東國新續三綱行實圖	4	61	640	705
계	4	62	676	742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그 체제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편찬

85) 김항수(1998), 『三綱行實圖』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No.85, 진단학회, p.243 참조.

시 종전의 『三綱行實圖』의 체제처럼 시(詩)와 찬(贊)을 갖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너무나 방대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외하게 되었다. 각 장의 첫 면에는 그림을 배치하고, 둘째 면에는 등장인물의 행적에 관련된 내용을 한문을 먼저 싣고 언해한 글을 이어 실었는데, 그 내용면에서 이전의 행실도 계통 문헌에 비해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다. 내용 서술 방식을 보면, 먼저 신분과 성명, 출신지역을 제시하고 이어서 평소 성품, 처하게 된 상황, 그에 대한 대처 행실 등을 간략히 기록한 다음 마지막에 포상 내역을 밝히고 있다. 사례는 시대 순에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인물이 살았던 시기가 아니라 대부분 정문(旌門) 등의 포상이 내려진 시기가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전반적인 편찬 의도는 전대의 ‘행실도’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⁶⁾. 우선 명칭에서부터 ‘三綱行實圖’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더러, ‘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대의 행실도와의 계열성을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다. 책의 편찬 체제 측면에서도 『三綱行實圖』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전도후설(前圖後說)’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삽화의 구성도 ‘복합장면방식(복합장면방식; multi-scenic mode)⁸⁷⁾’으로 본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전대의 행실도류와 일치한다.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고려하여, 행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장면방식의 삽화 구성은 『續三綱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로 갈수록 점차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도 문헌 편찬 시대와 가까운 행실들이어서 ‘전설적’인 의미 부여가 어려우며, 단지 모범 ‘사례’ 정도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86) 이광렬(2007), 광해군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편찬의 의의, 한국사론 제53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180 참조.

87) 이광렬, 앞의 논문 p.183 참조. ‘복합장면방식(multi-scenic mode)’이란 한 화면 안에 시간 또는 공간을 달리하는 에피소드들을 함께 그리는 것으로, 한 화면에 단 하나의 에피소드만을 그리는 ‘단일장면방식(mono-scenic mode)’와 구별된다.

한편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이전의 행실도와 비교하여 적나라하다고 할 만큼 표현이 사실적이고 과감하다. 왜적에게 죽은 사람의 경우 신체 훼손 상태가 그대로 표현될 정도이다. 이는 해당 사례의 상황이 행실도의 편찬 시기와 불과 10여 년의 차이밖에 없어 시간적 거리감이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중 발생한 피해와 백성들의 고통을 그대로 담으면서 교화적인 성격을 추구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각권의 첫머리에 있는 목차를 보면 선대의 행실도 계통 문헌에서는 본문에 제시된 제목, 즉 수록인물의 이름과 행적을 4글자로 압축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는데,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서는 본문의 제목 기록 방식은 마찬가지이지만, 목차에는 등장인물의 신분과 이름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각편의 내용보다는 수록 인물에 더 관심을 둔 기록 방식이었다고 추정된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편찬 및 발간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나라 인물’들만을 대상으로 무려 1,500여 명에 달하는 사례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미증유의 대전란을 전국적으로 경험한 결과 생긴 비극적인 사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는 그 이전에 정문(旌門) 등의 포상을 받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규모였다. 이렇게 볼 때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방대한 삼강(三綱) 관련 사례는 세종시대에 이루어진 『三綱行實圖』 이래 꾸준히 유교적 교화 정책을 펼쳐온 결과가 축적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결국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편찬 및 간행은 조선조에 이루어진 유교적 통치 이념이 국민적인 교화로 이어져 그 성과를 총정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볼 때 이 책은 조선시대에 추구한 유교적 이념의 특성과 지향점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며, 조선시대의 효의 특징을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추출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내용 분석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 시대에 편찬된 『三綱行實圖』와 『續三綱行實圖』의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 한 권으로 엮고, 그 제목에 ‘東國’을 첨가하였다. 따라서 순수하게 광해군대에 만들어진 내용은 ‘新續’이라고 표기된 부분이다. 비록 앞에서 살펴본 『三綱行實圖』에 수록된 내용이 4건이 중복되지만, 『東國新續三綱行實圖』가 전체적인 체계를 생각하고 편찬되었음을 참작하여 여기서는 『東國三綱行實圖』와 『東國續三綱行實圖』에 실려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⁸⁸⁾.

『東國續三綱行實圖』 효자도에 실려 있는 효행사례는 모두 33건으로 그 제목은 <표 8>과 같다.

<표 8> 『東國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효행 사례

순	효행제목	순	효행제목	순	효행제목	순	효행제목
1	仁厚廬墓	10	邦啓守喪	19	叔咸侍藥	28	得平居廬
2	姜廉鑿氷	11	玉良白棗	20	閨文圖形	29	鄭門世孝
3	德崇至孝	12	今之撲虎	21	得仁感倭	30	自華盡孝
4	韓述疏食	13	漢老嘗痢	22	友明純孝	31	有文服衰
5	定命分蝨	14	祿連療父	23	慶延得鯉	32	淑孫立祠
6	延守劫虎	15	乙時負父	24	趙錦獲鹿	33	繼周誠孝
7	克一馴虎	16	二朴追虎	25	徐萬得魚		
8	梁郁感虎	17	恩用擔土	26	應貞禱天		
9	信之號天	18	龜孫吮癰	27	從孫斷指		

88) 『東國三綱行實圖』 효자도의 사례는 ‘婁伯捕虎, 自強伏塚, 石珍斷指, 殷保感鳥’ 등 모두 4건이며, 이미 앞에서 분석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서 새롭게 편찬된 효행 사례는 705건인데, 그 제목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⁸⁹⁾.

<표 9>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내용 일람

권 순	卷1	卷2	卷3	卷4	卷5	卷6	卷7	卷8
1	孫順得鐘	金氏自縊	不受廬墓	柳氏斷指	金春立廟	二子孝友	忠弼嘗糞	未叱世同死
2	聖覺割股	玉山嘗糞	節山居廬	吉氏入火	彥器斷指	貴千逐虎	春陽斷指	河平負母
3	向德剖脾	有誠圖形	元絢守喪	李植割股	卞勇負土	金石斷指	應翼蔽父	鄭嶷守柩
4	知恩孝養	朴琦割股	潘濡居廬	漢孫斷指	德粹孝友	銀今斷指	命達孝感	先白同死
5	順興畫像	永澄居廬	珊瑚斷指	梅臣至行	全燁居廬	朴忍同死	仁俊割股	光哲救母
6	光廉木像	白山擊虎	成茂得魚	石明追虎	崔漣斷指	禮男活母	孟寶孝感	義連活父
7	咸富誠孝	安珪入火	仲民冒火	碩汀割腿	權擁廬墓	二子活母	鏡輝搏賊	召史活母
8	車達棄妻	金門世孝	禮孫溺水	淑俞割股	承幹入火	二子被害	元濬斷指	都致活母
9	釋珠刻木	孝孫守墳	允孫扼虎	守精廬墓	世應負土	文衡當刃	汝鯨負母	是加活母
10	光臣廬墓	云孫斷指	芴大負土	權福立祠	文卿居廬	鴻海抱母	林萱廬墓	二子負母
11	尉貂割股	孟根割股	毛知斷指	克通廬墓	光春入火	夢熊活母	命一蔽父	丁福孝感
12	徐稜感天	戒山割股	劉山斷指	鐵重斷指	朴龍斷指	器之赴水	麟瑞斷指	李氏抱母
13	金遷贖母	錫寶廬墓	益涇嘗糞	蒙松抱屍	林芸孝友	二子蔽父	彭年居廬	沈氏誠孝
14	黃守孝友	得信斷指	沔施斷指	繼璉斷指	汝說斷指	洪遠冒刀	思仁救母	四子同死
15	夢句露居	佐明廬墓	殷台斷指	柳熙斷指	克忠孝感	李旻活父	弘仁斷指	柳瑛抱屍
16	漢文斷指	得妃斷指	敬非斷指	舟臣不食	金質負土	梅邑山誠孝	元祐守墓	柳檀同死
17	宗文執喪	林載廬墓	卜台斫指	世匡割股	繼成孝友	良女捕虎	李晦執喪	振幹同死
18	尙仁廬墓	蔡宏居墓	良里加斷指	世俊執喪	之中自盡	繼業負母	敬訓負父	應會同死
19	伯宗守墳	小河斷指	千年活母	成允廬墓	成林廬墓	終伊負姑	介白斷指	壽慶俱死
20	周璟居廬	柳砲廬墓	金忸居廬	應台斷指	仇沉廬墓	鄭淹誠孝	時振斷指	慶男俱死
21	金閑刻木	許匡廬墓	師點廬墓	繼賢斷指	伏龍斷指	權常至行	致中活父	廷良活父
22	蔡順居廬	朴矩廬墓	從非設堂	石堅廬墓	郭墳感虎	孝甲吮腫	麟祥感雉	二子同死

89) 여기서는 사례의 제목만 제시하였음. 구체적 내용 분석은 권말 부록 참조.

23	孝悌感烏	楊培居墓	四月斷指	亨溫吮淋	應參居廬	應井爭死	純善斷指	鄭氏斷舌
24	宗亮廬墓	朴堧廬墓	恩時斫指	善檀廬墓	始昌守廬	順川孝友	敬遠救父	崔潑抱父
25	成吉負母	桂遂歸養	得春居廬	允斤斷指	李崇斷指	應世至行	智賢忠孝	德鳳共死
26	德連斷指	朴善負石	金杵割股	朴氤居廬	餘慶誠孝	爾瞻至行	懷瑾誠孝	一麟誠孝
27	崔溢誠孝	康寧廬墓	尹奕孝親	庭堅執喪	思敬嘗糞	元祿畫像	荊粹斷指	流齡斷指
28	繼閭廬墓	朴胄居墓	仲堅廬墓	佛山廬墓	希楨追服	天宙斷指	時伯同死	彥瑚誠孝
29	公美守墳	李申負土	陳侃吮淋	時佐孝感	禹漢斷指	孝成誠孝	金涵同死	盡臣斷指
30	承雨感倭	朴尋廬墓	徐文居廬	壽堅斷指	漢奔居廬	弘績請死	金培執喪	允海居廬
31	朴暢感倭	始明居廬	卯同斷指	敬孫居廬	介未致斷指	仁厚同死	弘俊斷指	連守斷指
32	世延誠孝	林氏活姑	李同斷指	金敏誠孝	召史割腿	景禧活父	元忠孝友	彭壽忠孝
33	全謹居廬	林鷲居廬	末山廬墓	金粹寫影	玄今殺虎	光祚斷指	得礪活母	崔浩斷指
34	繼道廬墓	盧珣禱天	內隱伊救父	孟堅追服	順影割股	德輔斷指	宗挺救父	元男斷指
35	鄭槩居廬	李瑤廬墓	益漸感寇	金建誠孝	康哲斷指	景福斷指	朴潤嘗糞	應男割股
36	玄夫吮腫	忠老廬墓	承得守墓	處溫斷指	建今斷指	禹臣嘗糞	四子活父	忠國斷指
37	安仁廬墓	梁根斷指	彥華守喪	石連割脚	檢進殺虎	從厚舉義	蓋世斷指	彥鏡入火
38	鄭包居廬	永孫廬墓	元貞居廬	金碩斷指	洪曇廬墓	光弼誠孝	金塾斷指	元伯斷指
39	永伸居廬	趙漢負土	九徐當刃	苻心達斷指	盧禎廬墓	壽岷居廬	忠言斷指	仁元割股
40	申祐居廬	趙瑜負土	徐鷲居廬	守元斷指	張維守喪	龍城乞母	希忠斷指	二子斷指
41	金碩廬墓	吳俊吮腫	金先感天	精一斷指	大虎斷指	宅仁孝感	紹文斷指	尹洛割指
42	國鏡廬墓	時興廬墓	李氏感賊	貴進斷指	金氏斷指	朴峻斷指	崔泳斷指	貴男斷指
43	子粹廬墓	安澤負石	田氏躍魚	李郊誠孝	崔氏割股	二子孝友	文英禱天	聲振斷指
44	元進斷指	洪簡割脛	金稱廬墓	李權廬墓	高氏活母	哲命衛親	勇男活父	大洞執喪
45	梁好廬墓	克恭逐虎	朴薰居廬	性同斷指	韓楊活父	象乾復讎	金氏祈天	論介割股
46	徐恭割指	弼成孝感	禹滌守墓	千枝割股	漢春同死	彥邦感賊	李氏斷指	銀厚同死
47	充介斷指	千年斷指	承曾廬墓	世湖割股	自業斷指	世勳嘗糞	李氏斷指	鶴守誠孝
48	天龍廬墓	文郎斷指	朴忠廬墓	遂良廬墓	麟壽斷指	師賓入火	光男感倭	春福斷指
49	載道活父	成幹吮疽	舜芳斷指	應祿斷指	金範誠孝	遵忠蔽父	金氏執喪	長福斷指
50	愈悉活父	世貞吮癰	守宗誠孝	碩潤斷指	恩孫滅火	賢臣斷指	文氏救父	天守斷指
51	重海誠孝	季蕃誠孝	良仝負屍	居敬斷指	金壘孝感	若虛復讎	俞氏誠孝	士堅割股

52	少游居廬	由孝嘗糞	文彬斷指	多勿斷指	金謙孝感	有富斷指	尹氏結項	允慶忠孝
53	成萬守墳	春萬斷指	漢伯居廬	今同廬墓	復生守墓	佑民斷指	趙氏活父	葵花割臂
54	呂生廬墓	尚淵廬墓	應璧居廬	延同斷指	鄭渾斷指	景福負母	鄭氏溺水	召史入虎
55	孫有負母	自河嘗糞	天龍赴火	卯乙同割股	承井斷指	時中廬墓	朴氏斷指	召史斷指
56	希參活母	朴德斷指	智寶抱屍	山同斷指	世祺斷指	卓崱活父	朴氏救父	召史活姑
57	辛氏拒賊	明智廬墓	季欽得鯉	閔宗斷指	忠胤嘗糞	彥吉斷指	朴氏斷指	遇春死塋
58	俊恭執喪	有麟斫指	世傑割股	壽命斷指	忠佐斷指	宋杞斷指	高氏誠孝	季福孝友
59	君萬射虎	守明斷指	石鳳孝養	李榮負土	逗生追服	宋諶買頭	堅世斷指	千同斷指
60	居義廬墓	白絢執喪	良翰居廬	好孫廬墓	高煜斷指	天民引賊	金順斷指	忠奉斷指
61	潘腆脫父	白亨廬墓	漢弼居廬	世楨誠孝	允謙斷指	慶昌蔽父	金譚嘗糞	成龍斷指
62	鄭氏執轡	義光斷指	湯輔守喪	漢亨嘗糞	忠男斷指	誠一斷指	二子赴火	性龍斷指
63	文忠作歌	日光斷指	貴千斷指	弅ㄱ斷指	崔衡斷指	二孝乞賊	金腆斷指	玉振誠孝
64	龜生刻石	碩成擔土	今時養舅	方萌廬墓	元弼守墓	興世搏賊	千鎰斷指	四龍割脚
65	安命孝養	貴達居廬	孟連斷指	朴寧孝養	弘毅誠孝	誠立斷指	應福斷指	希守孝友
66	希道負上	夫三斫指	世恪斷指	閔今撲虎	應勳居墓	國樑斷指	閔洛斷指	石松斫虎
67	爾音廬墓	景利斷指	命仲斷指	有今斷指	郭義斷指	召遠蔽父	彥琛抱死	應連斷指
68	朴晉廬墓	仁孫斷指	莫同斷指	末今斷指	熙光斷指	張健斷指	彥忠斷指	汝述守喪
69	文信守墳	官明逐虎	直衡守喪	兄弟搏虎	順傑斷指	尹汲同溺	興國斷指	論石誠孝
70	永叔廬墓	閔孫迫虎	克禮割股	舜年吮淋	德隣斷指	二子活父	得新斷指	世民代父
71	思誠孝感	由性廬墓	宋氏斷指	千同斷指	夢慶盡誠	趙誠禱天	有香負母	李注畫像
72	嗣宗孝養	敬全斷指	仁智至孝	貴孫割股	公謙斷指	完基同死	起元斷指	夢吉斷指
73	士興割股	李植誠孝	斯立斷指	朴連寫影	漢京居廬	弘俊斷指	貴千斷指	聆金斷指
74	永復執喪	信還居廬	士忱斷指	明伊斷指	台輔感神	舜翼蔽母	黃漢入火	同伊誠孝
75	希玉廬墓	文尙廬墓	世貞孝友	檢同斷指	汝諧孝友	得容蔽父	德緝感盜	禿終斷指
76	近仁廬墓	宋滔居廬	宋文嘗糞	鄭同奉養	吳綱居廬	景顏吮腫	應俊斷指	牧丹割股
77	權啞居墓	永麟廬墓	彥謙馴虎	莫同投火	亨貞孝養	連祖斷指	繼元斷指	春今燒指
78	安堵廬墓	三子廬墓	礪成吮淋	於玎誠孝	昌孫忠孝	申ㄷ執喪	斗星斷指	粉德同死
79	得溫廬墓	調元斫指	金質守墓	小非省母	鄭傑斷指	孟慶斷指	應元斷指	二子誠孝
80	黃載居墓	崇老執喪	元良孝友	淑美割股	石環斷指	弘彥蔽母	敬守斷指	季男取首

81	林表廬墓	李閏廬墓	伯和廬墓	時種斷指	彥沉斷指	士豫禱天	得仁斷指	
82	李敢居墓	李甫割指	世麟居廬	武毅豐祭	於貞執喪	敬仁赴水	光益守喪	
83	牟恂吮腫	申休嘗糞	姜瑞誠孝	麒楨斷指	應清廬墓	尙溶居廬	曹涵爭死	
84	趙珩廬墓	約之感火	朴蕃得鴨	林薰執喪	文根斷指	忠震斷指	德一活父	
85	朴幹負土	壽鐵斷指	世直廬墓	安麟孝感	莫失追虎	士尙執喪	應瑞斷指	
86	孝良斷指	貴千斷指	齡老執喪	希奎孝友	克元斷指	敬天活母	堯立斷指	
87	致安居廬	自廉吮疽	效慎孝養	李氏沾屍	朴元斷指	金鞆救母	益昌斷指	
88	日宣廬墓	貴珍斷指	尙仁割股	崔氏入火	自珍斷指	南宮同死	德龍誠孝	
89	孝終居墓	田禧廬墓	舜弼守墓	億秋獲鴨	子張斷指		元吉斷指	
90	朴辰剖水			二子感虎	莫德斷指			

임명옥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효 관련 사례를 그 내용상의 특징에 따라 양친(養親), 호친(護親), 의친(醫親), 상친(喪親), 기타(其他)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각 효행 유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⁹⁰⁾.

양친(養親)은 일상생활 중에 의식주 각 방면에 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 드리는 제반효행을 일컫는다. 이 유형은 다시 봉양(奉養)과 양지(養志)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봉양은 부모의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고, 양지는 대부분이 부모의 정신적인 욕구를 채워 드리는 효행을 말한다.

호친(護親)은 자연재해나 인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고 구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의친(醫親)은 병중인 부모를 간병하는 행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치료 행위를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상친(喪親)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기타(其他)는 위의 4가지 사례에 포함시킬 수 없는 행실을 뜻한다. 부모를 위한 복수와 관련된 행위, 부모에 대한 정이나 효를 시로 읊은 경우 등이 이

90) 임명옥(1997),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나타난 효사례 고찰, 한남어문학 제22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p.219 참조.

에 해당한다.

각 유형별로 분류한 사례를 임명옥을 <표 10>과 같이 제시하였다⁹¹⁾.

<표 10>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유형별 분류

養親	護親	醫親	喪親	其他
5.54%(41)	19.72(146)	39.59%(293)	43.24%(320)	0.67%(4)

본 연구에서는 임명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전체 내용을 보다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효행 사례를 부모 생전의 경우와 부모 사후의 경우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인 효행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백성들 사이에서 추앙되는 효행의 성격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진 포상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는데, 이는 정책적, 사회적으로 효를 선양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의도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도의 내용 분석

구분	孝行事例											褒賞內譯					
	生前								死後			旌門	官職	財物	復戶	其他	
	奉養	看病						獻身	其他	侍墓	祭禮						其他
		吮腫	嘗糞	斷指	割股	異蹟	其他										
사례수	129	19	59	211	39	15	24	137	17	257	149	66	655	38	8	22	4
비율(%)	17.4	2.6	8.0	28.4	5.3	2.0	3.2	18.5	2.3	34.6	20.1	8.9	88.3	5.1	1.1	3.0	0.5

91) 임명옥, 앞의 논문 p.219. 광해군조에 발간된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는 분명 742건의 효행 사례가 실려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740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 판본이 奎章閣 소장본의 영인본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는 인조반정 이후의 판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통계의 총계는 804 사례에 달하고 있어 일부 중복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효행 사례는 다분히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분류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 사례에서 중복되는 여러 행동은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각각의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 742건에 대비하여 그 비중이 드러난다.

양친(養親) 유형으로는 봉양(奉養)과 양지(養志)가 있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봉양의 유형은 다시 세분되는데, 먼저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예 벼슬길에 나서지 않는 경우이다. ‘嗣宗孝養(新續⁹² 1-72)’의 延嗣宗은 노모가 병중이므로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가 항시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찬(饌)을 살피면서 간병을 계속한다. 둘째로는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아 아내를 내치는 사례가 있다. 역노(驛奴)인 車達(新續1-8)은 두 아우와 함께 노모를 모시는데, 아내가 불효하므로 이를 내쳤으며, 두 아우는 부모상을 치를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한다. 셋째로는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자식을 묻는 사례가 있다. 孫順(新續1-1)은 부모의 반찬을 먹는 아이를 땅에 묻으려 하다가 땅 속에서 돌종을 얻어 복을 받게 된다. 넷째 자신의 몸을 팔아 봉양하는 경우가 있다. 신라 때의 知恩(新續 1-4)은 어려서 부친을 잃고 남의 집일을 하고 걸식하며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결국 부잣집에 몸을 팔게 된다. 다섯째, 부모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봉양하는 사례가 있다. 希守(新續8-65)의 모친이 술을 좋아하는데 형제 여섯이 각각 5일씩 술과 찬을 준비하여 드리고, 명절이 되면 그 아우와 조카들을 집에 모아놓고 술자리를 만들어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린다.

양친(養親)의 두 번째는 양지(養志)이다. 『論語』 위정편(爲政篇)에는 “개와 말도 봉양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정신적인 측면의 양친을 중시한 내용이 있다.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첫째, 혼자되신 부친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 애쓰는

92) 이 논문에서 분석한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자편에는 이전 시대에 발간된 『三綱行實圖』와 『續三綱行實圖』의 내용이 합본되어 있다. 효행 사례 분석에 제시한 ‘三’은 『三綱行實圖』 부분, ‘續’은 『續三綱行實圖』 부분에 실려 있음을 표시한 것이고, 다음의 아라비아숫자는 ‘卷-順’을 나타낸다. 권말의 부록 참조.

효행이 있다. 崔斯立(新續3-73)은 부친이 홀로 되자 매일 술과 고기를 차려 놓고, 많은 친척들을 모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린다. 둘째, 계모나 서모를 생모처럼 모시는 효행이 있다. 鄭同(新續4-76)이 어려서 모친을 잃었는데 아버지는 후처를 맞이하였다. 정동이 힘껏 봉양하였으며, 부친 사후에도 더욱 극진히 모셨다.

다음으로 호친(護親) 유형이 있다. 이 유형도 다시 여러 가지로 세분된다. 첫째,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崔婁伯(三-1), 今之(續-12)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자연재해로부터 부모를 보호하는 사례로 수재나 화재로부터 부모를 구하는 경우이다. 許仲民(新續3-7)은 밤에 딸을 안고 자다가 집에 불이 나자 불 속으로 뛰어들어 어머니는 구했으나 딸은 불 속에서 죽고 만다. 셋째, 인재로 인한 위험에서 부모를 구하는 행위인데, 부모가 죄를 지어서 혹은 전쟁 중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하는 사례가 이에 속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뒤에 바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왜구에 의해 해를 입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의친(醫親) 유형은 병든 부모를 치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효행 유형이다. 여기에는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극한 간병 방법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 할고(割股)와 단지(斷指)가 이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명의인 진장기(陳藏器)가 『本草拾遺』라는 책에서 ‘사람의 고기로 이질(羸疾:병들어 파리해짐)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기록을 남긴 이후로 널리 행하여져 이후 원나라 때에는 법으로 규제할 정도였다고 한다⁹³⁾.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단지가 많이 나타난다. 兪石珍(三-3)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단지를 하며, 崔小河(新續2-19)는 부친이 현몽하여 단지를 시행한다.

단지나 할고는 『論語』에서 언급한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93) 임명옥, 앞의 논문 p.229

라는 효도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자식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그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부모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 있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제공할 수도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비록 효도의 기본에는 자신의 몸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모가 나쁜 질병에 걸려 파리하게 여위어 가고, 훌륭한 의원을 대거나 좋은 음식으로 공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기꺼이 단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할고나 단지를 했을 경우 부모님에게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金孟根(新續2-11)은 할고를 한 후 술과 함께 아버지에게 드린다. 후에 그의 아들은 어머니가 병에 들었을 때 할고한 고기를 면(麵)과 섞어 환(丸)으로 만들어 드린다. 崔漣(新續5-6)은 단지하여 피를 약과 함께 섞어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다. 順影(新續5-34)은 할고한 후 피를 입에 넣어 드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 약과 같이 드린다. 단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명지를 선택하는데, 이는 무명지를 약지(藥指)라고 부르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단지나 할고의 사례에 대해서는 조선조 조정에서도 논의가 된 기록이 있다. 몸을 훼손하여 효를 행한다는 것이 부당함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러한 풍조가 나라 안에 만연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다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단지나 할고를 행한 효자들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정표(旌表) 등의 표창을 받는다. 비록 경서에는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동기와 정성을 보아 국가적 표창이 이루어진 것이다⁹⁴⁾.

94) 世宗實錄 卷58 世宗 十四年 十一月 二十八日 癸未. 「...예조 판서 신상(申尙)이 아뢰기를, “전조(前朝)의 사민은 부모의 상(喪)에 있어, 날로써 달로 바꾸어 3년을 행하지 않는

의친(醫親)의 유형 중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간구하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구하는 약물 등을 얻어 부모의 병을 고치는 사례가 있다. 부모가 병환 중에 갑자기 먹고 싶은 것이 생기든지, 혹은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식의 지극한 효성의 결과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겨울철의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가장 많은 예는 물고기이며, 기타 개구리, 박쥐, 담비가죽, 고슴도치 등 다양한 것들이 등장한다. 姜廉(續-2)의 경우에는 부친이 심한 중기가 나서 고생하는 중 의사가 거머리를 잡아 피를 빨게 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자, 한겨울임에도 얼음을 깨고 울면서 거머리를 구하니 홀연 몇 마리가 나와 이로써 아버지의 병이 낫는다. 徐稜(新續1-12)은 어머니의 목에 정예(疔瘻)가 생겨 의원을 청하였는데, 개구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고 하자 크게 통곡하니 의사가 개구리 없이 약을 지어보겠다고 하여 나무 밑에서 약을 달이는데 홀연 나무 위에서 개구리가 떨어졌다고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지금도 널리 쓰이는 바, 효성이 지극하면 기적과 같은 하늘의 도움이 있다는 소박한 생각이 느껴지는 사례들이다.

이 외에 의친의 사례로 많이 보이는 것이 상분(嘗糞)과 연종(吮腫)이다. 상분은 일종의 병세 진단 방법으로 변이 달면 나쁘고, 쓰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효행자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田漢老(續-13), 牟恂(新續1-83)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타 부모가 병중에 느끼는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행

자가 많았사오매, 만일 무덤에 여막(廬幕)을 짓고 3년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세상에서 모두 아름답다 일컬어 정표(旌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두 삼년의 상[三年之喪]을 행하옵고, 여묘(廬墓)하는 자도 많이 있사오며, 혹은 손가락을 끊어서 병친(病親)에게 약으로 드리기도 하며,……손가락을 끊은 일 따위는 비록 중용의 도에 지나친다 할지라도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오니, 상등(上等)에 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손가락을 자르는 유(類)에 이르러서는 비록 정도(正道)에 합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아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한 자인즉 취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실을 보이는 사례도 있다. 安定命(續-5)은 어머니가 병으로 오랫동안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 이가 들끓자 자신의 머리를 풀어 어머니의 머리에 있는 이가 옮겨 오게 하며, 金敬孫(新續4-31)은 팔 년 동안 어머니의 병 수발을 하면서 약을 달여 반드시 먼저 그 맛을 보았다.

이와 같은 의친의 사례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보이고, 어리석게 생각 되기까지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을 섬기는 자세가 충실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기풍은 정신적인 자세를 다듬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사회적 흐름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 윤리 보급의 성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행실도’ 계통의 문헌에서 두드러진 효행 사례에 상친(喪親) 유형이 있다. 사후 봉양이라 할 수 있는 상친은 영혼불멸사상이나 계세사상(繼世思想)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申元祿(新續6-27)은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의 상(像)을 관 속 에 넣어서 저승에서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는데, 이는 죽 어서도 영혼이 있어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 만 사후 봉양이 중시된 것은 유교 사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論語』와 『孟子』 등 유교의 기본 경전에 이러한 사상은 잘 드러나 있다. ‘살아서는 예로써 섬기고, 죽음에는 예로 장례를 지내며, 제사를 예로써 지내 라⁹⁵⁾.’, ‘살아서 봉양하는 것만으로는 큰일을 했다 할 수 없고, 오직 죽음에 처 해서 잘 하는 것이라야 큰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⁹⁶⁾’와 같은 구절은

95) 『論語』 爲政篇,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96) 『孟子』 離婁下 ‘養生者 不是以當大事 惟送死可以當大事’

사후 부모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했을 것이다.

상친(喪親) 유형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시묘(侍墓)이다. 부모 사후 무덤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3년 혹은 6년까지도 시묘를 한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어 시묘를 못한 경우에는 장성한 후 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추복(追服)이라고 한다⁹⁷⁾. 이러한 시묘는 『論語』의 양화편(陽貨篇)에서 공자가 ‘자식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품에서 3년을 지내야 하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적어도 3년은 시묘를 해야 한다⁹⁸⁾.’는 이야기를 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태어난 후 부모로부터 받은 3년 동안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부모 사후에 3년은 시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시묘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적(異蹟)이 나타나기도 한다. 孟希道(新續1-66)의 경우에는 계단의 풀이 나지 않고 흰 새가 묘 곁에 둥우리를 친다. 孟思誠(新續1-71)의 경우에도 계단에 풀이 나지 않는데, 묘 앞에 심어 놓은 측백나무가 돼지에 부딪혀서 말라죽자 맹사성이 통곡하니 다음날 그 돼지가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崔克忠(新續5-15)의 경우에는 시묘하는 동안 이웃집에서 불이나 번지려 하자 하늘에 호소하니 갑자기 바람이 역으로 불어 불이 꺼진다. 郭埴(新續5-22)은 물 길는 곳이 멀어 불편했는데 갑자기 초막 옆에 샘이 솟는다. 羅德緝(新續7-15)의 경우에는 도둑이 들었다가 효성에 감탄하여 오히려 쌀과 간장을 주고 가기도 한다.

시묘는 부모 사후 3년 동안 모든 사회적 활동을 접고 무덤 옆에서 거친 음식으로 건강을 해치며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단지, 할고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섬기는 행위가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97) 追服의 사례로는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卷二의 ‘時興廬墓’의 사례를 들 수 있다. 宋時興은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윈 것을 안타깝게 여겨 장성 후 3년을 아버지 무덤 옆에 廬幕을 짓고 시묘를 한다.

98) 『論語』 陽貨篇,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免于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常也 子也 有三年之愛于其父母乎”

있고, 사회적 손실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하겠으나, 역시 용납이 되어 효자로서 포상이 되는 중요한 봉양 행실이었다. 실질적인 것보다는 지극한 심성의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생각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네 가지 유형의 사례 이외에 특이하게 분류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高從厚(新續6-37)는 아버지가 왜적에게 죽임을 당하자 이의 복수를 꾀하다가 죽는다. 辛氏(新續1-57)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이다. 넓은 의미에서 부모를 위한 헌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고, 정려 포상도 되지 않았다. 중국의 효행 사례에서 부모의 복수에 적극적인 것과는 비교된다⁹⁹⁾. 이러한 경향은 고려 시대의 경우와도 대비되는데, 부모에 대한 복수가 비록 유교의 경전에 실린 것이기는 하지만¹⁰⁰⁾, 복수를 효행의 미덕으로 삼아 장려하는 것은 사회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진·정유의 대란 후의 민심수습에도 부정적이었기에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행실도’ 계통의 문헌은 모범 사례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도덕교육의 동양적 전통으로 볼 때, 도덕적 규범의 의미나 정당성은 언설(言說)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사태에서의 행동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¹⁰¹⁾, 『東國新續三綱行實圖』나 여타의 ‘행실도’ 계통의 문헌은 이러한 전통에 부합되는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효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나 세세한 풀이는 제시되지 않은 채, 효도의 행실로 모범이 될만한 인물들을 뽑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그림을 덧붙여 흥미를 유발하고, 한글로 언해하여 일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화(教化)를 위한 문헌으로서 기능할 수

99) 임명옥, 앞의 논문, p.242 참조.

100) 『禮記』 曲禮上, “父之讐 不與共天”

101) 이흥우(2005), 도덕교육의 동양적 전통, 도덕교육연구 제17권 1호, 한국도덕교육학회. pp.8-15. 이 교수는 도덕교육의 동양적 전통을 1) 규범의 의미와 정당성은 언설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사태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며, 2) 도덕 교육은 오로지 도덕적 행동의 원천인 ‘심성’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는 두 가지로 압축하여 논하고 있다.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모범’ 사례들의 나열만으로도 교화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이미 전 시대로부터 읽혀 온 『小學』이나 『孝經』, 『父母恩重經』 등의 문헌과 조선 시대 들어 유교적 덕목 실천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동몽서(童蒙書)’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효를 당연한 천리(天理)로 받아들여지게 된 분위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부자간의 인륜은 곧 하늘이 내린 것이며, 부모의 은혜에 당연히 보답해야 하고, 효가 곧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풍토 속에서는 그 행실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교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3. 行實圖에 수록된 효의 교육적 의미

조선시대는 효에 관한 책의 편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유교 윤리의 실현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조선시대는 효가 한국 윤리사에서 가장 심도 있게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행실도’ 계통 문헌의 편찬은 특히 유교 윤리에 바탕을 둔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일반 백성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문을 모르는 일반 서민들을 위해 그림을 시청각 자료로 삼입한 초기의 『三綱行實圖』 이후 언해본(諺解本)이 다수 출간된 것은 보다 쉽게 효의 모범적 사례를 접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 ‘행실도’ 계통의 문헌에 나타난 조선조 효의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고 추진된 교육정책의 결과로 모든 백성의

기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三綱行實圖』의 편찬 계기가 된 것은 강상(綱常)의 범죄였다. 인륜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사회적 기틀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삼강오륜의 적극적인 보급이라고 생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게 된 것이다. 정표(旌表) 정책을 펴서 포상하였고, 부역(賦役)을 면제하거나 벼슬을 내리기도 하고, 천민(賤民)의 경우 신분 변화까지도 가능하였다. 그 결과 세종 이후 근 2백 년이 지난 광해군대에 편찬된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는 우리나라의 사례만으로도 1,650 건이라는 방대한 분량이 서책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유교 중심 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둘째, 효는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낳아 주신 은혜, 길러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었다. 시묘(侍墓)살이를 할 때 3년이 기준이 된 것은 처음 태어나 세 살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이 자식의 곁에서 항시 돌보아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였다. 내 생명과 육체를 길러 준 은혜는 자식이 평생을 다해도 다 갚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은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셋째, 효의 실행은 자식의 온 생활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졌다. 아무리 부모가 자신에게 모질게 대할지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한하는 것만도 아니었다. 설혹 계모나 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사후에도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 인식되었다. 또한 부모가 병이 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몸이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자세로 섬기는 것이었다.

넷째, 생전의 효로서 봉양은 음식 등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측면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 외에, 부모의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를 소중히 여겼다. 부모의 뜻을 항시 염두에 두고 생활하며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효도로 생각되었

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 사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섯째, 부모 사후에도 변함없는 공경과 정성으로 만드는 것이 참된 효였다. 행실도의 사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상례(喪禮)와 시묘(侍墓)가 있다. 비록 돌아가신 부모일지라도 살았을 때와 다름없는 공경과 추모의 정을 유지하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이상의 효 사상이 정착된 것은 결국 세종 때부터 교화를 위해 발간한 ‘행실도’ 계통의 서적이 도덕적 기준으로 온 백성들에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였다. 충효를 근본도덕으로 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에 힘쓰게 되었고, ‘행실도’ 계통의 교화 서적을 꾸준히 편찬·발간하여 충효를 교육하고 장려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 의식 깊숙이 효 의식이 심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행실도’ 계통의 효 관련 서적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생활 원리를 모든 백성들이 생활화하는 전범(典範)으로 작용함으로써, 효의 생활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어떤 교육 이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인지적 수용과 더불어 행동적 실천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행실도’ 계통의 문헌 발간과 보급이 조선조의 효 의식 고양과 실천의 기본으로써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교화 의지가 교육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현대 교육에서 가정 및 사회, 학교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IV. 조선시대 효의 활용 방안

1. 현행 도덕 교과서의 효 관련 내용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종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체제와는 달리 1학년에서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11, 1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학교 급별의 개념이 아니라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학생이 10년 동안 공통적인 기본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교양 수준과 기초 학력을 강화하고, 고도화·다변화되는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학교 급간이나 학년 급간 교육 내용의 중복, 비약을 방지하여 연계성을 지닌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학생의 능력,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과정 체제이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 폭을 최대한 넓혀주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이 없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효 교육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덕 교과는 3학년에서부터 10학년까지, 즉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편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통

합교과로 바른생활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로 세분되어 있다.

도덕 교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관련된 도덕 문제를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바람직하게 영위하도록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¹⁰²⁾. 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도덕규범과 예절을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 주고,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 주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이루기 위해 제시한 도덕과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³⁾.

가. 교과목표

자신과 타인·사회, 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한다.

- (1) 도덕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2) 자신과 가정·학교·사회생활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3) 자신과 국가·민족공동체, 그리고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

102) 교육인적자원부(2007),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6, p.2.

103) 교육인적자원부(2007), 앞의 책, pp.3-4.

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4) 자신과 자연 및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나. 학교 급별 목표

- (1)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기본 생활 예절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2) 중학교 단계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3)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윤리학의 기초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도덕적 삶과 공동체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지닌다.

위와 같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과 내용 체계는 정직, 자주, 성실, 절제, 책임, 용기, 효도, 예절, 협동, 민주적 대화, 준법, 정의, 배려, 애국·애족, 평화·통일, 생명 존중, 자연애, 사랑 등을 주요 가치 덕목으로 내세운 다음,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나라·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등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학년별로 <표 1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⁰⁴⁾.

<표 12>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도덕과(3학년~10학년)의 내용 체계

영역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도 덕 적	○ 도덕 공부는	○ 정직한 삶	○ 최선을 다하	○ 자긍심과 자

104)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4-5

주체로서의 나	이렇게 해요. ○ 소중한 나의 삶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삶	는 생활 ○ 감정의 올바른 관리 ○ 반성하는 삶	기 계발 ○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 ○ 용기 있는 행동
우리·타인과의 관계	○ 가족 사랑과 예절 ○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 친구 간의 우정과 예절	○ 약속을 지키는 삶 ○ 공중도덕 ○ 인터넷 예절	○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 ○ 서로 돕는 생활 ○ 대화와 갈등 해결 ○ 게임 중독의 예방	○ 준법과 규칙 준수 ○ 공정한 행동 ○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 ○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 우리나라·민족에 대한 긍지 ○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	○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 재외 동포에 대한 관심	○ 편견 극복과 관용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 평화로운 세상
자연·초월적 세계와의 관계	○ 생명의 소중함	○ 올바른 자연관과 환경 보호	○ 참된 아름다움	○ 사랑과 자애

영역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인간과 도덕> ○ 도덕의 의미 ○ 도덕적 탐구 ○ 도덕적 실천	<일과 배움> ○ 일과 놀이 ○ 공부와 진로 ○ 계획과 성취	<삶의 목적> ○ 자아 정체성 ○ 행복한 삶	<인간과 자유> ○ 자유와 자율 ○ 도덕적 판단의 과정
우리·타인과의 관계	<예절과 도덕> ○ 가정생활과 도덕 ○ 친구와 우정의 의미 ○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 사이버 예절	<청소년과 도덕> ○ 청소년기와 비인간화 문제 ○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 이성 교제와 성도덕	<인간 존엄성과 인권> ○ 인간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 양성 평등의 도덕적 의미	<사회 정의와 윤리> ○ 사회 제도와 정의 ○ 사회 윤리의 제 문제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나의 삶과 국가> ○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 국가 발전과 나라	<통일과 민족공동체 윤리>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 주민과 민족애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세계 평화와 인류애> ○ 타 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국가와 민족의 윤리> ○ 국가와 윤리 ○ 민족과 윤리
자연·초월적 세계와의 관계	<환경과 도덕> ○ 환경과 인간의 삶 ○ 환경 친화적 삶의 방식	<문화와 도덕> ○ 진정한 아름다움 ○ 예술과 도덕 ○ 과학과 도덕	<삶과 종교> ○ 삶의 유한성 ○ 종교와 도덕	<이상적인 삶> ○ 평화로운 삶의 추구 ○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한편 통합 교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 2학년(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도덕 교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른 생활’과는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알고 익히도록 하는 체험과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학생의 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학습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바른 생활’과의 내용 체계는 <표 13>과 같다¹⁰⁵⁾.

<표 13>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바른 생활’과(1, 2학년)의 내용 체계

학년	대주제	활동 주제
1 학 년	내 일 스스로 하기	○ 몸 깨끗이 하기 ○ 자세 바르게 하기 ○ 스스로 준비하기
	예절 지키기	○ 바르게 인사하기 ○ 바르게 식사하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기 ○ 여럿이 함께 쓰는 물건 소중히 다루기 ○ 환경을 보호하기
	질서 지키기	○ 차례 지키기 ○ 규칙 지키기
	나라 사랑하기	○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
2 학 년	내 일 스스로 하기	○ 몸차림 단정히 하기 ○ 물건을 아끼고 정리, 정돈하기 ○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예절 지키기	○ 바르고 고운 말 쓰기 ○ 가족끼리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약속 지키기 ○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 ○ 생명을 보호하기
	질서 지키기	○ 교통 질서와 규칙 지키기 ○ 공공장소에서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하기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소중히 하기 ○ 통일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

105)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2, pp.30-36.

이상의 내용 체계를 분석하여 보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학년 동안 직접적으로 효에 관련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대주제가 너무 적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 2학년 ‘바른 생활’의 ‘예절 지키기’, 3학년 도덕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 중 ‘가족 사랑과 예절’, 7학년(중학교 1학년)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 중 ‘가정생활과 도덕’ 등, 전체 42개 대주제 중에서 불과 세 주제(7.1%)만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상 규정된 내용 체계가 구체화된 교과서의 대단원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도덕 교과서의 학년, 학기별 대단원 편성 일람

학년	대단원명	효 관련 단원	기타 효 관련 내용 수록 부분
1-1	1. 즐거운 학교생활 2. 스스로 잘해요 3. 가족은 소중해요 4. 바른 자세 5. 사이 좋은 친구 6. 와! 여름이다	3. 가족은 소중해요	
1-2	1. 나의 몸 2. 차례를 지켜요 3. 함께하는 한가위 4. 함께 쓰는 물건 5. 환경이 웃어요 6. 사랑해요, 우리나라 7. 겨울방학을 알차게	3. 함께하는 한가위	
2-1	1. 스스로 할 수 있어요 2. 계획대로 실천하는 생활 3. 단정한 모습 4. 사이좋은 이웃 5. 함께 사는 우리 6. 함께 지켜요 7. 컴퓨터를 바르게 사용해요 8. 아껴 쓰고 제자리에	직접 관련되는 단원 없음	
2-2	1. 소중한 약속 2. 바른말 고운 말 3. 아름다운 우리나라 4. 통일을 향해서 5. 화목한 가정 6. 지키면 안전해요 7. 생명의 소중함	5. 화목한 가정	
3-1	1. 깨끗한 생활	4. 화목한 우리 집	

	2. 내 일은 내가 하기 3. 아껴 쓰는 보람 4. 화목한 우리 집 5. 예절바른 우리		
3-2	1. 약속과 규칙 2. 안전한 길 3. 자연은 내 친구 4. 나라 사랑의 길 5. 우리의 소원	직접 관련되는 단 원 없음	
4-1	1. 바른 몸가짐 2. 내 힘으로 3. 소중한 시간 4. 내가 먼저 5. 우리는 정다운 친구	직접 관련되는 단 원 없음	1. 바른 몸가짐 : ‘가람이의 숙제’라는 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오신 상황에 서 식사 예절, 물건 드릴 때 의 예절 등에 대해 생각하 게 하는 내용이 있음.
4-2	1. 가깝고 반가운 친척 2. 우리 모두를 위하여 3. 공정한 생활 4.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5. 우리 나라 우리 조국	1. 가깝고 반가운 친척	4.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 사진 자료를 통하여 성묘하 는 모습, 세배하는 모습 제 시
5	1. 정직한 행동 2. 절제하는 생활 3.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4. 이웃사촌 5. 서로 존중하는 태도 6. 나와 우리 7. 서로 다른 주장 8. 나라 발전과 나 9. 한 마음으로 평화통일을 10.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	3. 공경하고 사랑 하는 마음	
6	1. 성실한 생활 2. 소중한 생명 3. 너그러운 마음 4. 우리 학교, 우리 고장 5. 함께 지키자 6. 아름다운 사람들 7. 자연 사랑 8. 평화 통일 길 9.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10. 평화로운 지구촌	직접 관련되는 단 원 없음	1. 성실한 생활 : ‘발에 묻힌 보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유 언을 실천함으로써 자식들 이 성실의 의미를 깨닫는 모습 제시 2. 소중한 생명 : ‘내 생일’ 에서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 혜를 생각하게 함.
7 (중1)	I-1. 삶의 의미와 도덕 I-2.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 I-3. 인간다운 삶의 자세 I-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II-1. 행복한 가정 II-2. 친척간의 예절 II-3. 이웃간의 예절 II-4. 학교 생활 예절	II-1. 행복한 가정	
8 (중2)	I-1.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 I-2. 현대 사회와 시민 윤리	I-1. 현대 사회 와 전통 도덕	

	I-3. 민주적 생활 태도 I-4. 생활 속의 경제 윤리 II-1.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II-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II-3.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II-4.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9 (중3)	I-1. 삶의 설계와 가치 추구 I-2.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I-3. 도덕 문제와 도덕 판단 II-1. 진로·진학과 도덕 문제 II-2. 가정·친척·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 II-3. 학교 생활과 도덕 문제	II-2. 가정·친척·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	
10 (고1)	I-1. 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 문제 I-2.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화 I-3.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 II-1.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II-2.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II-3. 민족 공동체의 변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직접 관련되는 단원 없음	
계	96	9	

교과 내용 체계로 제시된 항목이 실제 교과서에서는 총 96개 대단원 중 10개 단원(10.4%)으로 설정되어 있다. 내용 체계에서 제시된 것보다는 약간 더 많고, 여타 단원에서 효 관련 내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전히 그 비율은 높지 않다.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는 말을 거꾸로 보면 모든 행동은 ‘효’로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관심이 없는 분야나 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설혹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업을 받아도 그 교과목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라는 점에서 이것은 자못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인성교육’이라는 과목이 학교 교과목에 없다는 생각에 ‘요즘 학

교에서 인성 교육은 시키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있는 현실에서 ‘효’에 대한 단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그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계승해야 할 효 사상의 붕괴를 재촉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효 관련 단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통합 교과인 ‘바른 생활’ 1학년 교과서는 모두 1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학기의 3단원 ‘가족은 소중한요’와 2학기의 ‘함께하는 한가위’가 효 관련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족은 소중한요’에서는 식습관을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어른들과 식사할 때의 예절, 식사를 마련해 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인사하기, 설거지를 돕는 내용 등이 그림과 지문을 통하여 제시되어 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과 식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깃들여 있다. 2학기의 3단원 ‘함께 하는 한가위’에서는 인사의 방법, 상황에 따른 인사말 등이 기본예절 익히기 차원에서 제시되어 있다. 취침 전 부모에게 인사하는 장면에서는 전통 예법의 혼정신성(昏定晨省)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른 생활’ 2학년에는 2학기의 ‘5. 화목한 가정’ 단원이 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집안 어른들의 고마운 모습을 만화로 제시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효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다. 2학년 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부모님 돕기 활동과 부모님께 편지 쓰기를 제시하여 효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며, 효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3학년부터는 과목이 ‘도덕’으로 정식으로 교과서가 분리되고, 그림과 만화 중심으로 엮여지던 교과 내용이 소단원별로 예화 중심으로 서술되기 시작한

다. 2학기 교과서에는 효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1학기 교과서에 ‘4. 화목한 우리 집’ 단원이 있는데, 세 편의 예화를 먼저 제시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힘든 가사를 서로 돕는 딸들의 모습, 길에서 주운 금덩이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잘못을 깨닫는 형제의 모습,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대통령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취임식에서 대통령 자리에 어머니를 앉힌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효도의 구체적 방법을 그림으로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단원 끝 부분에서는 역할극 놀이를 넣어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효를 행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 공부한 내용의 행동화와 효 의식의 내면화를 꾀하고 있다.

4학년 교과서에는 효 관련 내용의 단원 배치가 다소 빈약해 보인다. 1학기 교과서에는 독립된 효 관련 단원은 없고, 다만 ‘1. 바른 몸가짐’ 단원 중에 ‘가람이의 숙제’라는 예화가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의 예절 등을 담고 있는데, 식사 시작할 때 가람이가 먼저 손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른들과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식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¹⁰⁶⁾. 2학기 교과서의 ‘1. 가깝고 반가운 친척’은 추석을 맞이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척 어른들을 만날 때의 예절과, 친척 간 왕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는 화재가 난 속에서 손자를 잘 보호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큰 화상을 얼굴에 입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일깨우고 있는 글이다. 그 외에 ‘4.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단원에 성묘하는 사진이 게재되어 돌아가

106) 이 부분은 효 관련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문 내용에 이미 모순이 있다. 어른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저를 들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훈계를 통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께 예의를 갖춰야 함을 부모가 말하고 있는데, 비록 그 사실을 깜박 잊었다는 말을 통해 이미 가람이가 배운 사실임을 알 수 있지만, 평상시 부모와 함께 식사할 경우에는 그런 예의를 지키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부모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가정교육 방식 풍토가 엿보이는 것이다. 효, 예법의 출발점을 평소의 가정생활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

신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을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5학년 교과서부터는 학기 구분이 없이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5학년 교과서에 실린 효 관련 단원은 '3.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여기에는 '웃어른 공경'을 비롯한 네 가지의 예화가 실려 있다. 웃어른에 대한 공경의 자세와 부모 공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반포지효(反哺之孝)', '고려장'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벌을 내린 후 고통 받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사랑의 다락방'에서 제시하고 있다. '수호의 각오'에서는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수호도 할머니께 더욱 잘 해드릴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부모의 모범을 통하여 자식이 행실을 익히게 되는 사례인 것이다. 기타 '10.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 단원에 세배하는 사진을 실어 우리 전통 문화로서의 공경하는 삶을 생각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6학년 교과서에는 별도로 설정된 효 관련 대단원은 없다. 다만 '1. 성실한 생활'의 '밭에 묻힌 보물'에 게으른 삼 형제가 밭에 보물을 묻어 두었다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열심히 밭을 파헤치고 난 후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2. 소중한 생명'에 있는 '내 생일'은 생일을 맞아 축하를 받으면서 자기를 낳으실 때 고생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한다. 아울러 부모에게 자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생명의 소중함과 아울러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는 내용이다.

7학년(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는 내용이 I 과 II로 구분되어 있다. 학기별로 가르칠 내용을 나누어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I은 '삶과 도덕', II는 '가정·이웃·학교 생활예절'로 편성되어 있다. 그 중에 효 관련 대단원은 'II-1.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왜 중요한가', '건강한 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리', '형제 자매 간의 도리' 등으로 세분되어 개념, 의의, 실행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리'는 부자자효(父慈子孝)의 내용을

구체적 예화와 더불어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민법에 있는 ‘효도 상속 규정’을 소개하여 현대의 효 의식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효는 물질적 봉양 외에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강조한 공자의 말을 들어 효 의식의 정립을 꾀하고 있다. ‘Ⅱ-2. 친척간의 예절’에서는 예절의 변화 양상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절 본래의 정신을 일깨우는 내용, 가족·친척 사이의 올바른 호칭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조상에 대한 예절’ 부분에서는 ‘나’와 조상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조상에 대한 올바른 예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다음, 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써 제례의 종류, 방법, 절차를 소개하였다. ‘인물학습’ 부분에서는 이황과 공자의 일생 및 그 학문적 특성을 제시하여 예의 모범적 인물로 삼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가장 효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단원이다.

8학년(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는 ‘Ⅰ-1.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 단원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전통 도덕 필요성, 전통 도덕의 근본정신이 지니는 가치, 전통 도덕의 덕목 중 효도와 어른 공경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전통 도덕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에 제시된 ‘함께하기’ 과제로 『父母恩重經』에 나오는 부모님의 은혜 10 가지를 제시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적어 보는 문제가 나온다. 효도를 다하기 위하여 ‘항상 예를 다하고, 분수를 지켜야 하며,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 돌아가셨든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¹⁰⁷⁾.

9학년(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효 관련 대단원은 ‘Ⅱ-2. 가정·친척·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이다. 과거 조상들이 확대가족의 가정생활에서 중시했던 질서와 가치로 효를 비롯한 유교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해당 내용의 끝부분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 어른에 대한 아이의 도리는 강조되었지만,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이나 평등은 강조되지 않았음’을 제

10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 편찬위원회(2008), 중학교 도덕 2, 교육인적자원부, p.30.

시하고, 이를 현대 가정생활과 도덕 문제로 이어가고 있다¹⁰⁸⁾.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효와 관련한 부분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I-3.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 단원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효도와 우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이 한 식구처럼 다정하게 화목한 생활을 했다는 표현은 있으나¹⁰⁹⁾, 효와 관련해서 더 이상은 없다. 이미 중학교 과정까지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I-1. 현대 사회와 도덕 문제’에 효 관련 내용이 가정 문제와 더불어 포함될 법도 한데, 과학 지상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사회적 도덕 문제 등 원론적인 차원만 다루었을 뿐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효 의식의 붕괴, 가정 교육의 부재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것이 없다는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제7차 교육과정 바른생활 및 도덕 교과서의 효 관련 내용

학년	대단원명	주요 내용 또는 소단원명	효 관련 내용	비고
바른 생활 1-1	3.가족은 소중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할 때의 바른 자세 ○ 식사 도구의 바른 사용법 ○ 음식에 대한 바른 태도 ○ 동혁이네 저녁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그림) ○ 할머니에게 물을 떠 드리는 모습(그림) ○ 식사 전후 감사 인사와 설거지 돕기(지문.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단원명 으로 명기된 것은 ‘동혁-’ 부분의 글임.
바른 생활 1-2	3.함께 하는 한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기(절하는 방법) ○ 상황에 따른 인사말 ○ 바른 인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인사말(그림) ○ 목례, 경례 방법(그림) ○ 잡자리에 들기 전 인사(그림) 	
바른 생활 2-2	5.화목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소중함 ○ 화목한 가정의 모습 ○ 효도하는 마음 실천 ○ 우애하는 마음 실천 ○ 집안일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그림) ○ 집안 어른들의 사랑과 고마운 모습(만화) ○ 형제자매 간 우애하는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도하기’란 말이 처음 등장함.

10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 편찬위원회(2008), 앞의 책, p.137.

10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 편찬위원회(2009), 고등학교 도덕, 교육과학기술부, p. 70.

		○ 나의 생활 되돌아보기	습(만화) ○ 집안일 돕는 모습(그림) ○ 부모님께 편지쓰기/음식 갖다드리기/동생과 놀아주기(만화)	
도덕 3-1	4.화목한 우리 집	○ 어머니와 세 딸 ○ 황금보다 귀중한 형제의 사랑 ○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	○ 효도와 우애(글, 그림) ○ 화목한 가정을 위한 효도와 우애의 방법(그림) ○ 역할극을 통한 효도와 우애의 실천(그림, 사례)	○ 예화가 본격적으로 등장
도덕 4-1	1.바른 몸가짐	○ 가람이의 숙제	○ 어른과의 식사 예절, 어른에게 물건 드리는 법(글, 그림)	○ 내용상 관련되는 소단원
도덕 4-2	1.가깝고 반가운 친척	○ 추석날 ○ 나이 많은 조카 ○ 고모 할머니 ○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	○ 친척들과 예절을 지키고 화목하게 지내기(글, 그림, 만화) ○ 할머니의 사랑(글, 그림)	○ 4.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단원에 성묘하는 사진 제시
도덕5	3.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 웃어른 공경 ○ 동생이 생겼어요 ○ 수호의 각오 ○ 사랑의 다락방	○ 웃어른 공경하는 자세와 부모 공경(글, 그림) ○ 할머니를 공경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한 감명(글, 그림) ○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벌을 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글, 그림)	○ 10.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 단원에 세배하는 사진 제시
도덕6	1.성실한 생활 2.소중한 생명	○ 밭에 묻힌 보물 ○ 내 생일	○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참뜻을 깨달음(글, 그림) ○ 나를 낳을 때의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글, 그림)	○ 내용상 관련되는 소단원
도덕7 (중1)	Ⅱ-1.행복한 가정 Ⅱ-2.친척간의 예절	○ 가정은 왜 중요한가 ○ 건강한 가정 ○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리 ○ 형제 자매 간의 도리 ○ 친척 간의 예절 ○ 조상에 대한 예절	○ 가정의 소중함과 건강한 가정의 요건 알기(글, 사진, 그림) ○ 父慈子孝에 대한 사례(글, 그림, 사진) ○ 가족, 친척 간 바른 호칭 알기 및 형제 간 우애(글, 그림, 표) ○ 예절의 참된 의미(글, 그림, 사진) ○ 조상에 대한 제사와 태도(글, 사진)	○ 예화 중심에서 내용 중심 서술로 바뀜. ○ 효에 대한 체계적 내용 제기가 되어 있음. ○ 옛날의 喪親에 해당하는 내용 ○ 고전으로 『五倫行實圖』 소개

				○ 퇴계, 공자의 생애, 사상 소개
도덕8 (중2)	I - 1.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	○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의 필요성 ○ 전통 도덕의 기본 정신 ○ 전통 도덕의 구체적 내용 ○ 전통 도덕의 적용과 실천	○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전통 도덕 필요성 제시(글, 사진) ○ 전통 도덕의 근본 정신이 지니는 가치(글, 사진) ○ 전통 도덕의 덕목 중 효도와 어른 공경 제시(글, 그림, 사진) ○ 전통 도덕의 적용 및 실천 방안 제시(글, 사진)	○ 『父母恩重經』의 부모 은혜 10가지를 소개한 내용이 있음.
도덕9 (중3)	II - 2. 가정·친척·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	○ 가정 생활에서의 도덕 문제와 해결	○ 과거와 현재의 가정 생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제시(글, 사진, 그림)	○ 과거의 가정 생활 모습 소개 내용이 다소 부정적 인상을 줌.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통합적 인격 형성과 자신과 타인·사회·국가·민족 사이의 가치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중에 ‘효’ 교육은 통합적 인격 형성의 바탕과, 자신과 타인,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치를 파악하여 받아들이고 실천케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도덕 교육의 과정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과정(1-6학년)에는 생활 습관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학교 1-2학년(7-8학년)에서는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실천 의지를 형성하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9-10학년)에서는 가치 판단 및 선택 능력 신장과 생활 원리의 체계화 등을 꾀하고 있다¹¹⁰⁾.

전통적 효의 근본정신은 대체로 감은(感恩)의 정신, 사랑과 화합의 정신, 인격 형성의 근본 원리 등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를 실천하는 길로는

110) 박재주(2005),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중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윤리교육 내용에 관한 비판적 연구, 윤리교육연구 Vol.7, 한국윤리교육학회, p.102.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몸을 다치게 하지 않고[保身] 자신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不辱], 부모님을 봉양하고 화순(和順)해야 하는 것, 사랑하면서 공경해야 하는 것[愛親],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養志] 이름을 빛내는 것[揚名], 부모님의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諫言] 등이다¹¹¹⁾. 제7차 도덕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효의 제시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효와 그에 관련된 관습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서 교과 내용으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선 시대에 효가 중시되었던 것은 ‘효’를 기점으로 윤리가 기틀을 잡고 사회와 국가로 확산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7차 도덕 교과서에서도 효 사상은 계승해야 할 전통 도덕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효 관련 사례를 그림, 만화, 사진 자료로 풍부히 배치함으로써 효행을 생각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고, ‘역할연습’을 통하여 부모의 위치에서 생각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의도한 점이 돋보인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익힌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효 의식을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 도덕을 통하여 현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전통 사회의 효와 유교 윤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9학년(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의 ‘가정·친척·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 단원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 어른에 대한 아이의 도리는 강조되었지만,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이나 평등은 강조

111) 박재주(2005), 앞의 논문, p. 103.

되지 않았음'을 기술하면서 현대 가정생활과 도덕 문제를 말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에 편성된 '가람이의 숙제' 부분의 내용도 우리 가정의 효 교육의 상황을 은연 중 반영하고 있다. 가람이는 부모로부터 어른과 식사할 때는 어른이 식사를 시작하고 나면 뒤따라 식사를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위임을 이미 배워 알고 있으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그것을 잊고 숟가락을 든다. 평상시 부모 앞에서는 가람이가 '예의'에 맞지 않게 행동하여도 부모가 방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유분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개성과 자율을 말하면서 절제와 공경을 행할 줄 모르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적 지도가 행해지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효의 근본은 공경(恭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행실로 실천될 때 효행이 되는 것이다. 효행은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불가능한 덕목이다. 몸에 체득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성껏 마음을 길러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모범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정이 뒤따라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 과목에서 '효'는 현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통 도덕으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효 의식의 내면화와 실천을 이루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2. 효에 대한 현대 교육의 인식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서구화의 열풍 속에 휩쓸려 지내왔다. 물밑 듯 들어오는 미국 문화의 홍수 속에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자본주의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지속되었다. 여기에 6·25라는 민족상잔의 경험은 우리의 넉넉지 못한 삶을 더욱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곳간이 차야 예절(禮節)을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처지는 우선 먹고 살기에도 힘들었으므로, 바람직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사치와도 같은 것이었다.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서구적 가치관이 넘쳐나는 가운데, 효와 같은 예전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는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중요한 전통으로 존재한다. 효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한다. 학교교육에서도 효는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되는데, 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표에 나타나 있는 ‘자신과 가정·학교·사회생활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는 항목은 효의 덕목을 포괄하고 있다. 비록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한 조선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덕성을 함양하는 데 효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기본 생활 예절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며, 중학교 단계에서는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윤리학의 기초를 학습한 바탕 위에 자율적이고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¹¹²⁾.

실제로 도덕 교과서에는 전통적 효에 바탕을 둔 내용 진술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가족의 소중함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제시하고 있고(1-1, 2-2, 3-1, 7학년), 친척이나 이웃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며(1-2, 4-2, 9학년), 전통도덕을 현대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효 의식의

112) 교육인적자원부(2007), 앞의 책, pp.3-4.

내면화와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배려(9학년)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틀에서 성장한 고등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효 의식을 보인다¹¹³⁾.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 내용이나 훈화, 생활지도 등의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효도 일기 쓰기, 효도 편지 쓰기, 효행상의 시상 등을 통하여 효 의식 고양 지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주어지는 학습 내용을 입시 비중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입시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지도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교과의 범주에서 벗어난 ‘도덕’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힘을 쏟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며, 효 의식의 내면화와 실천을 위해 행해지는 각종 지도는 요식적인 절차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심한 것이다.

한편,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면서 효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다. 한국 유학의 중심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퇴계와 율곡은 모두 덕행(德行)으로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설정하고 이를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¹¹⁴⁾ 이들의 가족중심적인 덕행은 특히 효에 치중한 것이었다.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場)이며, 부모의 양육과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의미 깊은 장소이다. 천성(天性)에서 우러나오는 부모의 자(慈)와 자식의 효(孝)가 교감하는 곳이며, 효의 모든 것이 여기에 바탕을 둔다.

전통사회의 가정은 대가족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로 의식과 더불어 효 의식을 체득해 갈 수 있는 교육적

113) 백석원(2003), 高等學生의 孝 意識에 關한 研究,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114) 성규탁(1995),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 내용분석, 「효사상과 미래사회(효사상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583.

기능이 있었다. 부모의 경우에도 ‘엄부자친(嚴父慈親)’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적 역할 분담이 뚜렷한 가운데 자녀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점차 대가족이 해체되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되던 교육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자녀를 많이 두지 않는 경향과 더불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전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성장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하여 자애 일변도의 양육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식이 어려움 없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생을 다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효’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예전의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자식의 부모에 대한 헌신이나 보은의 자세를 잊게 만들었다. 또한 조부모와 더불어 살지 않는 경우가 부모가 어른을 모시는 모습을 숭상하는 모습을 보기 힘든 상황이 된 것도 가정에서 효 의식이 약해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효가 종적(縱的)인 질서가 강조되는 윤리라고 할 때,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 추구된 이상은 횡적(橫的)인 윤리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⁵⁾. 모든 사람은 종교, 국적, 계층,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학력,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엄한 존재이므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인간으로서도 대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사회에도 과거부터 종적(縱的) 인간관계가 엄연히 유지되어 왔으며, 근대 사회의 출현 후나 현대 산업 사회에 와서도 종적(縱的) 인간관계는 엄연히 존속

115) 노상운(1986), 전통윤리와 현대사회의 윤리문제, 동아논총 제22집 인문과학편, 동아대학교. p.25.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근본규범이 자유, 평등을 지향하며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가 횡적 사회관계로 기울어 가는 경향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인간존엄성, 만민평등의 원리는 기독교 사상에서 비롯되었고, 자연법(自然法) 사상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이었다. 또 서구의 근대화도 처음에는 기독교 사상과 신앙의 기초 위에서 추진된 것이므로 이것이 근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차츰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 퇴조하고 합리주의적인 과학기술 사상과 물질문명, 그리고 능률주의(能率主義), 기능주의(機能主義)의 사고방법이 우세해짐에 따라 종적사회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질서가 점차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도 서구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동양 사회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종적 윤리가 횡적 윤리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의 급작스런 아노미 현상은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급작히 수입된 서구적 문화로 인하여, 불과 몇 십 년의 짧은 기간 속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윤리와 사상이 뒤섞이게 되어 사회적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효 사상의 전통에 젖어 있던 과거의 윤리는 다분히 종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자유, 평등, 자본주의의 이상(理想)이 범람하는 중에 전통적 효 사상과 그 교육 방법을 제대로 유지 발전시키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쉽게 횡적인 윤리만이 지고지상(至高至上)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전에 볼 수 없던 병리현상(病理現象)이 만연하게 되었다.

먼저, 신의 권위 상실과 절대적 진리에 대한 회의의 현상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신성의 상징이나 절대적인 가치로서 추앙받았던 명제가 이제 합리적, 공리적 사고 방법과 분석적 비판의식 앞에 부정되거나 또는 상대적 가치로 격하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선도 악도 절대적 기준을 상실하고,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다양해지고 불명확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부모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종전의 효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에 대해 유

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이기적 경향이 드러나게 된다. 부모에 대한 원망은 물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행위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의 해체 경향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다. 종과 횡으로 다양하게 엮어진 사회공동체 생활에서 상위의 권위를 부인 또는 불신하게 되면 그 집단은 중축(中軸)을 잃게 된다. 사람들은 제각기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사회적 결집력도 약화된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약화되고 사회적 연대의식은 사라진다. 핵가족조차도 결집력을 잃고, 부부는 애정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쉽게 헤어지며, 아이는 부모의 구속을 받기 싫다고 나가버리고, 노부모는 부담스럽다고 돌보지 않는다. 인간은 소속감을 갖고 서로 돕고, 애정과 헌신을 주고받으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더 이상 그럴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통사회의 종적윤리, 효 사상의 장점을 받아들여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치관과 융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방안 모색 및 그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현대화가 진행됨으로써 인간 삶의 보람 자체를 회의(懷疑)하게 만드는 병리 현상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에서는 전통도덕을 현대의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깃들여 있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효 사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는 ‘행실도’ 계통 문헌의 서적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효의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실도’ 계통의 책은 다만 ‘모범’이 되는 사례만 수록했을 뿐 행실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하거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표현은 없다. 이러한 것은 규범의 의미와 정당성을 일상 사태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

는 동양적 도덕교육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¹¹⁶⁾, 그럼에도 효 의식의 고양에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유교적 윤리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7차 교육과정에서의 효 교육은 현대의 다양한 가치와 욕구가 혼재하는 가운데 참된 삶의 지향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 당위성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 가치를 인정하고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할지라도 사회적, 국가적 관심에서 벗어난 효 교육이 쉽게 성공할 수 없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3. 현대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

조선시대의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실린 효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교육적 의미는 첫째, 국가 차원의 강력한 교육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고, 둘째, 효는 은혜를 갚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셋째, 효의 실행은 자식의 온 생활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졌고, 넷째, 생전의 효로서 부모의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를 소중히 여겼으며, 다섯째, 부모 사후에도 변함없는 공경과 정성으로 받드는 것을 참된 효로 생각했다는 것 등이다.

조선시대의 효 의식은 일반 백성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백성들의 심성의 핵심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아동 시기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를 모범적인 사례 제시를 통하여 제시하였다는 데서 그 방법상의 특이점을 추출할 수 있다. 이는 현대의 각박한 사회 현

116) 이홍우(2005), 도덕교육의 동양적 전통, 도덕교육연구 제17권 1호, 한국도덕교육학회, p.8.

실과 무너져 가는 효 의식에 대하여 교육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 조선시대 효의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정교육은 효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유아 때부터 자식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 부모의 모습은 그대로 자식의 의식과 행동 형성에 거울이 됨을 염두에 두고, 항상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언행에서 자식의 모범이 되도록 하면서 자식을 이끌어야 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대로 효 의식 함양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정성을 다하여 노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을 생활 속에서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노부모님을 찾아 뵈 수 있도록 하며, 그 때마다 자식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명절 때나 노부모님의 생신 등도 효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자식을 동참시키고, 돌아가신 조상님을 돌이켜 생각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며 자식에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수시로 일깨워 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하여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나라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자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바른 심성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존중받아 본 사람이 존중할 줄 알게 되며, 긍정적인 인정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는 부모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형제자매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위해 모든 가족들이 협조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습은 친척들 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부모는 친척들 간에도 모범되는 행동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학교는 아동이 부모의 곁을 떠나 처음 본격적인 형식교육을 경험하는 기관이다. 가정에서 학습된 행동이나 예의범절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하면서, 같은 또래의 아동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객관화할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이다. 아울러 학문적 기초 지식을 접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점차 체계화시켜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을 처음 접하는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교사이다. 가정에서의 부모와 같은 위치에서 학생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교사는 당연히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부모 못지않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교사의 사랑과 모범이야말로 학생들의 인성이나 인격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⁷⁾. 따라서 효 의식과 효행의 정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된 지도와 모범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교사가 효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평소의 훈화와 교과 지도를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기쓰기의 지속적 지도는 학생들의 반성하는 습관과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일기쓰기는 개인적 차원의 습관이라고 하겠으나, 아동기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관심 있는 지도가 좋은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고 보다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일을 습관화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바른 인성의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117) 노상오(2005), 효의 실천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Vol.7, p.8.

이다.

교과 지도의 차원에서 효 의식 고양을 위해 일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과목은 당연히 도덕 교과가 될 것이다. 하지만, 효는 어느 특정한 과목, 특정한 단원에 한정되어 지도되어서는 기대한 바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든 것이다. 효는 생활과 사교의 중심축에 위치할 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따라서 도덕과 외의 다른 교과에서도 효와 연관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유기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 교과의 효에 관련된 읽기 단원이나 문학 작품 감상 단원, 사회 교과의 가정의 의미와 기능에 관련된 단원, 한문 교과의 효 관련 고사성어나 일화, 고전 문장 등의 학습 등에서 유기적인 연관 지도가 가능하다.

조선시대의 효 정책의 배후에는 개국 이래 지속적으로 실시된 정표정책(旌表政策)이 있다¹¹⁸⁾. 칭찬은 해당 본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학생들의 가정생활과 환경을 잘 파악하여 선양할 만한 효행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객관적이고 현저한 행실의 근거를 바탕으로 표창이 시행되어야 한다. 표창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급학교 입시나 취직 시험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아울러 모색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회교육에서의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과 학교는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교육을 기본 틀로 가지고 있으나,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삶의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서 지적인 판단과 적용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

118) 태조의 즉위 교서에 정표정책이 명시되어 후대 임금들의 정책 수행에 근거가 되었음.

“...충신(忠臣)·효자(孝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勸獎)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게 할 것이다.”(太祖實錄 卷一 太祖一年 七月二十八日 丁未).

는 곳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효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어른들의 모범’이 중요하다. 내 자식, 내 제자를 떠나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효를 기본으로 하는 생활 규범을 지니고 모범을 보인다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론,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과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회인이 모범적인 효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이상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효행 실천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표창을 통하여 효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례집을 발간하여 국민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처럼 표창자에 대하여 취직이나 승진 등에 우대하는 것도 효 실천의 좋은 동기가 될 것이다.

효행의 장려를 위하여 2007년 8월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¹⁹⁾.

이 법에는 ‘효 문화 진흥원’을 설립하여 효행 관련 업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⁰⁾. 조선 시대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효행을 장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효 문화 진흥원’이 설립되어 활동한다는 소식이 없다. 또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한다고¹²¹⁾

11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률 제8610호, 2007년 8월 3일 제정.

120) 위의 법률 제7조.

하였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생긴 법률이 아니라 노인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법률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가정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도 필요하다. 부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방송 등의 매체나 각종 사회단체를 통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현대사회가 예전의 조선사회와는 다른 구조와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리에 바탕을 둔 부모의 역할을 익히고 이를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한 효 의식 함양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요즈음 ‘부모교육(父母教育)’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21) 위의 법률 제9조.

V. 결론

효는 고대 이래로 우리 교육의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며 훌륭한 전통으로서 자리 잡은 소중한 정신 유산이다. 효(孝)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면서도 사회와 국가에도 필요한 능력과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자칫 효를 구태의연하고 낡은 도덕관념으로 치부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며, 현대에도 효는 여전히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효의 근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윤리로부터 출발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가 중심을 이루는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효는 우리 고유의 한 사상을 비롯한 무격신앙,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온 것으로 우리 민족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도덕적 의식이다.

둘째, 조선시대에 일반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발간된 『三綱行實圖』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효자편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된, 조선시대의 효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고 추진된 교육정책의 결과로 모든 백성의 기본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② 효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였다.
- ③ 효의 실행은 자식의 온 생활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졌다.
- ④ 생전의 효로서 봉양은 음식 등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측면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 외에, 부모의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를 소중히 여겼다.

⑤ 부모 사후에도 변함없는 공경과 정성으로 받드는 것이 참된 효였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에는 전통적 효에 바탕을 둔 내용 진술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효 의식의 내면화와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배려도 나타나 있으나, 구체적 실천으로 구현되기에는 과목의 비중이나 과목 중 효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

넷째, 조선시대 효 교육 교재에서 추출한 교육적 의미가 현대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① 가정은 효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효 의식의 함양을 위해 부모의 언행이 모범적으로 자녀에게 제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②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의 세심한 배려와, 가정과의 연대 교육을 통하여 효 의식이 길러질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며, 교과 간 연대 교육이나 효행 학생에 대한 표창을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사회교육의 측면에서는 모범적인 효행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 모범적 사례집을 발간하여 국민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며, 효행 표창자에 대하여 취직이나 승진 등에 우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현대 사회의 제반 문제점, 특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의 근저에는 가치관 부재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그대로 전통적인 효 사상의 붕괴와 접맥되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외래 사상이나 문물은 유입되었을 때 토착의 기존 세계관, 가치관과 충분히 융화될 수 있는 시간적 단련이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이 너무도 급작하게 우리

의 삶과 생각을 서구적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파고 들어온 것이 문제였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효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 보고 교육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효를 적극 장려하고,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교육의 중점을 효의식을 드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형식교육에서 필요하며,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효(孝)’ 의식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 교육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효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2007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효 문화 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장려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효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 세계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효(孝)’는 결코 과거 속에 사라져야 할 낡은 덕목이 아니라 새 시대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견인차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원문자료

『孝經』

『父母恩重經』

『論語』

『孟子』

『大學』

『中庸』

『詩經』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書堂學規』

『童蒙先習』

『士小節』

『三綱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

『朝鮮王朝實錄』(CD자료)

2. 단행본

강주진 역저(1978), 『奇高峯의 生涯와 思想』, 서울: 박영사.

- 강창동(2002), 『한국의 교육문화사』, 서울: 문음사.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2004),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 서울: 예문서원.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1971), 『한국문화사대계 V 언어·문학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1979), 『한국문화사대계11 종교·철학사(상), (하)』,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1982), 『한국민속대관 6 구비전승·기타』,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국사편찬위원회(1972), 『일제 침략하 한국 36년사』, 서울: 탐구당.
- 김귀성·노상우(2001), 『현대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김길환(1987), 『동양윤리사상』, 서울: 일지사.
- 김두정(2002), 『한국 학교 교육과정의 탐구』, 서울: 학지사.
- 김영모(1982), 『조선 지배층 연구: 관료 양반의 사회학적 고찰』, 서울: 일조각.
- 김영우·피정만(1995), 『최신 한국교육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익수(2009), 『한국인의 효 사상』, 서울: 수덕문화사.
- 김종철 외6(1987),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2003),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태길(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문음사.
- 김태오(2003), 『실사구시 교육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학주 편저(1992), 『논어』, 서울: 서울대 출판부.
- 김학주 편저(2006), 『신완역 효경』, 서울: 명문당.
- 김호권(1977), 『교육과 교육과정』, 서울: 배영사.

- 김효선 외(1997), 『동양 교육 고전의 이해』,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나동진(2004), 『교육심리학 -인지적 접근-』, 서울: 학지사.
- 모리스 쿠랑 저, 이홍우 역(1974), 『한국의 서지와 문화』, 서울: 신구문화사.
- 박일봉(1990), 『중국사상사』, 서울: 육문사.
- 박재문(2003), 『한국교육사』, 서울: 학지사.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편(1985),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서울: 범문사.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0), 『한국교육사』, 서울: 교육과학사.
- 손인수(1971), 『한국근대교육사』, 서울: 연세대 출판부.
- _____ (1984),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서울: 문음사.
- _____ (1986), 『교육사 교육철학연구』, 서울: 문음사.
- _____ (1986), 『율곡의 교육사상』, 서울: 박영사.
- _____ (1998), 『한국교육사 I, II』, 서울: 문음사.
- 손충기(2006),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태영출판사.
- 송병순(2002), 『한국교육의 현실과 이상』, 서울: 문음사.
- 신동로(1994),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신천식(1995), 『고려교육사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신형식(2001), 『한국전통문화와 역사의식』, 서울: 삼지원.
- 안경식(2004), 『구비설화에 나타난 한국 전통교육』, 서울: 문음사.
- _____ (2005), 『한국 전통 아동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안인희 편(1993), 『현대 교육고전의 이해』,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안창선 외2(2000),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 오천석(1995), 『교육철학신강』, 서울: 교학연구사.
- 유광찬(2001),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유명중(1992), 『한국사상사』, 대구: 이문출판사.

- 유안진(1998),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9),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윤사순·고익진 편(1985), 『한국의 사상』, 부산: 열음사.
- 윤정일 외4(1993), 『한국의 교육정책』, 서울: 교육과학사.
- 윤철경 외(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 99-R 33, 서울: 교육부.
- 이경섭(1996), 『교육과정 유형별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광규(1997), 『한국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이규태(1983), 『속 한국인의 의식구조(상)』, 서울: 신원문화사.
- _____ (1989), 『인간형으로 본 한국인』, 서울: 신태양사.
- 이기백(1993), 『한국사 신문』, 서울: 일조각.
- _____ (2002), 『한국전통문화론』, 서울: 일조각.
- 이능화(1978), 『조선무속고』, 한국의 민속·종교사상(삼성판 세계사상전집
41), 서울: 삼성출판사.
- 이돈희·조화태(1996), 『교육철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 이만규(1949), 『조선교육사(상), (하)』, 서울: 을유문화사.
- 이홍우 외2(2004), 『교육과정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홍우·조영태 역/R.S. Peters 저(2004), 『윤리학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화여대 교육공학과(2006), 『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교육과
학사.
- 임한영(1977), 『존 듀우이의 생애와 사상』, 서울: 배영사.
- 장덕삼(1996), 『신교육사 철학』, 서울: 재동문화사.
- 정낙찬·이동기·채휘균 편저(2000), 『한국의 전통교육』, 경북 경산: 영남
대 출판부.

- 정원식·박성수 편(1999), 『한국교육문제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정재철(1985), 『일제의 대한 식민지 교육정책사』, 서울: 일지사.
- 조명기 외33(1996),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도서출판 우석.
- 조연순(1996), 『한국초등교육의 기원』, 서울: 학지사.
- 최성규 편(2001), 『효학개론』, 인천: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 최소자(1987), 『동서문화교류사 연구: 명·청 시대 서학 수용』, 서울: 삼영사.
- 최완기(2005), 『한국의 전통교육』,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 연구실 편(1989), 『철학적 인간관』,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5), 『근대교육100년의 성과와 전망 -근대학제 도
입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함종규(2004), 『한국 교육과정변천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한우근(1961), 『이조 후기의 사회와 사상』,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2001), 『개정판 한국통사』, 경기 파주: 한국학술정보.

3. 논문류

- 강미희(2005),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 열린유아교육연구 Vol.10
No.3,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강영자(1992),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 내 자녀교육, 자연과학 Vol.3 No1,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 곽준식·김순자·진규철(1997), 효의 글로벌리제이, 산업과학기술연구소보 제
4호, 진주산업대학교.
- 금종우(1975), 孝 思想研究(I), 논문집 제20집, 경북대학교.
- 김대연(1985), 조선조 경로교육과 노인복지 연구: 경로사상과 노인보호책을

-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_____ (1985), 退溪·栗谷의 孝思想과 敬老教育, 흥대논총 제17권 1호, 흥익대학교.
- 김무현(2004), 유가(儒家)의 교학사상에 의한 효(孝)교육 연구 - 효사상의 전개방안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9집, 한국한문고전학회.
- _____ (2006), 유가의 교학사상에 관한 연구 -효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 _____ (2006), 유가사상(儒家思想)의 본질(本質)과 효(孝)에 관(關)한 연구, 한문고전연구 13집, 한국한문고전학회.
- 김문준(2000), 孝思想의 本質과 現代社會에서의 役割, 유학연구 제8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 _____ (2002), 효 정신의 현대화와 실천방안, 한국의 청소년문화 3집, 한국청소년문화학회.
- 김범수·간호옥(2001), 전통 孝 사상의 현대적 재인식을 통한 노인부양 문제 해결, 논문집 제15권 1호, 평택대학교.
- 김병희(2006), 현대사회에서 효의 의미와 효 교육의 원리, 중등교육연구 제54집 2호
- 김용남(1999), 儒敎의 幸福觀, 동양철학연구 제21권 1호, 동양철학연구회.
- 김용재(2008), 전통문화(傳統文化)및 유교교육(儒敎敎育)의 활성화, 유교사상연구 31집, 한국유교학회.
- 김용환(2003), 현대사회의 효 윤리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53호, 한국국민윤리학회.
- 김익수(2006), 율곡이 수용, 전개한 공자의 효 사상(상), 한국사상과 문화 Vol.33,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인제(1978), 孝의 現代의 意味設定과 精神文化啓發 , 논문집 제10권 1호,

- 제주대학.
- 김일환(1998), 忠孝倫理의 思想的 體系와 理念的 展開, 교육연구 제14집, 공주대 교육연구소.
- _____ (1999), 孝의 教育的 意味와 人性指導論의 接近, 학생생활연구Vol.24, 공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재식(2005), 전통 덕(목)교육에 기초한 초등 도덕과 교육, 초등도덕교육 Vol.20,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김정진(1984), 忠·孝 義理精神과 義兵運動 -중봉 조헌선생의 창의순국정신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11집, 경북대동양문화연구소.
- 김중도(2002), 世宗朝 '三綱行實圖' 普及을 통한 教化政策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동(1979), 父母報恩에 關한 研究, 원불교학연구 제9집, 원광대 원불교학연구회.
- 김철호(2008), 우리 도덕교육의 전통과 현대화,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윤리교육학회.
- 김충실·최문식(1990), 퇴계의 예안향약에서 표현된 '효'와 현대교육, 퇴계학연구 제4집, 단국대퇴계학연구소.
- 김향수(1998), 삼강행실도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No.85, 진단학회.
- _____ (2003), 조선 전기 삼강행실도와 소학의 편찬, 한국사상과문화Vol.19,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홍중(1997), 儒學與孝道,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집,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김훈식(1996), 朝鮮初期 『三綱行實圖』 보급의 대상, 인제논총 제12권 1호, 인제대학교.

- 노상오(2005), 효의 실천 방안 연구, 논문집 제7집, 부산교대교육대학원.
- 노상운(1985), 傳統倫理와 現代社會의 倫理問題, 동아논총 제22집 1호, 동아대학교.
- 노숙현(1994), 효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성서적 이해, 금구논총 제2권 1호, 동국전문대학.
- 노일준(1985), 고전에 담긴 효친사상의 현대적 이해, 논문집 제2집, 광주개방대학.
- 노태조(1982), 「國譯 三綱行實圖」에 대하여, 어문연구 Vol.11, 충남대학교 문리대 어문연구회.
- _____ (1999), 三國遺事와 三綱行實圖의 孝行傳記 對比 研究, 어문연구 제31집, 충남대문리대 어문연구회.
- 류인균·조두영·홍강의(1998), 成長期의 家族環境 및 生物遺傳的 性格-氣質의 特性이 孝의 情緒的, 行動的 特性에 미치는 影響, 신경정신의학 제37집 5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류점숙(1995), 조선시대 아동 효행교육의 현대적 의미, 1995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문경서·김상태(1983), 孝의 精神醫學的 意味, 신경정신의학 제22집 1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문영오(1981), 효의 현대적 조명, 청대한림 제1집, 청주대한문교육과.
- 민경석(2000), 전통회복의 방법론적 문제점, 우원사상논총 제9집, 강남대학교.
- 박재간(1995), 전통사회의 효사상과 노인보호정책, 사회복지논총 제1집, 대전대 사회복지연구소.
- 박재주(2005),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중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전통 윤리교육 내용에 관한 비판적 연구, 윤리교육연구 Vol.7, 한국윤리교육

- 학회.
- 백석원(2003), 高等學生의 孝 意識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 범선균(1976), 현대사회에서 효의 의미와 효 교육의 원리, 논문집 제9집 1호,
청주대학교.
- 서선희(1998), 한국적 효 개념의 특수성, 한국노년학 제18집 3호, 한국노년학회.
- 성태용(1984), 茶山의 明善論에 대한 一考察, 진동고전연구 제1집, 한림대 진
동고전연구소.
- 소진운(1979), 忠孝思想의 定立에 關한 研究 , 논문집 제1권 1호, 군산대학교.
- 손병욱(2004),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서 '충 중심의 효[忠的 孝]'에서 '효 중심
의 충[孝的 忠]'으로의 가치관의 전환과 그 의미, 한국민족문화 제24집.
- 송양섭(1996), 화랑도 교육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교육연구 제8권, 춘천교육
대학교 인문사회교육연구소.
- 송하경(1977), 中國儒家에 있어서의 孝, 논문집 제6집, 전북대문리과대학.
- 송향섭(1982), 孝에 관한 認識, 논문집 제3권 1호, 철도전문대학교.
- _____ (1998), 대학생의 효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논문집 제14집, 철도전문
대학교.
- 신동훈(2000), 구비설화를 통해 본 민간의 삶과 효(孝), 건국대인문과학연구
소, 인문과학논총 제34집.
- 신용수(1986), 忠孝思想의 史的考察과 現代的 意味, 논문집 제20집, 단국대학교.
- 신행철(1998), 서학에 대한 후기 조선 지식인들의 대응, 인문학연구 제4집,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 신형식(1979), 韓國古代史에 나타난 忠孝思想, 연구논문집 제11집, 성신여자
대학교.
- 안병주(1995), '韓國社會와 儒敎文化' 再論, 한국학논집 제27집, 한양대 한국

- 학연구소.
- 안진오(1980), 孝思想의 再定立을 위한 一考察, 용봉논총 제10집, 전남대인문
과학연구소.
- 어인의(1996), 孝와 子女의 父母에 대한 民法上의 義務, 법학논집 제11권 1
호, 청주대학교.
- _____ (1997), 효와 친자 간의 법률관계, 법학논총 제3집, 조선대법학연구소.
- 어일준(1985), 古典에 담긴 孝親思想의 現代的理解, 광주개방대학논문집 제2
집, 광주대학교.
- 엄주정(1996), 우리나라의 전통적 충효사상, 학생생활연구 제3집, 용인대 학
생생활연구소.
- _____ (2000), 孝思想의 本質과 家庭倫理 教育觀, 인문사회논총 제6집, 용인
대인문사회연구소.
- 오선균(1981), 孝倫理의 現代의 究明, 교육논총 제1집,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 오수열(1990), 忠孝思想의 淵源과 그 現代의 意味, 사회과학연구 제13집, 조
선대 사회과학연구소.
- 우준호(2000), 儒敎의 基本觀念에 대한 再考察, 중국학논총 제10집, 한국중국
문화학회.
- _____ (2006), 시경의 '효'자 의미 연구, 인문학연구 제33권 3호, 충남대인문
과학연구소.
- 원광(1995), 佛敎의 孝思想과 特性, 승가 제12집, 중앙승가대학교.
- 원홍연(1984), 栗谷의 倫理敎育思想, 통일문제연구 제1집, 강릉대 통일문제연
구소.
- 유우선(1977), 심청전의 배경사상과 효에 대하여, 용봉논집 제7집, 전남대인
문과학연구소.
- 은기수(2000), 유교적 삶의 현대적 변용, 인문과학논총 제34권 1호, 건국대인

- 문과학연구소.
- 이경무(1998), 도덕·윤리과 교육에 있어서 한국전통사상의 위상과 역할(1),
교육발전Vol.1998 No.17,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_____ (1999), 도덕·윤리과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한국전통사상, 교육논총
vol.3,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식(1986), 忠孝思想에 對한 教育學的 考察 , 사회문화연구 제5집,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경자(2004), 효의 의미변천을 통해 본 현대교육적 의의 - 선진(先秦)에서
송(宋)까지, 교육문제연구 21집,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 이계학(1978), 孝教育의 當爲性과 人間教育에 關한 人間學的 高찰, 동대논총
제8권 1호, 동덕여자대학교.
- _____ (1989), 儒家의 人格教育 方法論 考察 , 교육논총 제5집, 단국대 교육
대학원.
- 이광렬(2007), 광해군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편찬의 의의, 한국사론 Vol.5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이근철(1985), 한민족의 전통윤리사상 고찰, 논문집 제21집, 인천교육대학교.
- 이기동(1996), 전통적 孝사상의 현대적 의미, 대학생활연구 제14권 1호, 한양
대학생생활연구소.
- _____ (2004), 효의 근본 의미와 중요성, 호남문화연구 35집, 전남대 호남문
화연구소.
- 이기용(1994), 韓國 開化思想과 日本 文明思想의 比較 研究, KRF연구결과논
문, 한일관계사학회.
- 이남구(1979), 孝의 本質과 그 教育的 意義에 關한 研究, 안동대학논문집 제1
권 1호, 안동대학교.

- _____ (1990), 孝의 本質과 그 敎育體系, 새마을 연구논총 제11집, 경북대학교.
- 이명수(2004), 한국문화 - 정보화 시대 유교 효 이념의 효용성 모색, 한국사상과 문화 25집, 한국사상문화학회.
- 이범직(2000), 한국사의 전개 속에서 儒敎理念과 家族倫理, 인문과학논총 제34권 1호,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 이상순(1981), 효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2집, 동양철학연구회.
- 이석재(2003), 효(孝) 의미의 확대를 통한 노인문제 해결 방안, 인문연구논집 제8집,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승우(1976), 효의 교육 시도, 논문집 제10집, 군산교육대학.
- 이승원(1983), 孝倫理의 基本方向에 관한 一研究, 교육논총 제3집,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경(2006), 7차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 분석, 윤리교육연구 Vol.11, 한국윤리교육학회.
- 이완재(1996), 理學의 脈絡에서 본 初期開化思想, 한국학논집 vol.25 No.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이용길(1998), 조선전기 교재보급을 통한 대중교육의 전개, 한국교육사학 제20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 이원술(1985), 유가정치사상에 있어서의 효의 의의, 사회과학연구 제5권 2호,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재영(2007), 조선시대 효사상의 전개와 효경의 간행,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정재(1981), 오륜사상의 현대교육학적 의의, 논문집 제1집, 광주대학교.
- 이종춘·이상용·지교현(1977), 忠孝思想의 本質에 관한 研究, 논문집 제14집, 청주교육대학교.

- 이천세(1978), 傳統的 價値觀의 變化, 안동초급대학논문집 제1권 1호, 안동초급대학.
- 이철우(1998), 노인관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한국사회 제1권 1호,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 이충호(1995), 현대사회의 가정과 효에 관하여, 학생생활연구 제2집 1호, 충주대 학생생활연구소.
- 이태호·송일기(2003), 초편본 삼강행실효자도의 편찬과정 및 관화양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5집, 서지학회.
- 이현희(1979), 義兵戰爭과 開化思想에 나타난 忠孝觀, 연구논문집 vol.11, 성신여자대학교.
- 이홍우(2005), 도덕교육의 동양적 전통, 도덕교육연구 Vol.17 No.1, 한국도덕교육학회.
- 임명옥(1997),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나타난 효사례 고찰, 한남어문학 Vol.22,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 장기근(1978), 효의 원리와 본의, 아카데미논총 제6권 1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 장기근(1997), 儒敎의 學問精神과 天道의 具現, 학문과 논총 제5집, 주류.
- 장덕삼(1998), 『三綱行實圖』의 視聽覺 教育的 意味에 關한 研究, 인간교육연구 Vol.5 No.1, 인간교육연구원.
- _____ (2000), 『三綱行實圖』와 『世界圖繪』의 比較 研究, 한국교육사학 제22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 장성모·유한구·이환기(1997), 人性敎育의 東洋的 傳統, 도덕교육연구 Vol.9 No.1, 한국도덕교육학회.
- 장원동(1998), 孝의 本質과 現代人의 실천방안, 통일연구 제3권 1호,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전석환(2007), ‘효(孝) 실천’과 그 현대적 변용의 문제 - 하버마스(Habermas)

- 의 ‘현대비판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27집, 한국동양철학회.
- 정대련(1995), 아동기 효 교육의 조명, 교육철학 Vol.13, 교육철학회.
- 정대성(1991), 孝의 根本思想에 대한 比較研究, 논문집 제14집, 진주전문대학.
- 정상봉(2000), 유학에서 효와 그 현대적 의의, 건국대 인문과학논총 제34집, 건국대학교.
- 정운채(2000), 효자전(孝子傳)에 나타난 사대부의 효(孝)와 그 심리적 특성, 인문과학논총 제34집, 건국대인문과학연구소.
- 정일영(2007), 光海君代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정호완(2004), 한국의 효(孝) 문화와 가정교육, 인문과학연구 제28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05), 고마 숭배와 인성 교육, 교육연구 제1권 1호, 대구대학교 사범대부설 교육연구소.
- 조광(1998), 조선조 효 인식의 기능과 그 전개, 한국사상사학 제10집 1호, 한국사상사학회.
- 조규남(1982), 孝思想의 韓國教育的 發展過程의 分析的 研究, 논문집 제11집, 전주대학교.
- 조은상(2001), 『삼강행실도』와 효자전에 나타난 자기 파괴적 효행의 심리, 겨레어문학 제26집, 건국대학교.
- 천병식(1998), 한국 민요에 나타난 효사상, 한중인문과학연구 제3집, 중한인문과학연구회.
- 최경순(1997), 아동발달에 따른 전통‘효’ 가치관 및 양육실제, 자연과학논문집 제3집, 부산여자대학교.
- 최민홍(1974), 19세기 한국에 있어서의 개화사상, 철학탐구 vol.4, 중앙대학교

- 부설 중앙철학연구소.
- 최성중(2000), 유교적 효의 현대적 수용, 한국동북아논총 14집 1호, 한국동북아학회.
- 최용학(1987), 孝倫理의 現代的 考察, 논문집 제4집, 평택대학교.
- 최용현(1982), 현대사회에 있어서 효와 충의 재조명, 새마을운동연구 제4호, 한사대새마을운동연구소.
- _____ (1994), 傳統倫理의 再照明을 통한 韓國社會의 倫理的 危機 克服, 논문집 제15집, 금오공과대학교.
- 최윤용(2008), 서당(書堂)의 교육방법(教育方法)과 현대적(現代的) 의의(意義), 한문고전연구 Vol.17, 한국한문고전학회.
- 최정혜(1997), 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효 의식 분석, 학생생활연구, 제6집, 진주교대학생생활연구소.
- 하우봉(1983), 世宗代의 儒教倫理 普及에 대하여, 전북사학 Vol.7, 전북대학교 사학회.
- 한관일(1995), 『三綱行實圖』의 社會教育的 意義, 교육과학연구 제9권 1호, 청주대교육문제연구소.
- 홍강의 박선자(1991), 발달학적 측면에서의 효의 기능과 의미,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2권 1호,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부 록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分析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分析

[범례] 三：東國三綱行實圖，續：東國續三綱行實圖，新續：東國新續三綱行實圖

숫자는 原典의 面을 가리킴

篇卷 -順	題 目	효행사례										褒賞內譯					孝行內容	備考			
		生前					死後					旌門	官職	財物	復戶	其他					
		奉養	吮腫	嘗糞	斷指	割股	異蹟	其他	獻身	其他	侍墓								祭禮	其他	
三-1	婁伯捕虎																			최루백이 열다섯 살 때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으니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찾아가 죽이고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지냄.	고려시대
三-2	自強伏塚	○																		김자강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다가 어머니도 죽으니 삼년상을 살리고, 또 아버지를 위해 삼년상을 살려고 하니 처가에서 강제로 여막을 불태우고 데려오려고 하자, 무덤 위에 사흘을 다 엎드려 있어, 결국 여막을 다 시지어 시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줌.	조선시대. 추복한 사례.
三-3	石珍斷脂			○																유석진이 아버지 병을 낫게 하려고 약을 구하다가 산 사람의 뼈를 피에 섞어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단지를 행하여 울려 효험을 봄.	조선
三-4	殷保感鳥																			윤은보와 서늘이 군사부일체를 맹세하고, 스승이 죽자 부모의 허락을 얻어 시묘를 살피다가, 아버지가 병이 들어 집안에 돌아와 아버지 사후에 빈 소 곁에서 시묘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향합이 없어졌다가 서너 달 후에 까마귀가 향합을 물어다 줌.	조선. 시묘시적이 일어난 사례.
續-1	仁厚廬墓																			아홉 살에 아버지가 죽자 시묘를 함	
續-2	姜鑿氷			○		○														嘗糞, 의원의 말에 따라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거머리를 얻어 끓은 상처를 치료함.	벼슬버림
續-3	德崇至孝	○																		벼슬을 버리고 부모 봉양함. 모 사후 시묘 3년하며 부 문안함. 부 봉양 지극히 하다가 부 사후 또 시묘하고, 부모 생전과 다름없이 예를 올림.	두 아들에게 벼슬 내림
續-4	韓逵疏食																			부모 사후 6년 시묘	
續-5	定命分蟲																			부 사후 시묘 3년. 모 병환으로 머릿니가 많자 자기 머리로 옮아오게 함. 상분. 사후 시묘	

續-6	延守劫虎																호환으로 물러가는 아버지 시신을 빼앗아 옴	
續-7	克一馴虎	○	○														모 상처 고름 뺏. 부嘗糞. 시묘 6년 살며 무덤가에 새끼를 낳은 호랑이를 먹임. 부의 들을 극진히 봉양하고, 상을 치름.	
續-8	梁郁感虎																부모를 위해 6년을 시묘 살 때 흉과 돌로 무덤을 만드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돌 3 개를 옮겨옴.	
續-9	信之號天																모 기절하자 하늘에 빌어 소생케 함.	두 번 벼슬 내렸으나 하지 않음
續-10	邦啓守喪																부모 상이 이어지고 할아버지 상을 당하자 9년을 시묘	
續-11	玉良白裘	○															벼슬을 버리고 모 봉양. 모 사후 사당에 제를 정성껏 평생 함. 사당 옆에 흰 대추나무 7 그루가 남.	
續-12	今之撲虎																12세에 어머니를 따라 산전에 갔다가 호랑이에 물려가는 어머니를 잡고 호미로 호랑이를 치며 따라가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와 장례를 치름.	
續-13	漢老管痢																아홉 살에, 아버지가 병이 나자 상분하며 구완. 아버 사후 3년 시묘. 열세 살에 어미 죽자 또 시묘. 벼슬 받음.	
續-14	祿連療父																아홉 살에 아버가 나쁜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베어 약에 섞어 먹여 병이 나옴.	
續-15	乙時負父																불이 나서 집에 옮겨 불자 병든 아버를 구하려 뛰어들었다가 함께 죽음.	
續-16	二朴追虎																아버가 범에 물려가자 열네 살, 여덟 살인 형제가 도끼 들고 울며 쫓아가니 범이 시신을 버리고 감.	
續-17	思用擔土																12세에 어미가 죽자 흉과 돌을 지어다가 무덤을 만듦.	
續-18	龜孫?癰	○	○														어려서 어미 죽자 후에 그 신주를 지극히 모셨으며, 아버와 계모를 잘 섬김. 아버의 종기를 빨아 닳게 하였으며, 아버 사후 시묘하면서도 계모를 정성껏 봉양함.	
續-19	叔威侍藥																역병으로 다른 식구들은 모두 피접하였으나 홀로 병든 어머니를 상분을 하며 간호함. 어미 죽고 아버가 재산을 나눠줄 때 거친 발과 늙은 종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형제들에게 양보함.	
續-20	閔文圖形																부모 사후 시묘 6년을 하고, 이후에 부모의 형상을 그려두고 정성껏 제를 올림.	

續-21	得仁感倭	○															어려서 아버 죽은 후 어미 봉양을 지극히 하다가 어미 사후 시묘를 하고, 그 곁에 아버 묘를 이장하여 3년을 시묘하여 도합 9년을 시묘함. 왜구가 이를 보고 감동하여 음식과 고기 등을 보내줌.	
續-22	友明純孝	○															어미를 지극히 봉양하다가, 어미 사후 시묘한 다음 사당을 지어 부모상을 모셔두고 지극히 제를 올림.	영의정 하연의 아들
續-23	慶延得鯉	○															추운 겨울에 병든 아버를 위해 잉어를 잡아 봉양하고, 부모 사후 6년을 시묘하며 부인과 제사를 지극히 모심.	경연 상사에 고을 백성이 제물을 거두어 바쳤으나 아내가 받지 않음.
續-24	趙錦獲鹿	○															어릴 때부터 부모를 지극히 섬겼으며 마을 사람을 초빙하여 현수함. 아버 사후 어미를 위해 현수 준비를 할 때 사슴이 집에 들어옴.	驛吏
續-25	徐萬得魚	○															매월 초면 음식을 장만하여 부모 봉양하였으며, 아버가 병이 들어 추운 겨울에 물고기를 먹고 싶어하니 하늘에 빌어 고기를 잡아 와 봉양하니 병이 나옴. 아버 사후 3년을 시묘함.	
續-26	應貞禱天																17세에 부모가 병이 들자 정성을 다하여 구원하며, 부모 대신 죽기를 하늘에 빌. 부모 사후 5년을 시묘하며 한 번도 집에 오지 않고 지냄.	
續-27	從孫斷指																11세에 단지하여 약에 섞어 아버지께 먹여 병을 낫게 함.	
續-28	得平居廬	○															눈 못보는 아버를 정성껏 봉양하였으며, 부모가 잇달아 죽자 6년을 시묘함. 부모 사후에도 사당에 생시처럼 예를 올림.	
續-29	鄭門世孝																부모 사후 합장하고 시묘할 때 직접 일을 처리하여 예를 다하였고, 벼슬길에 올라서도 초하루, 보름날엔 묘를 돌보았음. 연산군에게 죄없이 죽자 아들이 그를 슬퍼하여 밥을 먹지 아니하고 죽음.	이조참판 추증
續-30	自華盡孝	○															어려서부터 직접 밥을 지어 부모를 봉양하였고, 상을 당한 후에는 시묘를 삼. 성종 사후 삼년 거상한 것을 빌미로 연산군에게 죽게 됨.	연산군때 이홍미 벼슬, 문 받음.
續-31	有文服喪																연산군 때 상례를 법으로 제한하여 혼자 어미 상을 치르다가 죽음에 이르러 부인에게 자신을 어미 곁에 묻고 삼년 제를 자기가 살아 있을 적 같이 하라고 부탁하니 처가 대로 시행함.	자신이 못다 한 시묘를 부인에게 부탁하여 시행함
續	淑孫																부모상을 당하여 각각 3년 시	평생을 부모

-32	立祠																			모를 한 후에도 무덤 곁에 사당을 짓고 80세가 넘을 때까지 부모가 살아 있을 때까지 묘제를 올림.	를 위해 묘제를 시행함
續-33	繼周誠孝	○							○	○										어려서 아버지가 죽어 어미를 지극히 섬기다가 어미상을 당하여 삼년 시묘한 후 다시 아이비를 위해 시묘를 하였음. 이후 늙을 때까지도 제를 계속 하지 않았음.	
新續1-1	孫順得鐘	○															○			어미를 지극히 봉양하는데, 아이가 어미의 밥을 앓아 먹자 아이를 땅에 묻으려 땅을 파니 돌중이 나옴. 쌀 50섬을 왕으로부터 하사 받음.	신라시대인
新續1-2	聖覺割股	○																		어미를 정성껏 봉양하였는데, 어미가 병이 나자 다리살을 베어 올림. 어미 사후 상을 지극히 치름. 곡식 삼백석을 혜공왕으로부터 받음.	신라시대인
新續1-3	向德刲髀	○	○			○	○											○		부모가 굶주리고 병들어 죽게 되니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는데, 불기살을 베어 먹고, 중기를 빨아 냅게 함. 곡식 삼백석 하사 및 비석 건립.	신라시대인. 비석 건립. 지명의 유래 (孝家里)
新續1-4	知恩養	○																		어려서부터 남의 일을 하여 홀어미를 봉양하였는데 부친 집에 몸을 팔아 쌀 열섬을 구하여 음식을 드리니 어미가 그 맛이 입에는 좋으나 마음에 아프다고 말함. 왕이 곡식 5백석과 집을 내림.	신라시대인. 지명의 유래 (孝養里). 여자
新續1-5	順興畫像																	○		모 사후 회상을 그려서 제사를 모시며, 사울에 한 번씩 묘에 가서 제를 올리기를 생시처럼 함. 벼슬받음.	고려시대인
新續1-6	光廉木像																	○		모 사후 7일에 마른 나무 모양이 마치 모의 얼굴과 비슷함을 보고 방안에 모셔두고 모 생시처럼 봉양함.	고려시대인
新續1-7	咸富誠孝																	○		부 사후 침실에 빈소를 차리고 다섯달 동안 생시처럼 공양함.	고려시대인. 여자
新續1-8	車達棄妻	○																	○	차달 3형제가 함께 노모를 봉양하는데 차달의 처가 삼가지 않으니 내쳤으며, 동생 들은 장기를 들지 않고 일심으로 봉양함.	고려시대인. 역노
新續1-9	釋珠刻木																	○		일찍 부 사망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죽어 버렸는데, 나무에 부모의 얼굴을 새겨서 평시처럼 문안하며 봉양함.	고려시대인. 승려. 후히 포상(포상 내역 없음)
新續1-10	光臣廬墓																		○	지극한 효도로 모를 섬기고, 사후 3년 간 시묘를 함.	고려시대인.
新續1-11	尉貂割股																		○	부가 나쁜 병에 걸리니 다리 고기를 베어 올림으로써 낫게 함.	고려시대인 (본래 거란인).
新續1-12	徐稜天																		○	벼슬 하지 않고 모를 봉양하는데, 모가 목에 종기가 나서 개구리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달이라 구	고려시대인.

																					할 수 없어 울부짖으니 의원이 생개구리 없어도 약을 지어보겠다고 조제를 하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개구리가 떨어져 탕 가운데 들어가 어미 병이 낫게 됨.	
新續1-13	金遷 贖母	○																			몽고군에게 모와 동생이 잡혀갔는데 15세였던 김천이 잡혀간 사람들이 길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모가 주천로체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달려가 55냥에 모를 사서 돌아옴. 그 후 6년만에 동생도 돌아와서 형제가 평생토록 효도를 다함. 마을 사람들이 비를 세워 효자마을이라 새김.	고려시대인.
新續1-14	黃守 孝友	○																			일흔이 넘은 부모를 하루 세 때 좋은 음식으로 봉양하고 난 후 3형제가 함께 식사하기를 20여년을 계속함.	고려시대인.
新續1-15	夢句 露居							○													부가 물에 빠져 죽으니 시신을 장례 지내고 무덤 앞에서 밤낮을 울며 지내니 하루는 호랑이가 와서 울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음. 마을 사람들이 여막을 지어줌.	
新續1-16	漢文 斷指																				오른 손가락을 잘라 미친병에 걸린 모의 병을 치료함.	
新續1-17	宗文 執喪																				잇달아 부모상을 당하여 슬픔을 다하여 장례하고 시묘 3년을 살았음.	
新續1-18	尙仁 廬墓																				부모가 일찍 죽자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를 위해 시묘 3년을 살고, 예법에 맞게 제를 올렸으며, 스승 길재를 위해 십삼 3년을 함.	스승을 위한 心喪이 추가 됨.
新續1-19	伯宗 守墳																				어미 묘에서 3년 동안 시묘함.	
新續1-20	周環 居廬																				부 사후 家禮대로 장례를 치르고 3년을 시묘함.	비석을 세워 줌.
新續1-21	金閑 刻木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어 상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다가 어미가 죽으니 시묘를 삼년하고, 아버리를 이장하여 또 삼년을 시묘함. 이후 나무로 부모상을 새겨 무덤 사이에 두고 큰 농을 짜서 그 앞에 놓고 하룻밤 울부짖으니 큰 호랑이가 와서 울다가 김한이 요동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감.	제례시 호랑이 출현했으 나 해를 입히 지 않음.
新續1-22	蔡順 居廬																				어미 사후 아버 때문에 시묘를 못하다가 아버 사후에 어미를 이장하여 함께 모시고 6년을 시묘함.	
新續1-23	孝悌 感鳥																				어미 사후 시묘 살 때 까마귀가 사기잔을 물어가니 까마귀만 못한 자신의 효를 탓하였는데,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사흘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시묘시 까마 귀 이적이 있음.

																				했음. 과연 사흘만에 까마귀가 잔을 몰어다 다시 놓음.	
新續1-24	宗亮 廬墓							○												강원도 감사로 아버지상을 맞아 3년 시묘함.	
新續1-25	成吉 負母	○																		홍건적의 난에 74세의 나이에 도 어미를 업고 피난하였고, 죽을 때까지 정성껏 봉양함.	
新續1-26	德連 斷指			○																아버가 나쁜 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올리니 좋아짐.	
新續1-27	崔溢 誠孝								○											부모 사후에 집 가까운 동쪽에 장례하고 조석으로 음식을 올리기를 죽을 때까지 함.	
新續1-28	繼閔 廬墓								○											부모를 위해 6년간 시묘함.	
新續1-29	公美 守墳								○											어미 묘에서 3년 동안 시묘함.	
新續1-30	承雨 感倭	○																		왜적에 잡혀갔으나 항시 72세인 어미를 걱정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니 왜구가 감동하여 배와 양식을 마련하여 보내줌. 왜를 피하여 영산으로 옮겨 봉양하다가 어미 사후 삼년을 시묘함.	
新續1-31	朴暢 感倭								○											깊은 골짜기에서 시묘할 때 왜구가 왔는데, 연고를 들고 감동하여 돌아감. 정문과 비석 세움.	
新續1-32	世延 誠孝								○	○										아버이에게 효도하다가 부모 사후 예를 다하여 장례하고 시묘 3년을 살았는데, 시묘 후에 차마 집에 갈 수가 없어 2,3일을 울어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킴. 매일 새벽 사당에 가 뵈고, 삭망제를 그치지 않음.	
新續1-33	全謹 居廬	○																		9세에 아버 죽자 지극히 슬퍼하고, 어미를 극진히 섬기다가 어미가 죽자 유가 예법대로 장례하고 3년 시묘 후 다시 3년 복을 입음.	불도의 예법에 따르지 않고 공자의 예법을 따랐음을 명시함.
新續1-34	繼道 廬墓								○											어미 사후 3년 시묘할 때 해적이 성하므로 하루도 막을 떠나지 아니함.	
新續1-35	鄭槌 居廬								○											어미를 위해 3년 시묘함.	
新續1-36	玄夫 吮腫		○	○					○											간병을 지극히 하고 부모 사후 6년 동안 시묘함.	
新續1-37	安仁 廬墓									○										부모상을 당하여 6년, 이어서 조모상에 3년을 시묘하면서 한번도 집에 오지 않음.	
新續1-38	鄭包 居廬									○										부모상을 당하여 직접 흙을 젖서 무덤을 꾸미고, 6년간 시묘함.	
新續1-39	永伸 居廬									○										나이 70이 넘어 부모상을 당하여 6년 시묘하고, 그 아들도 부모상에 6년을 시묘함.	시묘한 아버지가 죽자 다시 그 아들이 시묘하는 사례.

新續1-67	爾音廬墓							○											부모를 위해 3년을 시묘함.	조선 태조 때 표창.
新續1-68	朴晉廬墓																		아버가 병들때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밤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옆에서 약시중을 들며 지극히 간호하니 아버가 위태로움에 처하여 시를 지어 칭찬함. 부 사후 3년을 시묘함.	조선 태조 때 신체행손 등의 정성간호한 사례.
新續1-69	文信守墳							○											아버 묘에서 3년간 시묘함.	조선 태조 때 표창.
新續1-70	永叔廬墓							○											어미 상사 후 죽만 먹으며 3년을 시묘함.	조선 태조 때 표창.
新續1-71	思誠孝感							○											나이 10세에 이미 자식의 합바를 다할 정도의 효자였는데, 모상을 당하여 이레 동안 물과 장을 먹지 아니하였고, 장례 후 시묘 3년을 할 때 계단에 풀이 나지 않고, 무덤 앞에 심은 잣나무를 멧돼지가 부딪쳐 시들게 하자 이를 통곡하니 다음날 호랑이가 멧돼지를 죽여다 놓음.	좌의정 맹사재, 이난시, 조선통정, 사정중 때 표창.
新續1-72	嗣宗孝養																		아버 상 때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고, 어미의 병이 중하니 벼슬을 버리고 달려가 항상 곁에서 극진히 간호함.	벼슬 버림. 태종 때 표창.
新續1-73	士興割股																		벼슬을 버리고 부모를 봉양하였는데, 어미가 병이 나니 다리 살을 베어 올려 낮게 하였음.	벼슬 버림. 태종 때 표창.
新續1-74	永復執喪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였으며, 부모 상을 당한 후에는 예를 한결같이 하여 3년 동안 죽만 먹으며 아침저녁으로 묘를 돌보았음.	조선 태종 때 표창.
新續1-75	希玉廬墓							○											아버 상을 당하고 6년을 시묘함.	조선 태종 때 표창.
新續1-76	近仁廬墓							○											부모를 위하여 3년을 시묘함.	조선 태종 때 표창.
新續1-77	權啞居墓							○											어미 사후 3년 시묘함.	조선 태종 때 표창.
新續1-78	安堵廬墓							○											어미 사후 홀로 여막에서 3년을 슬픔을 다함.	조선 태종 때 표창.
新續1-79	得溫廬墓							○											어미 사후 3년을 시묘함.	조선 태종 때 표창.
新續1-80	黃載居墓																		꿈에 어미가 병이 든 모습을 보고 즉시 벼슬을 던지고 낚향하였는데, 과연 병에 신음이 하는 어미를 간호하다가 어미가 죽으며 3년을 시묘함.	조선 태종 때 벼슬 버리고 간병. 시묘함.
新續1-81	林裴廬墓							○											부모 위해 6년을 시묘함.	조선 태종 때 표창.
新續1-82	李敢居墓							○											부모 위해 3년을 시묘함.	조선 세종 때 표창.

新續1-83	牟恂腫	○ ○													처음에는 어미 증기를 빨아 낮게 하고, 뒤에는 상분을 하며 병을 간호함.	조선 세종 때 표창.
新續1-84	趙珩廬墓							○							모 사후 3년을 시묘하고, 조부 사후 또 3년을 시묘함.	조선 세종 때 표창. 加一資
新續1-85	朴幹負土							○							아버지 가장 3년시에 새벽, 저녁으로 흙을 저다가 무덤을 조성하고, 제를 올리며 시묘함.	조선 세종 때 표창.
新續1-86	孝良斷指		○												15세에 아버지가 몸쓸병에 걸리자 왼손 무명지를 단지하여 약에 섞어 먹이니 병이 좋아짐.	조선 세종 때 표창.
新續1-87	致安居廬							○							조부상을 당하여 병든 부친이 시묘를 하며, 14세인 아들이 대신하기를 청하여 3년을 시묘함.	조선 세종 때 표창.
新續1-88	日宣廬墓							○							부모상을 당하여 모두 3년간 씩 시묘를 함.	조선 세종 때 표창.
新續1-89	孝終居墓							○							12세에 부친이 죽으니 모친의 만류도 듣지 않고 3년 시묘함.	조선 세종 때 표창.
新續1-90	朴辰剖米			○				○							가난한 중에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부친을 봉양하였는데, 한겨울에 부친이 병이 나서 회를 먹고 싶어 하자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아 회를 올림. 부친 사후 3년 동안 시묘함.	조선 세종 때 표창.
新續2-1	金氏自縊				○										아버지가 병들자 효성이 지극했던 딸이 하늘에 맹세하기를 하늘이 돕지 않으면 스스로 죽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죽자 동생에게 어미 봉양을 부탁하며 자신은 죽어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말하고 목을 매어 죽음.	정종 때 표창. 사후 세 계에서 효도하기 위해 자진한 사녀.
新續2-2	玉山嘗糞		○					○							어미가 병들자 상분하여 병세를 살피고, 어미 사후에 가례에 따라 상을 치렀으며, 삼년 시묘 후에도 삭망제를 꾸준히 지냄.	정종 때 표창. 선전관 직책이었다가 賞職 받음.
新續2-3	有誠圖形							○							부모가 일시에 죽으니 50세에 6년간 시묘를 하였으며, 그 후에도 부모상을 벽에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제를 올림.	정종 때 표창. 奉事 職 賞職 받음.
新續2-4	朴琦割股		○												어미가 몸쓸병에 걸리자 다리살을 베어 국에 넣어 올려서 병이 좋아짐.	정종 때 표창.
新續2-5	永澄居廬							○							아버지 사후에 흙을 저다 무덤을 꾸미고 3년 시묘한 후에도 여막 곁에 살며 소복을 입고 삭망에 제를 올림.	정종 때 표창.
新續2-6	白山擊虎							○							16세 때 아버지가 범에게 잡힌 것을 보고 낮으로 쳐서 아버지를 구함.	정종 때 표창.
新續2-7	安珪入火												○		집에서 불이 났는데, 어미가 남편의 신주를 안고 나오다가 없어지니 불길 속에 뛰어들어 어미 업고 신주를 안고 나오니 머리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음.	정종 때 표창. 神主와 불 함께 구한 사례.

新續2-8	金門孝世																				김맹방이 아버가 심한 중기를 앓자 다리 살을 베어 술에 타 였 올리니 병이 나아 정려 되었 고, 그 아들 호인이 어미가 중 기를 앓자 다리 살을 베어 밀 가루에 섞어 환을 지어 올림 으으로써 병을 낫게 하여 상직 됨.	정종 때 표창. 부자가 효행으로 표창된 사례.
新續2-9	孝孫守墳																				부모가 모두 죽으니 중신토록 시묘함.	정종 때 표창. 시묘로 중신했던 사례.
新續2-10	云孫斷指																				아버가 목쓸병에 걸리자 단지 하여 약에 타서 올려 병이 나 음.	정종 때 표창.
新續2-11	孟根割股																				아버가 중기를 앓으니 다리 살을 베어 약에 타 올려 낫게 함.	정종 때 표창.
新續2-12	戒山割股																				어미가 뱃병이 있어 오래 고 생하니 다리 살을 베어 약에 타 올려 낫게 함.	정종 때 표창.
新續2-13	錫寶廬墓																				부모를 위해 3년 시묘함.	정종 때 표창.
新續2-14	得信斷指																				아버가 목쓸병에 걸리자 단지 하여 약에 타서 올려 병이 나 음.	정종 때 표창.
新續2-15	佐明廬墓																				잇달아 부모 사망하자 7년을 시묘하며 일제 집에 오지 아 함.	정종 때 표창.
新續2-16	得妃斷指																				아버가 미친병에 걸리니 산 사람의 뼈와 살이 좋다는 말 잘 을 듣고 오른손 무명지를 잘 라 약으로 쓰니 병이 나음.	정종 때 표창.
新續2-17	林載廬墓																				부모가 모두 오래된 병을 앓 고 있어 조석으로 간호를 하 슬 었는데, 결국 죽자 지극히 슬 피하며 6년을 시묘함.	정종 때 표창.
新續2-18	蔡宏居墓																				아버 상을 당하여 술을 먹지 않 고, 3년 시묘하며 집에 오지 아니 함.	監務
新續2-19	小河斷指																				일찍 아버 죽고, 어미가 뱃병 을 앓는데, 꿈에 아버가 산사 람의 뼈를 얻으면 고칠 수 있 다고 하자, 무명지를 잘라 술 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음.	參奉
新續2-20	柳砲廬墓																				어미 상을 당하여 3년 시묘함.	縣令
新續2-21	許匡廬墓																				부모 위해 3년 시묘함.	直講
新續2-22	朴矩廬墓																				어미 상을 당하여 3년 시묘하 며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음.	都摠制
新續2-23	楊培居墓																				부모 위해 3년 시묘함.	兵馬使
新續2-24	朴堧廬墓																				어미 상에 법도에 맞게 장례 를 치르고 근신하며 3년 시묘 를 했고, 아버 상 때도 같이 함.	大提學

新續2-25	桂逵 歸養	○																80세 계모를 위해 감참판벼슬을 내놓고 봉양함.	용안현 효자 李甫의 손자
新續2-26	朴善 負石							○										나이 13세에 아버가 죽으니 시묘하며 정성을 다하고 돌을 지어다 무덤가에 담을 쌓음.	
新續2-27	康寧 廬墓							○										어미 사후 시묘 3년을 하며 하루에 죽 한번만 먹음.	司正
新續2-28	朴胄 居墓							○										부모를 위해 3년 시묘함.	郡事
新續2-29	李申 負土							○										아버 상을 치름에 밤에도 띠를 풀지 않았으며, 직접 흙을 저다가 무덤을 만들고 시묘 3녀을 함.	持平
新續2-30	朴尋 廬墓							○										부모상에 3년을 시묘하며 한 번도 집에 오지 아니함.	縣令
新續2-31	始明 居廬							○										부모상에 시묘함에 제를 준비하는 부역을 두어 조석으로 직접 제를 올리고, 출입시는 반드시 고향함.	사후에도 생 시와 같은 양을 함. 賞 職됨.
新續2-32	林氏 活姑																	집에 밤중에 불이 났는데, 병든 시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하니 업고서 화를 면하게 함.	며느리가 화 재에서 시어 미를 구한 사 례.
新續2-33	林鷺 居廬							○										아버 사후 3년 시묘를 하며 치아를 보이지 아니함.	監察
新續2-34	盧珣 禱天		○		○													어려서 아버가 죽고 조부에게서 자랐는데, 조부 나이 60에 병으로 거의 죽게 되자 약을 먼저 맛보고, 복두성에 빌고, 상분을 하는 등의 정성을 기울이니 병이 나음.	進士
新續2-35	李瑤 廬墓							○										어미 사후 시묘 3년을 함.	正憲大夫
新續2-36	忠老 廬墓							○										부모상에 6년을 시묘함.	將仕郎. 賞職 됨.
新續2-37	梁根 斷指																	나이 13세에 아버가 몸쓸병에 걸리니 손가락을 베어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음.	
新續2-38	永孫 廬墓							○										아버 사후 3년 시묘를 하며 직접 찬을 장만하여 제를 올림.	
新續2-39	趙漢 負土							○										아버 사후 흙을 저서 무덤을 만들고 3년을 시묘하였으며, 거친 밥에 불만 먹고 동구 밖에 나오지 않음.	
新續2-40	趙瑜 負土							○										어려서 어미가 죽자 3년을 예에 어긋남이 없이 시묘하고, 아버 상을 만나 몸소 흙을 저서 어미 무덤을 같은 곳에 이장하고 3년 시묘하였으며, 상을 마치고 다시 어미를 위해 3년을 시묘함.	9년을 시묘 한 사례.
新續2-41	吳俊 吮腫							○										아버가 종기를 앓으니 그 종기를 빨았는데, 병이 더욱 심하매 상분을 하였음. 아버 사	

																			후 예를 다하여 장례함.	
新續2-42	時興 盧墓	○																	세 살 때 아버지가 죽으니 어미를 지극히 섬기고, 어미가 상후를 당하여 3년 시묘를 한 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죽어 시묘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여 이어서 3년을 더 시묘를 함.	어려서 못한 나중 사례.
新續2-43	安澤 負石																		아버지 사후에 직접 흙을 저서 무덤을 만들고 3년을 시묘하며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림.	
新續2-44	洪簡 割脛																		어미가 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니 다리 살을 베어 면에 섞어 올리니 병이 나음.	
新續2-45	克恭 逐虎																		아버지 산골에서 보리 수확을 하다가 법에게 잡히니 불과 나이 10세임에도 형수와 더불어 큰소리를 질러 쫓아서 아버지가 살게 됨.	
新續2-46	弼成 孝感	○	○																어미가 첫 중기를 앓자 빨아서 낮게 하였고, 아버 오랜 병으로 백약이 효험이 없는데, 박쥐로 고칠 수 있다는 의원의 말에 따라 박쥐를 구하는데, 겨울이어서 박쥐를 구할 수 없어서 하늘을 향해 울 부짖어 구하니 박쥐가 절로 찾아와 아버 병이 좋아졌음. 후에 또 병이 심해지매 상분하며 간병하였고, 사후에는 예를 다하여 장례를 치름.	賞職됨.
新續2-47	千年 斷指																		어미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 하여 술에 타서 올리니 병이 좋아졌는데, 후에 병이 다시 도져 전과 같이 하니 병이 완전히 나음. 어미 사후 여막을 짓고 시묘함에 조석으로 제를 올리고는 반드시 아버를 뵈고 돌아감.	
新續2-48	文郎 斷指																		아버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 하여 술에 타서 올려 병이 나음.	
新續2-49	成幹 吮疽	○	○																어려서 어미가 등창을 앓자 빨아서 좋아지게 했고, 아버가 오랜 병으로 와병하니 옷을 벗지 않고 밤낮으로 2년을 간병함. 병이 심해지매 상분을 하였고, 상을 당하자 죽만 먹으며 3년을 추모함.	시묘는 하지 않았으면서 3년을 추모한 사례.
新續2-50	世貞 吮癰	○																	아버지 중기를 앓자 이를 빨아 낮게 하였고, 상을 당하자 3년을 시묘하였는데, 후에 어미 상을 당하여 슬픔으로 쇠약해져 병들어 죽음.	상을 당한 슬픔에 병들어 죽은 사례.
新續2-51	季蕃 誠孝	○																	지극한 효심을 지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문안드림에 소홀함이 없었고, 아내와 더불어 밤에도 공양함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어미 사후에는 예를 다하여 장례하고 탈상하고서는 삭망제를 행함.	시묘는 하지 않았으나 정성으로 부모를 공양한 사례. 賞職됨.
新續2	由孝																		아버지 무덤에서 시묘할 때 어	

新續2-69	官明 逵虎																	어미가 밤에 범에게 잡혀갔는데, 큰 비가 내려 천지가 어두워 이웃 사람들이 두려움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13세인 누이와 9세인 조카딸과 더불어 오른손에 도끼 잡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범의 뒤를 쫓아가 범을 꾸짖고 어미의 신을 빼앗아 돌아옴.	호환을 당한 어미의 찾아오는 사레.
新續2-70	閔孫 追虎																	17세에 어미와 방아 찧다가 범이 어미를 잡아 가니 왼손으로 어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돌을 던지며 5리 남짓을 따라 가니 이웃이 듣고 와 구하여 범이 버리고 갔으나 어미는 밤중쯤 죽음.	호환에서 어 미를 구하는 사레.
新續2-71	由性 廬墓																	3년을 시묘하고 하루 한 번만 식사를 함.	
新續2-72	敬全 斷指																	어미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新續2-73	李植 誠孝																	부모가 전염병에 걸려 모두 죽자 조석에 정성을 다하여 6년 동안 제를 올림.	시묘는 하지 않고 집에서 제를 올리며 추모한 사레.
新續2-74	信還 居廬																	어버이상을 가례에 따라 치르고 3년을 시묘함.	
新續2-75	文尙 廬墓																	부모상에 6년을 시묘함.	
新續2-76	宋滔 居廬																	부모상에 6년을 시묘하고, 浮屠法을 쓰지 아니함.	불교적 예법 에 따르지 않 음을 揭示함.
新續2-77	永嶸 廬墓																	아비를 지극히 섬겼으며, 아비 사후에 시묘 3년을 한 후에도 삭망제를 지속함.	
新續2-78	三子 廬墓																	박희남 3형제가 모두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아비 사후 3년을 시묘하고 이후에도 흰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삭망제를 올림.	형제가 함께 시묘한 사레.
新續2-79	調元 斫指																	13세에 아버지가 미친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 먹이니 나옴.	
新續2-80	崇孝 執喪																	어미상을 당하여 당시에 短喪法이 엄했으나 복을 입어 3년상을 마침.	법에 어긋나 도 3년상을 표 창한 사레.
新續2-81	李閔 廬墓																	아버지에 3년을 시묘함.	
新續2-82	李甫 割指																	아버지가 몸쓸병에 걸려 약이 효험이 없고 죽을 지경에 이르자 울며 간구하던니 꿈에 산 사람 뼈로 나를 수 있다는 말을 증으로부터 듣고 단지하여 약을 만들어 올리니 병이 나옴.	桂遂歸養(新 續2-25) 李 桂遂의 조부.
新續2	申休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상분하여	소변을 빨아

-83	嘗糞															병세를 진단하였고 소변을 못 보자 뺏아 내니 병이 나옴. 상상을 당하여 지극한 예를 다함.	내는 행위가 첨가된 사례.
新續2-84	約之感火								○		○					17세에 아버상을 당하여 3년 시묘를 하였는데 막대를 짚고 서야 일어날 정도였고, 어미 상에 다시 3년을 시묘를 하는데, 들불이 나서 장차 여막이 이르려 하자 크게 부르짖어 우니 불이 저절로 꺼짐.	시묘시 불이 저절로 꺼지는 사례.
新續2-85	壽鐵斷指													○		아버가 미친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먹여 병이 좋아짐.	
新續2-86	貴千斷指													○		아버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국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新續2-87	自廉吮疽		○	○										○		어미상을 마치고도 조석제를 계속 행하였으며, 아버가 등창으로 고생하니 종기를 빨고 상분함.	折衝將軍을 제수받음.
新續2-88	貴珍斷指														○	9세에 아버가 몸쓸병을 앓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新續2-89	田禮廬墓													○	○	부모상을 당하여 모두 3년간 씩 시묘를 한 후에도 무덤가에 살며 조석으로 제 올리기를 지속함.	
新續3-1	不受廬墓													○		부모를 위해 6년을 시묘함.	
新續3-2	節山居廬													○		어미를 위하여 3년을 시묘함.	
新續3-3	元絢守喪													○		부모 시묘를 6년 하면서 5리 길인 집에 한 번도 왕래하지 않음.	
新續3-4	潘滯居廬													○		아버 위해 3년 시묘함.	
新續3-5	珊瑚斷指														○	8세 때 아버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술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8세에 단지한 사례.
新續3-6	成茂得魚														○	어미가 병에 걸려 추위에 생고기를 먹고 싶어하니 아우 셋과 더불어 못과 내를 헤매며 고기를 잡고자 했는데 갑자기 얼음이 풀려 고기가 튀어 나오므로 이를 잡아 올리니 병이 나옴. 자손을 복호하였고, 막내 아우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함.	효자에게 이적이 일어나고, 하늘이 복을 내림을 보이는 사례.
新續3-7	仲民冒火													○		어미가 75세에 중민의 딸을 안고 자는데 집에 불이 나자 불길에 뛰어들어 어미는 겨우 구하였으나 딸은 죽었음.	濟用直長에 제수됨.
新續3-8	禮孫溺水													○		아버가 물에 빠지니 달려들어 구하고 자신은 힘이 다하여 죽음.	
新續3-9	允孫扼虎													○		아버가 범에게 물려가니 쫓아가 왼손으로 범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입을 막고 쳐 죽여 아버가 살아남.	호환에서 아버지를 구한 사례.

新續3-10	芑大負土																								어려서 아버 죽고 어미를 지극히 섬기다가 어머니가 죽으니 직접 흙과 돌을 날라 무덤만 들어 3년을 시묘하고, 이어 아버지 묘를 이장하여 합장하고 다시 3년을 시묘함.	
新續3-11	毛知斷指		○																						아버가 몹쓸병에 걸리니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림.	단지의 효험이 기록되지 않은 사례.
新續3-12	劉山斷指		○																						어미가 몹쓸병에 걸리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新續3-13	益涇嘗糞		○																						어미가 병에 걸리니 상분하며 병세를 가늠함.	賞職됨.
新續3-14	洩施斷指		○																						어미가 미친병에 걸리니 왼손 소지를 베어 올리니 병이 나옴.	
新續3-15	股台斷指		○																						9세 때 아버가 몹쓸병에 걸리자 스스로 단지하여 약에 풀어 마시게 하니 병이 나옴.	여자. 9세에 단지한 사례.
新續3-16	敬非斷指		○																						아버가 병에 걸린 지 3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 단지하여 국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新續3-17	卜台斫指		○																						아버가 몹쓸병에 걸렸는데, 산 사람의 뼈로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2세에 왼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서 올리니 아버 병이 나옴.	여자.
新續3-18	良里加斷指		○																						아버가 몹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을 만들어 올리니 병이 나옴.	여자.
新續3-19	千年活母																								어미 섬기기를 지극히 하였는데, 큰비에 집이 떠나려 갈 때 처자를 버려두고 어미를 업어 구함.	賞布함.
新續3-20	金性居廬																								어려서 아버가 죽어 거상을 못하다가 어머니 죽자 6년을 시묘함.	賞職함.
新續3-21	師點廬墓																								아버 죽자 시묘 3년을 하며 동구 밖에 나가지 않음.	
新續3-22	從非設堂																								아버이 섬김에 효를 다하였는데, 상을 당하매 影堂을 지어 조석으로 산 사람 공양하듯 함.	여자.
新續3-23	四月斷指		○																						19세에 어머니 미친병에 걸려 해가 지나자 아버지께 버린 바가 되었는데, 산 사람의 뼈가 좋다는 말을 듣고 단지하여 올리니 병이 나옴.	여자. '復戶'를 '復家'로 표기함.
新續3-24	恩時斫指		○																						21세 때 아버가 몹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술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여자.
新續3-25	得春居廬																								부모 위해 6년을 시묘함.	
新續3-26	金桴割股		○																						어미가 종기를 앓아 기절하니 두 번에 걸쳐 다리 살을 베어	

															피를 받아 술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新續3 -27	尹奕 孝親	○													집이 비록 가난하였으나 반드시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받들고, 지극한 슬픔으로 예를 다함.	
新續3 -28	仲堅 廬墓					○									아버지 위하여 시묘함.	시묘 했수는 밝히지 않음.
新續3 -29	陳侃 吮淋	○													14세에 아버지가 임질에 걸려 죽게 되어 방약이 듣지 않자 업으로 빠니 돌이 나오고 병이 나옴.	
新續3 -30	徐文 居廬					○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고 성장한 후 어머니가 죽으니 3년을 시묘한 다음, 아버지 묘를 어머니 묘 옆에 이장하여 다시 3년을 시묘함.	追服의 사례.
新續3 -31	卯同 斷指		○												어머니 병을 위해 단지함.	私奴 '알동(卯乙同)'. 병의 종류, 효험 여부 기록 없음.
新續3 -32	李同 斷指		○												아버지가 몸쓸병으로 오래 고생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官奴
新續3 -33	末山 廬墓					○									아버지가 병에 걸리니 밤낮 결에서 수발을 하였고 상을 당하매 형들에게 일을 미루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시묘를 사는데, 어머니가 다른 아들에게는 편하지 않게 생각하여 여막으로 오니 시묘와 어머니 봉양을 한결같이 하였음. 어머니 상을 당하자 부인을 시묘가 끝날 때까지 친정에 가 있도록 함.	私奴
新續3 -34	內隱 伊救父					○									도적이 집에 들어 사람을 겁살하는데, 아버지를 몸으로 가려 스스로 해를 당하여 함께 살아남.	私婢 '논이(內隱伊)'.
新續3 -35	益漸 感寇										○				어머니 상을 당하여 빈소 곁에 엎드려 海寇가 달려들어 도피하지 않으니 도적이 감동하여 닭과 개도 해하지 않음.	지극한 효심에 도적이 감동한 사례.
新續3 -36	承得 守墓					○									아버지 상을 치름에 가례를 좇고, 불사를 아니하고 3년을 무덤가를 지킴.	佛法을 따르지 않았음을 摘示한 사례.
新續3 -37	彦華 守喪					○									부모상을 당하여 3년을 허리 띠를 벗지 않고 죽을 먹으며 한번도 집에 가지 않음.	牧使
新續3 -38	元貞 居廬							○	○						평소 부모 섬김을 지극히 하였으며, 부모상에 6년 시묘함에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고, 거상 후에도 80세에 이를 때까지 눈비에 관계치 않고 묘에 찾아가 절함.	承仕郎. 평생 동안 매일 부모 모를 돌봄.
新續3 -39	九徐 當刃	○					○								평소 부모 섬김을 지극히 하였으며, 아버지상을 당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빈소를 지키다가 왜적이 쳐들어 와 마을 사람이 모두 피신하였으나 빈소	監務.

																		결에서 어미를 안고 슬피 울며 차라리 함께 죽겠다 부르며 죽었는데, 도적이 이르러 어미를 죽이려 하니 몸으로 칼날을 막아 등과 팔이 다 헤어져도 슬피 울며 떠나지 않으니, 왜적이 감동하여 물러나서 모자가 함께 살게 됨.	
新續3-40	徐鷺居廬																	어렸을 때 윤은보와 더불어 장지도에게 배웠는데, 스승이 죽으니 함께 시묘하다가 은보가 부모 상사로 가게 되어 혼자 3년을 마쳤고, 부모 죽음에 시묘살기를 전후 6년을 하였음.	스승과 부모의 사후에 시묘한 사례. '殷保感鳥(三綱行實圖 孝子35)' 관련 사례.
新續3-41	金선天 感天																	어미가 왜적에게 죽으니 백골을 기두어 산과 하늘에 고하고 통곡하며 '만일 내 어미의 뼈일 것이면 마땅히 변색하리라.' 하니, 말이 그치지 않아서 백골이 푸르게 변하고, 하늘에 짙은 구름이 끼어 큰 비가 내림. 조정이 칙서를 내려 사당을 지어 제사를 계속 올림.	어미의 유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적. 조정이 청문을 대신 사당을 지어 제를 올린 사례.
新續3-42	李氏 感賊																	불한당이 집에 난입하여 재물을 가져가며 아버지를 죽이려 하니 몸으로 가리고 슬피 울며 대신 죽겠다고 비니, 도적이 감동하여 그대로 감.	여자.
新續3-43	田氏 躍魚																	아버이를 정성스럽게 모셨으며, 장례를 예로써 모셨는데, 하루는 제에 쓸 찬이 없어서 얼음이 언 냇물에 나아가 '정성이 없다면 얼음이 꺼져 빠져 죽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에 쓸 고기를 주소서.' 하니, 얼음이 터지고 물고기가 튀어나와 두 그릇에 가득 참. 삼년상을 마치고 다시 6년간 복을 입으며 삭망제를 변함없이 함.	여자. 지극한 효성이 이적을 일으킨 사례.
新續3-44	金稱廬墓																	20세에 어미상을, 60세에 아버지상을 당하여 모두 시묘했는데, 죽을 먹으며 한 번도 집에 오지 않고 조식 제물을 직접 준비하였고, 탈상 후에도 사당에 새벽 문안을 변함없이 지속함.	
新續3-45	朴薰居廬																	어미상에 장례와 제사를 가례에 따라 하고, 3년 시묘할 때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사당에 배례함. 어릴 적 경자년에 어미상을 당하여 시묘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성장 후 다시 경자년을 맞아 거상하고 시묘 살며 제사하기를 초상처럼 하였음.	어려서 못한 시묘를 나중에 행한 사례.
新續3-46	禹滌守墓																	부모 사후에 무덤 곁에 살며 띠를 풀지 않고 합부로 집에 오지 않으며 3년을 마침.	
新續3-47	承曾廬墓																	효도와 동생 사랑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부모상에 3년 시묘	

																	할 때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으며 슬픔과 정성을 지극히 하지 못함.	
新續3-48	朴忠廬墓							○									아버지 병 구완에 정성을 다하고 어머니상을 당하며 슬픔을 정도에 넘을 정도로 하며 3년 시묘 후에도 조석으로 제를 하니 아버지가 감격하여 종신토록 치를 들이지 아니함.	
新續3-49	舜芳斷指		○														13세에 아버지가 악질에 걸리니 단지를 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음.	
新續3-50	守宗誠孝							○									아버지를 효성스럽게 섬기고 잇달아 어머니상을 당하여 지극히 슬퍼하며 직접 제의 물건을 준비하고 나물과 과실을 먹지 아니함.	
新續3-51	良全負屍							○									아버지 전쟁터에서 죽으니 시신을 업고 와서 장례하고 3년을 시묘함.	
新續3-52	文彬斷指		○														아버지가 악질을 얻어 죽게 되니 단지하여 올려서 병을 낫게 함.	
新續3-53	漢伯居廬							○									부모 사후에 시묘 3년을 할 때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음.	
新續3-54	應璧居廬							○									아버지를 당하여 3년을 시묘함.	
新續3-55	天龍赴火							○									집에 불이 나서 어머니가 불 속에 있음을 보고 구하려 뛰어 들었다가 함께 죽음.	
新續3-56	智寶抱屍							○									아버지 겨울에 얇은 얼음 속의 고기를 잡다가 빠지니 10세의 나이에 뛰어들어 함께 죽음.	
新續3-57	季欽得鯉							○									아버지 병에 들어 생고기를 먹기 원하니 물가에 가서 올려 다니다가 잉어를 얻어서 드렸고, 아버 사후에 6년을 시묘함.	
新續3-58	世傑割股							○									어머니가 병이 들자 다리 살을 베어 올리니 병이 나음.	
新續3-59	石鳳孝養	○															두 아우를 데리고 부모를 지극히 봉양하다가 어머니상을 당하여 설움과 사모함을 다하였는데, 삭망에는 반드시 술과 밥으로 아버지를 봉양하니 사람들이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옷을 벗어 주어 그 비용에 쓸 수 있도록 함.	
新續3-60	良翰居廬							○									아버지 사후 시묘 3년을 지극히 하여 뼈만 남을 정도가 됨.	
新續3-61	漢弼居廬		○														아버지 천식을 앓아 3년을 약수발을 하며 한 번도 집에 가지 않고 상분도 하였는데, 상을 당하니 시묘함.	
新續3-62	湯輔守喪							○									아버지와 조부모가 죽으니 술 일만 먹으며 애도하였으며, 정대왕(인종)상에 3년을 소복을 입음.	임금상에 예사를 행함.

新續3-63	貴千斷指																		13세에 아버지가 악질로 죽게 되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新續3-64	今時養舅	○																	남편이 죽으니 시아미를 섬겨 종신토록 효양함.	여자. 시아버지에 대한 효행 사례.
新續3-65	孟連斷指	○		○															가난이 심하야 밤이면 갖을 만들어 부모를 봉양했는데, 어미가 병에 걸리니 단지하여 올리니 병세가 나아져 두 해를 더 삶.	
新續3-66	世恪斷指			○															아버지 병에 단지하여 올리니 병이 나옴.	
新續3-67	命仲斷指			○															아버지 병에 단지하여 올리니 병이 나옴.	私奴
新續3-68	莫同斷指			○															어미 병을 위해 단지하여 효험을 얻음.	私奴
新續3-69	直衡守喪								○										연산군 때 단상법이 엄한 시절 부모가 잇달아 죽으니 6년을 복을 입고 소금과 나물을 먹지 아니함.	
新續3-70	克禮割股			○															어미가 모진 풍기를 앓으니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연산군 때 표창됨.
新續3-71	宋氏斷指			○															19세에 어미가 몹쓸병에 걸려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여성. 중종 때 표창됨.
新續3-72	仁智至孝	○							○										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가 섬김에 어긋남이 없었는데, 아버지상에 期年, 어미상에 3년을 죽만 먹고 나물과 과일 등을 먹지 아니하였고, 새벽과 저녁에 사당에 비고 삭망에 제하기를 철저히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니 관대하고 사당에 뵈고 침실에서 앉아서 죽음.	敬差官. 중종 때 표창됨.
新續3-73	斯立斷指	○		○					○										어미의 병이 중하니 단지하여 5년을 더 살게 하였으며, 혼자 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매일 술과 고기로 사람들을 모아 즐기도록 하였음. 아버지의 병이 중하자 또 단지하여 올렸고, 어미상을 맞자 지극한 예를 평생 다했으며, 아버지 생시에 수박을 먹고 싶어했으나 못 얻음을 한스럽게 생각하여 평생 수박을 먹지 아니함.	郡守. 중종 때 표상됨. 단지를 두 번 행한 사례.
新續3-74	士忱斷指			○															16세에 어미 병을 위해 단지하여 낮게함.	縣監. 중종 때 표창됨.
新續3-75	世貞孝友	○																	항상 곁에서 어미 섬김을 지극히 행함. 형이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의원이 뱀을 먹으라 하니 세정이 먼저 맛을 보고 올리니 병이 나옴. 언양현감에 제수됨.	중종 때 표의양지실행하금이 정분의 이름을 내리고 뽕아 버슬을 내린 사례.
新續3-76	宋文嘗糞	○		○					○										12세에 아버지상을 당하여 장례와 제사를 예로 다하였으며,	通仕郎. 중종 때 표창.

															어미를 봉양을 지극히 하다가 어머니가 병이 심해지매 상분을 하였고, 상을 당하자 시묘 3년을 정성스럽게 한 다음 다시 아버지를 위해 초상처럼 하였음. 재산을 나눌 때 막냈으니 여중의 수가 적으니 자신의 것을 줌.	지효를 실현하였으며, 우애사례.
新續3-77	彦謙 馴虎														일찍 아버가 죽으니 자라서 주복을 하였고, 어머니가 죽으니 3년 동안 집 출입을 않고 시묘하였는데, 범 돌이 집 뒤에 와서 체 올리고 남은 음식을 먹음. 눈에 든 도적을 범이 쫓았으며, 물 길기가 힘들어 기도하니, 샘물이 솟아나고, 체에 올린 술이 다 마르는 이적이 일어남.	현령. 중종시 묘시적이 발생한 사례.
新續3-78	礪成 吮淋		○	○											아버가 나이 70을 넘어 石淋을 얻어 사흘 동안 기절하니 뺏아서 돌을 빼내어 다시 살아났으며,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상분을 하였고, 부모상을 당하며 6년을 시묘함.	主簿. 중종 때 표창.
新續3-79	金質 守墓														아버상을 당하여 3년을 시묘함.	參奉. 중종 때 표창.
新續3-80	元良 孝友														3세 때 부모를 잃자 자라서 6년 동안 상을 입었으며, 형이瘡疾로 죽게 되니 큰 뱀을 회떠서 먹여 낫게 함.	禦侮將軍. 중종 때 효友형제드러난 사례.
新續3-81	伯和 廬墓														72세에 부모상을 당하여 3년을 시묘하였음.	禦侮將軍. 중종 때 표창됨.
新續3-82	世麟 居廬														어미상에 시묘를 지극히 하였고, 인종 승하시 3년을 애도함.	중종 때 표창됨. 예를 행한 사례.
新續3-83	姜瑞 誠孝														소학에 근거하여 몸가짐과 효성을 다하였으며, 서모에게도 소홀함이 없이 하였고, 간병시에는 정성을 다하였는데, 상을 당하여 슬픔을 못이기어 구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됨.	進士. 중종 소상 때 표창. 학이 효와 배탕이 되는 바를 보인 사례.
新續3-84	朴蕃 得鴨														아버가 병에 들어 오리를 먹기 원하니 물가에 가서 울며 구하니 문득 죽은 오리가 떠올라 가져다 공양하였으며, 아버 사후에 3년을 시묘함.	生員. 중종 때 표창.
新續3-85	世直 廬墓														10세에 어미 잃고 3년을 애도하였으며, 아버 죽자 시묘함에 죽만 먹었음.	중종 때 賞職됨.
新續3-86	齡老 執喪														계모상에 예를 다하였으며 단상법이 엄하던 연산조에 아버 상을 당하여 예에 맞게 상을 치름.	중종 때 표창됨.
新續3-87	效愼 孝養	○													부모 봉양을 극진히 하였으며, 아내가 화순하지 못할 경우를 염려하여 부모상 6년을 마치고 59세에야 장가 들었음.	중종 때 표창됨. 장가 들지 않고 부모 봉양, 형제

																				며, 형제가 죽으니 心喪 3년을 함.	에도 예를 다 한 사례.
新續3 -88	尙仁 刳股																			15세에 어미가 병으로 기절하 니 널리 약을 구하였는데 의 원에게 자식의 피가 좋다는 말을 듣고 다리를 베어 피를 내어 올리니 즉시 좋아졌음. 후에 다시 병이 도지니 또 같 이 행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3 -89	舜弼 守墓																			어미상에 3년 시묘하며 한 번 도 집에 가지 아니 함.	忠義衛. 중종 때 표창됨.
新續4 -1	柳氏 斷指																			14세에 아버가 죽으니 조석으 로 직접 제를 준비하였고, 어 미가 몹쓸병에 걸리자 단지하 여 불에 실라 올리니 병이 나 음.	여자. 중종 때 표창됨.
新續4 -2	吉氏 入火																			집에 불이 나니 불 속에 뛰어 들어 시어미를 업고 나오다 죽음.	여자. 중종 때 표창됨.
新續4 -3	李植 割股																			어미가 병에 걸려 오래 고생 하니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음.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4	漢孫 斷指																			아버가 몹쓸병에 걸리자 단지 하여 약에 타서 올려 병이 나 음.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5	梅臣 至行																			조부와 아버와 형이 모두 충 효로 정표받은 집안에서 자라 났으며, 10세 때 아버가 비명 에 죽으니 감자년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림. 어미 섬 김에 정성을 다하다가 상을 당하니 3년 시묘 살이를 지극 히 하였고 무덤 돌보기를 조 석으로 변함없이 행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6	石明 追虎																			15세에 아버를 따라 산에 들 어갔다가 아버가 범에 잡히니 칼을 휘둘러 범을 쫓아 호환 을 면하게 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7	碩汀 割腿																			어미 병에 다리뼈를 베어 들 게 하여 낫게 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8	淑俞 割股																			어미가 악질에 걸리자 다리뼈 를 베어 술에 타 올려 낫게 하 였는데, 후에 다시 병이 도지 니 단지를 하여 올려 영원히 낫게 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9	守精 廬墓																			어미 사후에 시묘하고 죽을 먹으며 상사를 마쳤는데 직접 제에 쓸 찬을 갖추었는데, 다 른 사람들과 말할 때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면 설움을 눈물 을 흘림.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10	權福 立祠																			일찍 어미 죽자 그를 사모하 여 사당을 짓고 조석에 제를 올렸는데, 아버가 죽은 후 무 덤 곁에서 3년을 떠나지 아니 하였고, 상사 마친 후에도 삭 망제를 지속하였음.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11	克通 廬墓																			부모상을 당하여 6년을 시묘 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鐵重																			어미가 몹쓸병을 얻으니 단지	중종 때 표창

-12	斷指														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됨.
新續4-13	蒙松抱屍														아버가 물에서 고기를 잡다가 죽으니 달려 들어가 시신을 안고 나옴.	중종 때 표창됨.
新續4-14	繼躄斷指														조모가 오래 미친병에 시달리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려 낮게 함.	중종 때 표창됨.
新續4-15	柳熙斷指														어미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중종 때 표창됨.
新續4-16	舟臣不食														아버가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죽으니 설워 밥을 먹지 않고 죽음.	중종 때 표창됨. '梅臣至行(新續4-5)'의 형. 부친의 죽음을 슬퍼하여 죽은 사례.
新續4-17	世匡割股														어미 병이 심하니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중종 때 표창됨.
新續4-18	世俊執喪														어미가 병 드니 정성을 다해 구완하다가 상을 당하며 직접 밥을 지어 재를 올리며 예를 다함.	중종 때 표창됨.
新續4-19	成允廬墓														아버가 두어 해를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의 간호와 어미가 여남은 해 병을 앓는 동안의 수발을 정성을 다하여 하고 부모 사후에 3년을 시묘함.	중종 때 표창됨. 오로지 간호에 정성을 다하고 시묘한 사례.
新續4-20	應台斷指														아버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려 병이 나옴.	중종 때 표창됨.
新續4-21	繼賢斷指														아버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려 병이 나옴.	중종 때 표창됨.
新續4-22	石堅廬墓														부를 일찍 여의고 집이 가난했는데, 어미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어미 상을 당할 때 애도함이 지나칠 정도였고, 단상법이 엄하였으나 시묘를 함은 물론 상사 후 3년 동안 조석으로 재를 행함.	중종 때 표창됨.
新續4-23	亨溫吮淋														11세에 어미가 아비에게 버린 바 되자 집이 가난하여 도토리를 주워 봉양하더니 어미상을 당하여 빗을 내어 장례를 치렀으며, 아버가 임질을 앓을 때 빨아서 낮게 했고, 상을 당하자 3년을 시묘함.	중종 때 표창됨.
新續4-24	善樞廬墓														어려서 어미 잃고 아버지를 봉양하다가 아버상을 당하며 3년 시묘한 후 다시 어미를 위해 거상함.	중종 때 표창됨.
新續4-25	允斤斷指														아버가 몸쓸병을 앓자 15세의 나이에 단지하여 국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중종 때 표창됨.

新續4-26	朴 靑廬															연산군 때 단상법이 엄한 시절 아버지를 당하여 복 입고 거려하기를 3년을 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27	庭 堅 執 喪															연산조에 단상법이 엄한 시절 인달아 부모상을 당하여 3년 복을 입고, 상사 후에는 삭망 제를 지속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28	佛 山 廬 墓															아버지 죽으니 시묘할 때 바람 이 불면 무덤에 가서 아침까 지 울며 지새웠으며, 복을 벗 고 다시 3년을 삼.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29	時 佐 感 孝	○	○													일찍 아버지 여의고 어미를 사 냥과 천렵을 하여 맛있는 식으로 봉양하였는데, 중기를 알자 자신의 머리를 풀어 어 미의 머릿니가 옮겨 오게 하 고, 중기를 빨아 효현이 있었 음을, 상을 당하여 시묘살이함 에 지극한 예와 정성을 다하 였는데, 하루는 큰 불이 나서 제청을 위협하니 울부짖으며 바람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니 불이 절로 꺼졌음. 탈상 후에 도 삭망제를 계속하였으며, 국상을 맞아 3년을 거상하였 음.	중종 때 표창 됨. 체이르 지 않는 사 례.
新續4-30	壽 堅 斷 指															어미가 미친병에 걸리니 단지 하여 약을 만들어 올리니 병 이 나옴.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31	敬 孫 居 廬	○														어려서부터 부모 봉양에 정성 을 다하였으며, 아버지에 슬 픔과 예를 지극히 하고 어미 가 8년을 와병하니 수발에 성 심을 다했으며, 70이 넘는 나 이에도 시묘에 철저히 임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32	金 敏 誠 孝															아버지 사후 장례를 지낸 다음 무덤에 가서 삭망제를 행하 기를 80세가 넘을 때까지 계속 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33	金 粹 寫 影	○														사망이면 이웃을 청하여 성찬 을 차려 즐겼으며, 거상에 시 묘를 정성을 다해 하였고 상 사를 마친 후에도 부모의 상 을 그려 벽에 붙이고 조석으 로 제를 올림.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34	孟 堅 追 服															3세에 어미가 죽었는데 계모 상을 마치고 생모를 위해 3년 동안 복을 입었으며, 아버지 죽 으니 시묘하고 조석으로 제를 올림.	중종 때 표창 됨. 追服의 사례.
新續4-35	金 建 誠 孝															부모상을 당하여 가례를 좇아 행하고 3년간 죽을 먹으며 애 도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36	處 溫 斷 指															어미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 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37	石 連 割 脚															어미 병에 다리의 살을 베어 들게 하여 낮게 하였으며, 상 을 당하여 복을 마치고서도 조석에 제 지법을 계속함.	중종 때 표창 됨.
新續4	金 碩															어미가 병으로 갑자기 졸도하	중종 때 표창 됨.

-38	斷指																	니 단지하여 술에 타서 올리니 다시 깨어남.	됨.
新續4-39	苒叱斷指		○															아버가 오랫동안 와병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苒叱達(늦달), 증중 때 표창됨.
新續4-40	守元斷指		○															아버가 몹쓸병을 앓으니 13세 어린 나이에 단지하여 술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41	精一斷指		○				○											어려서 아버 없이 어미를 봉양하기를 정성스럽게 하였는데, 네 손가락을 잘라 올리니 병이 나왔으며, 상을 당하자 시묘할 때 아버를 위해 추복함을 이어 6년을 지성으로 함.	증중 때 표창됨. 네 손가락을 잘랐으며, 追服도 겸한 사례.
新續4-42	貴進斷指		○															아버가 몹쓸병이 있으니 단지하여 물에 타 올리니 병이 낫고, 어미 병을 위해서도 같이 함.	증중 때 표창됨. 부모 모두에게 단지하여 올린 사례.
新續4-43	李郊誠孝	○						○										아버 상에 장례를 다하고 조모상에도 또 시묘하는데, 15리 떨어진 어미 집에 가서 봉양하면서 조석 제를 올림.	증중 때 敍用됨.
新續4-44	李權廬墓							○										부모 섬김에 정성을 다하다가 부모상을 당하여 시묘를 지극히 함.	증중 때 復戶됨.
新續4-45	性同斷指		○															어미가 몹쓸병을 앓자 단지하여 술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46	千枝割股		○															어미가 몹쓸병에 걸리니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47	世湖割股		○															어미가 오래 병석에 있자 다리 살을 베어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48	遂良廬墓							○										연산군 때 단상제가 엄할 때 어미상을 당하여 오히려 복을 입고 3년을 시묘함.	증중 때 표창됨.
新續4-49	應祿斷指		○															아버 미친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50	碩澗斷指		○															어미가 오래 병석에 있으나 백약이 효과가 없자 단지하여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51	居敬斷指		○															아버 병을 위해 단지함.	증중 때 표창됨. 단지의 효험이 기록되지 않은 사례.
新續4-52	多勿斷指		○															아버 몹쓸병을 앓으니 단지하여 약에 타 올려 효험을 얻음.	증중 때 표창됨.
新續4-53	今同廬墓							○	○									아버상에 시묘하고 상을 마친 후에도 복을 벗지 않고 조석에 제를 한결같이 함.	증중 때 표창됨.
新續4-54	延同斷指		○															어미가 몹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	卯乙		○															18세에 아버가 병으로 죽음에	卯乙同(알

-55	同割股																		임박하자 다리살을 베어 약에 타서 올려 병이 나옴.	등). 증중 때 표창됨.
新續4-56	山同斷指		○																어미가 몹쓸병에 걸리자 13세의 나이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57	閔宗斷指		○																아버가 오랫동안 와병하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58	壽命斷指		○																어미 병에 단지하여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59	李榮負土							○	○										70세가 넘어서 부모상을 당하여 직접 흙을 져서 무덤을 만들고 정성껏 6년 동안 시묘를 하였으며, 전염병이 성한 중에도 제를 지속함.	증중 때 표창됨.
新續4-60	好孫廬墓							○											7세에 어미 여의고 제를 지성으로 하였으며 아버 사후에 시묘할 때 직접 제물을 준비하여 제를 올렸고, 國忌에 근신함.	증중 때 표창됨.
新續4-61	世植誠孝									○									嫡母를 위해 거상할 때 정성과 효도를 극진히 함.	증중 때 표창됨. 서자로 서적모에 대사해 행한 사례.
新續4-62	漢亨嘗糞		○								○								아버가 고질병이 있으니 상분하여 병세를 가늠하였고, 국상에 근신하기를 3년 동안 행함.	증중 때 표창됨.
新續4-63	愁伊同斷指		○																아버가 몹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술에 타서 올려 병이 나옴.	盲人 愁伊 同(쉬동). 증중 때 표창됨.
新續4-64	方萌廬墓							○	○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다가 아버가 죽으니 장례와 제사를 예로 하고, 시묘 3년을 하였으며, 상을 마치고도 출입시 반드시 신주에 고탈함.	증중 때 표창됨.
新續4-65	朴寧孝養	○																	아버 섬김을 지극히 하며, 조석의 문안하며 봉양함을 정성껏 함.	증중 때 표창됨. 순수 생시 봉양으로 정려된 사례.
新續4-66	閔今撲虎									○									아버가 밤에 범에게 잡히니 매를 들어 치고 시신을 빼앗음.	여자. 증중 때 표창됨.
新續4-67	有今斷指		○																조부가 몹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68	末今斷指		○																15세 때 아버 병이 심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려 낫게 함.	증중 때 표창됨.
新續4-69	兄弟搏虎									○									굿비, 굿덕 형제가 아버가 범에게 잡히니 함께 힘을 써 범을 쳐서 아버가 호환을 면함.	증중 때 표창됨.
新續4-70	舜年吮淋	○	○																어려서부터 부모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좋은 절기에 주효를 마련하여 사람들을 맞	증중 때 표창됨.

																				이하에 즐겁게 대접하였고, 아버지가 일찍이 임질을 앓아 기절코자 하니 하늘에 빌고 빨아 소생하게 함.	
新續4-71	千同斷指		○																	어미가 중기를 앓아 거의 죽게 되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려 병이 나옴.	私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72	貴孫割股		○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서 올리니 낫자, 어미 병에도 다시 같이 함.	私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73	林連寫影								○	○	○	○								부모가 불교에 심취했다가 박년이 어렸을 때 죽으니 친척들이 화장을 했는데, 장성하여 실움에 겨워 화상을 그려 벽에 걸고 날로 제를 올렸으며, 부모가 입던 옷을 화장하던 곳에 합장하고 시묘 6년을 지극히 함.	私奴. 증중 때 표창됨. 불교식 장례 안타까이 유교식으로 예법을 올린 사례.
新續4-74	明伊斷指		○																	12세에 어미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私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75	檢同斷指		○																	아버지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술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私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76	鄭同奉養	○																		일찍 어미가 죽고 아버지가 후처를 얻었는데, 마음을 다하여 봉양하다가 어미 죽으니 3년상을 치르고 어미 계모를 더욱 정성껏 섬김.	私奴. 증중 때 표창됨. 계모를 정성껏 봉양한 사례.
新續4-77	莫同投火																			집에 불이 나서 어미와 딸이 모두 불 가운데 있는데, 불에 뛰어들어 어미를 업고 나오니 딸은 죽었으나 돌아보지 아니 함.	私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78	於玳誠孝	○																		누이와 더불어 부모를 효성스럽게 섬겼는데, 부모가 잇달아 죽으니 3년 동안 소금장나물과 과실을 먹지 않았으며, 나무에 부모상을 새겨 조석에 제하고 출입시 고향에 천신하였으며, 삭망에 무덤을 돌봄.	私奴. 증중 때 표창됨.
新續4-79	小非省母	○																		소비가 연산군 때 죄인에 연좌되어 길성에 귀양가고 어미는 명천에 귀양가서 떨어진 거리가 거의 60리에 달함에도 낮에는 관에서 일하고 밤이면 어미에게 가 보았는데, 귀양에서 풀려난 후에 음식을 빌어서 봉양하되 정성을 다하였음.	寺婢(시비). 증중 때에 표창됨.
新續4-80	淑美割股		○																	14세에 어미가 몸쓸병에 걸리자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옴.	寺婢(시비). 증중 때에 표창됨.
新續4-81	時種斷指		○																	아버지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술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私婢. 증중 때에 표창됨.
新續4-82	武毅豐祭																			부모의 묘에 정성스러이 제를 올리는 모습을 마칩 지나가던 어사가 보고 장계를 올림.	인종 때 표창됨.

新續4-83	麒楨斷指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아버지 병에 왼손가락을, 이미 병에 오른손가락을 잘라 효험을 보았다고, 상을 당하여 시묘 3년을 하였음.	贈參判. 명종 때 표창됨. 參奉에 제수됨.
新續4-84	林薰執喪	○																	평소 정성껏 부모를 섬겼는데, 상을 당하여 시묘할 즈음에 가족들이 모두 전염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상복 입고 제를 지극하게 하였음.	判決事. 명종 때 표창됨.
新續4-85	安麟孝感	○																	어머니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어머니가 병에 들었는데 갑자기 날아가던 꿩이 집 아래에 떨어지고, 잉어가 배가 운데로 뛰어 들어 어머니께 울릴 수 있었음. 60세에 부모 상을 잇달아 당하여 시묘 6년을 삼.	通政大夫. 명종 때 표창됨. 평과 잉어의 이적.
新續4-86	希奎孝友																		8세 때 아버지가 거상하니 결사에서 3년을 음식을 삼가며 걸리자 수발을 하며 상분으로 병세를 가늠하였으며, 상을 당하여서는 슬픔을 다하여 장례하고 시묘 3년을 하였고, 형제간 우애를 더욱 두텁게 하였음.	牧使. 명종 때 표창됨. 형제간 우애를 적시함.
新續4-87	李氏屍	○																	16세에 불한당이 돌입하여 아버지를 해치니 칼날을 무릅쓰고 대신 죽고자 하였으나 상자를 이루지 못하고, 도적이 상자를 아버지 위에 쌓고 불을 지르니 시신을 꺼내 시신을 적셔 동생이 피할 줄을 모르니 옷살을 벗겨 뜯 아래에 내던져서 시부모 섬김을 효도로 하였음.	여자. 명종 때 표창됨.
新續4-88	崔氏入火																		집에 불이 나자 불길을 무릅쓰고 달려 들어가 늙은 어미를 업고 나오다가 함께 죽음.	여자. 명종 때 표창됨.
新續4-89	億秋獲鴨																		아버지가 7년을 병석에 있는데, 들오리로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극한 정성으로 구하여 병을 낫게 하였음. 후에 다시 병이 들어 기절하니 단지하여 올려서 다시 살게 함.	郡守. 명종 때 표창됨. 얼음판 위의 들오리를 들을 던져 잡음.
新續4-90	二子感虎																		정원린, 원기 형제가 모친 상을 당하여 밤낮으로 슬퍼하며 3년 동안 무덤을 돌보는 일에 눈비를 개의치 않고 정성을 다하였음. 한번은 무덤에 갔는데 밤이 원린의 뒤에 었드려 있다가 형제의 동요하지 않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감.	參奉. 명종 때 표창됨. (新續4-5)의 아들. 범이 물러가는 사레.
新續5-1	金春立廟																		5세에 어미 죽자 애통함을 지극히 하고, 9세에 아버지상을 당하여 어른처럼 상사를 치렀으며, 자라서는 어미상 때 거상 못함을 서럽게 여겨 시묘 3년	縣監. 명종 때 표창됨.

																				을 아내의 병도 돌보지 않음. 어머니 살았을 때 거상 후에 만아들 수 없이 어머니를 써서 모시고 출입시 받드는 시 고향과 삭망과 절기에는 제와 친신을 다함.	
新續5-2	彦器 斷指		○	○	○															어미가 병들자 상분을 하고 단지를 하여 약을 만들어 올리니 효과가 있었다가 다시 병이 도지자 겨울에 목욕 재계하고 밤새 하늘에 빌며 다시 단지를 하고 다리살을 베어 올리니 병이 나아서 38년 만에 죽음.	判官. 명종 때 표창됨.
新續5-3	卞勇 負土								○											부모상에 흠을 저서 무덤을 만들고 죽을 먹으며 3년을 시묘하였음.	中郎將. 명종 때 표창됨.
新續5-4	德粹 孝友								○											효도롭고 우애가 깊었는데, 부모상에 시묘 3년을 하였으며, 형이 죽으니 또 심상 3년을 하였음.	監察. 명종 때 표창됨. 형을 위해 심한 사례.
新續5-5	全燁 居廬	○							○	○	○									평소 부모 봉양을 정성껏 하였는데, 명절이면 음식을 마련하여 부모 친구들을 초빙하여 대접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생 동안 문안 등의 예를 극진히 하였으며, 계모 섬김에도 여극남이 없었고, 부모 상에 시묘 6년을 살며 장례와 제사에 한결같이 정성을 다함.	佐郎. 명종 때 표창됨. 계모 예를 다함.
新續5-6	崔漣 斷指																			어미 70세에 중병에 걸려 오랫동안 기절하니 단지하여 피를 약에 타서 올리니 다시 소생하여 4년을 더 살았음.	將仕郎. 명종 때 표창됨.
新續5-7	權擁 廬墓	○																		부모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부친 병환에 상분하였고 상을 당하여 3년을 시묘를 지극히 행하였음. 모친 상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제사에도 예를 다함.	主簿. 명종 때 표창됨.
新續5-8	承幹 入火								○											모친이 84세 때 집에 불이 나자 병환중인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어 몸으로 가렸는데 그 아들이 모두 업어 내었으나 부자가 함께 죽음.	直長. 명종 때 표창됨.
新續5-9	世應 負土	○																		부모를 지성으로 섬기다가 상을 당하자 흠을 저 장례를 삭을 망제와 조석의 제를 30여년 변함없이 하고, 형제와 재산 나누는 때 박한 땅과 늪을 택하였음.	선조 때에 社稷參奉에 추수하사(復戶)를 받음.
新續5-10	文卿 居廬																			일찍 부친을 잃고 모친 섬김을 정성껏 하다가 60세에 어머니가 죽으니 지극한 슬픔으로 장례를 마치고 3년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이후 부친을 위해 심상 3년을 지내고, 사당에 제를 조석으로 올림.	奉事. 명종 때 표창됨.

新續5-11	光春 入火																		효성이 지극하여 문안을리기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집에 불이나서 부친이 조모를 구하려 뛰어들어 몸으로 가리니, 아버지를 먼저 업어 구하고 다시 조모를 구하여 나오다 화상으로 죽을 번하다가 살아남.	別坐. 명종 때 표창됨.
新續5-12	朴龍 斷指																		모친이 병들어 기절하니 단지하여 구하였음.	監役. 명종 때 표창됨.
新續5-13	林芸 孝友																		학문과 행실, 부모 봉양, 거상에 형과 다름이 없이 하였는데, 형이 살림을 돌보지 않고 처자를 맡기니 마음을 다하여 봉양하여 굶주림이 없도록 함.	參奉. 명종 때 표창됨. 의거투어 봉양한 사례.
新續5-14	汝說 斷指																		아버이를 효로써 섬기다가 모친의 병에 단지하여 울리고, 상을 당하자 지극한 슬픔에 이름.	進士. 명종 때 표창됨. 단지 효과 안된 사례.
新續5-15	克忠 孝感																		아버가 병이 들어 자라죽을 먹고 싶어 하니 자라를 구하려 갔는데 얻지 못하다가 문득 물 가운데서 자라가 나와서 잡아다 올렸음. 상을 당하자 지극히 슬퍼하며 3년을 시묘하였는데, 이웃집에 불이 나서 아버지의 신주 있는 곳으로 옮겨 불으려 하니 하늘에 호소하자 불길의 절로 스러짐. 殿試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나 방에 오르기 전에 29세로 죽음.	進士. 명종 때 표창.
新續5-16	金質 負土																		부친상에 애통함을 극진히 하고 흙을 저서 묘를 만들어 시묘 3년을 하였으며, 모친이 중기를 앓으니 빨아내고 하늘에 빌어 낫게 하였음. 어미 상에 죽만 먹으며 3년을 정성껏 시묘함.	進士. 명종 때 표창.
新續5-17	繼成 孝友																		부모상에 6년을 시묘하고 직접 음식을 장만하여 제를 올렸으며, 과부가 된 누이 보살피기를 지극히 함.	生員. 명종 때 표창.
新續5-18	之中 自盡																		지극한 정성으로 아버이를 섬기다가 아버가 죽은 소식을 듣고 5일 밤낮을 울며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가서 빈소에 이른 후 사흘만에 스스로 죽음.	부친 상을 당하여 애통함 사례. 명종 때 표창.
新續5-19	成林 廬墓																		물을 길어 밥을 지어서 부모를 봉양하다가 상을 당하자 3년을 시묘함.	명종 때 표창함.
新續5-20	仇沉 廬墓																		아버이 섬김을 지극히 하다가 상을 당하여 6년을 시묘함.	명종 때 표창함.
新續5-21	伏龍 斷指																		일찍 부친을 잃고 모친 섬김을 정성껏 하다가 모친이 중병에 걸려 기절하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울리니 다시 살아남.	명종 때 표창함.
新續5-22	郭塤 感虎																		60세에 모친상을 만나 시묘할 때 물 길는 곳이 멀어 근심	명종 때 표창함. 시묘시

																				했는데, 갑자기 여막 왼쪽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홍량이 가 여막을 밟았으므로 지킴. 탈상 후에도 아침저녁으로 준비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성묘를 행함.	이적이 있는 사례.
新續5-23	應參居廬		○																	10세에 부친이 병에 걸리니 직접 약수발을 하며 상분을 하는 한편 하늘에 기원하였는데, 상을 당하자 애통을 지극히 하고 시묘 3년을 살 때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으며, 모친상에도 역시 같이 행함.	명종 때 표창함.
新續5-24	始昌守廬																			아버지 상을 당하자 시묘를 정성을 다하여 하였으며, 이후의 기일에도 애통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예를 다하였고, 임금의 상에도 복을 입었는데, 70이 넘은 나이에도 국상에 예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함. 천거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초야에서 죽음.	명종 때 표창함. 임금이 예의 지극한 사려가 있어 칭찬함.
新續5-25	李崇斷指		○																	부친이 병이 심하자 단지하여 약에 섞어 올리니 병이 나음.	명종 때 표창됨.
新續5-26	餘慶誠孝		○																	아버지를 지극히 섬기며 봉양하였고, 죽은 모친을 위한 제에도 정성을 다하였음.	명종 때 표창됨. 순수양과 평시의 정성사려를 다함.
新續5-27	思敬嘗羹		○																	부모의 병에 상분하였으며, 상을 당하여 애통함을 다하였고 이후에도 근신하였음.	명종 때 표창됨.
新續5-28	希楨追服																			일찍 부친을 잃었는데 장성한 후 3년 추복을 하였고, 모친상에도 3년 복을 입고 근신하였으며, 탈상 후에도 삭망제를 지속적으로 행함.	명종 때 표창함. 시묘를 하고 복을 입고 근신한 예.
新續5-29	禹漢斷指		○																	모친의 병에 단지하였음.	別侍衛. 명종 때 표창됨. 단지 효과 기록 없음.
新續5-30	漢奔居廬		○																	부모를 정성껏 섬겼으며, 상을 당하여 3년 시묘를 지극히 행함.	鄉吏. 명종 때 표창됨.
新續5-31	介未致斷指		○																	모친이 학질로 기절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즉시 나아 15년을 더 살았음.	李介未致(니개미티). 명종 때 표창됨.
新續5-32	召史割腿		○																	부친이 미친병에 걸리자 다리뼈를 베어 올리니 살아났음.	여자. 李召史(니조이). 명종 때 표창됨. 다리뼈를 베어 올린 사례.
新續5-33	玄今殺虎																			부친이 범에게 물리니 도끼를 들고 가서 범을 죽이고 부친을 빼앗아 돌아옴.	여자. 명종 때 표창됨.
新續5	順影		○																	모친의 병에 분향하며 하늘에	여자. 명종

-34	割股																빌고 다리 살을 베어 피를 입에 넣어주고 살을 태워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때 표창됨.
新續5-35	康哲斷指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깊었는데, 형이 몸쓸병을 앓자 단지하여 약으로 올리서 효험을 얻음.	營奴. 명종 때 표창됨. 단지 효험을 위한 사례.
新續5-36	建今斷指																모친 병에 단지함.	私奴. 명종 때 표창됨. 내용 없음.
新續5-37	檢進殺虎																부친이 밭을 갈다가 범에게 물리니 18세의 나이로 호미를 갖고 쫓으니 범이 아버지를 놓고 물러고 하니 큰 돌로 범의 입을 들이쳐서 죽임.	여자. 私婢. 명종 때 표창됨.
新續5-38	洪壘廬墓																9세에 조모상을 당하자 3년 시묘를 지극히 하고, 계모의 상에도 시묘하며 상을 마친. 인순왕후상에 빈전제조로 쭈뼛이 지나도록 예를 지키다가 몸이 상하여 죽음.	左參贊. 선조 때 표창됨. 국상에 行素를 하다가 죽은 사례.
新續5-39	盧禕廬墓																아버지 섬김을 늙을 때까지 지극하게 하였으며, 상을 당하여 시묘 3년을 정성껏 행함.	判書. 선조 때 표창됨.
新續5-40	張維守喪																숙부를 낳아준 부모 못지 않게 봉양하고 상을 당하자 집 안일을 돌보지 않고 정성껏 3년상을 치름.	嘉善大夫. 선조 때 표창됨.
新續5-41	大虎斷指																부친 병에 단지하여 약에 넣어 올리니 효험을 얻었고, 상을 당하자 지극한 정성으로 시묘를 하는데, 여막 아래에 수막을 심어 둔 것을 이웃 사람이 훔치려 하다가 그 효성에 감동하여 그만 둠.	判決事. 선조 때 표창됨.
新續5-42	金氏斷指																어미 병이 심하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즉시 나옴.	여자. 선조 때 표창됨.
新續5-43	崔氏割股																부친 병이 중하여 죽을 지경에 당하자 다리 고기를 베어 올려 병이 낫게 함.	여자. 선조 때 표창됨.
新續5-44	高氏活母																밤에 불한당이 들었는데 모친이 70세 나이에 깊은 잠에 빠져 깨지 못하자 도적이 어지러이 치니 몸으로 덮어 어미가 죽음을 면하게 함.	여자. 선조 때 표창됨.
新續5-45	韓楊活父																부친이 계미호란에 화살을 맞아 쓰러지니 적진에 뛰어들어 업고 나와 살림.	定虜衛. 선조 때 표창됨.
新續5-46	漢春同死																부친이 계미호란에 싸우다 죽으니 활을 당기며 돌입하여 결국 적에게 죽음.	正兵. 선조 때 표창됨.
新續5-47	自業斷指																모친이 병들자 단지하여 구완함.	直長. 선조 때 표창됨. 단지 효험 기록 안됨.

新續5-48	麟壽斷指	○													3세에 부친이 죽고 자라서 70 노모를 극진히 봉양하였는데, 모친의 병을 10년 동안 구완하며 상분하여 병세를 보고, 병이 심해지니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아 2년 3년 더 살았음. 상을 당하자 3년 시묘한 후 이어서 부친을 위해 3년 추복을 하였는데 선조 때 참봉 벼슬을 받고 물러나 와 무덤 곁에서 살다가 죽음.	선조 때 參됨. 죽시에 상중 있음.
新續5-49	金範誠孝	○	○												아버지 봉양과 양지를 법대로 하며 직접 맛있는 음식을 팔아 주면서 비용을 대었고, 병상을 당하였는데는 상분을 하였고, 상을 당하였서는 지극한 슬픔을 다하였으며, 국상, 국기에 근신함.	명종 때 縣監되고, 정려의 실에 선조 때 소학의 실내용대사로 천한 사례.
新續5-50	恩孫滅火					○	○	○	○						부친상에 시묘 6년을 하고, 모친상에도 같이 하였는데, 하루는 들불이 나서 제청에 겨 불으려 하자 바람을 향하여 부르짖어 우니 풍향이 바뀌어 불이 꺼짐. 상을 마친 후에도 죽을 때까지 素를 행함.	參奉. 선조 때 표창됨. 12년 시묘. 行素 및는 종심이 적어 있는 사례.
新續5-51	金壘孝感	○					○	○	○						부친상에 3년 시묘함에 애도가 극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달할 정도였는데, 한번은 초하루 제사날 제물이 없어 무덤 앞에서 우니 암뱀이 묘에 와서 죽었고, 하루는 아침 제사에 수저가 갑자기 두 번 소리를 하였으며, 수묘 한 달이 넘을 즈음에 한 사슴이 와서 무덤 뒷 왼쪽에 와서 자더니 쫓아도 가지 않고 3년 후에야 떠났음. 노모를 봉양하기를 극진히 하였음.	참봉. 선조 때 표창됨. 종심이 적어 발생한 사례.
新續5-52	金謙孝感	○	○	○			○	○	○						흠년이면 쌀을 꾸어서라도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부친이 병이 중하니 상분하여 병세를 가늠하고, 모친이 병으로 기절하니 손을 베어 피를 먹이 기를 두 번 하여 다시 살게 하였음. 다시 병이 들었는데 꿈에 '담비 가족을 태워 약에 타 쓰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여 나왔음. 부친상에 시묘하는데 밤낮을 심히 슬피 우니 범이 비감하여 여막 곁에 와서 울었음.	訓導. 선조 때 표창됨. 단지는 하지 않았고, 피만 내어 올림. 범 관련 이적.
新續5-53	復生守墓						○								효자 남순필의 아들이며, 아버지 상에 3년을 정성껏 수묘함.	충의위. 선조 때 표창됨. 효자의 아들이 다시 표창됨.
新續5-54	鄭渾斷指		○												부친 병에 단지하여 약에 넣어 올리니 병이 조금 호전되었고, 상을 당하자 3년을 지극히 슬퍼함.	선조 때 표창됨.
新續5-55	承井斷指		○												모친이 얼굴의 종기에 걸려 기절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 올려 살게 함.	선조 때 표창됨.

新續5-56	世稷 斷指																		부친의 병이 심하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즉시 나옴.	선조 때 표창됨.
新續5-57	忠胤 嘗糞																		어머니 섬김에 정성을 다하며 병환 중에는 상분하며 지극히 구완하였는데, 50세 때 잇달아 부모상을 당하자 6년간을 예법에 따라 애도하며 근신함.	선조 때 표창됨. 시묘는 하지 않음 사례.
新續5-58	忠佐 斷指																		효자 서충필의 아우임. 12세에 부친이 부친상으로 시묘할 때 함께 하였으며, 모친이 전염병에 걸려 기절하자 함께 전염되어 앓는 처지에도 단지하여 올리니 어머니가 다시 살아 90세까지 살았음.	선조 때 표창됨. 할아버지 상에 아버지와 함께 시묘한 사례.
新續5-59	逗生 追服																		5세에 부친 여의고 17세에 모친상을 당하자 3년상을 정성껏 하고, 이어 아버지를 위한 상을 시묘 3년을 하며 행함.	선조 때 표창됨.
新續5-60	高煜 斷指																		부친이 병으로 기절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 올려 낮게 함.	선조 때 표창됨.
新續5-61	允謙 斷指																		어려서 모친을 잃고 애통함을 지극히 하였으며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올렸고, 아버 봉양에 직접 음식을 마련하며, 매일 닭이 처음 울 때 복두성을 향해 아버 수명을 더해 줄 것을 빈 연후에 문안하였고, 이 병에 죽게 되자 상분하며, 단지하여 올리니 병이 나옴.	선조 때 표창됨. 부모 위해 단지한 사례. 형을 행한 사례.
新續5-62	忠男 斷指																		12세에 모친의 병이 심하니 단지하여 올려서 효험을 봄.	선조 때 표창됨.
新續5-63	崔衡 斷指																		모친의 병에 단지하였음.	선조 때 표창됨.
新續5-64	元弼 守墓																		모친 봉양을 지극히 하였으며, 상을 당하여 3년 시묘를 정성껏 행함.	선조 때 표창됨.
新續5-65	弘毅 誠孝																		인간됨이 청렴하고 담박하여 욕심이 없었으며 어머니 섬김을 지극히 하였음.	선조 때 표창됨. 특별한 행위 없이 순효행으로 표창된 사례.
新續5-66	應勳 居墓																		부모 섬김을 지극히 하였으며, 모친상에 시묘 3년을 정성껏 하고 슬픔으로 죽음.	선조 때 표창됨. 모친상의 슬픔으로 죽은 사례.
新續5-67	郭義 斷指																		부친이 병이 중하여 기절하자 단지하여 피를 입에 올리니 다시 20여년을 살았는데, 임종에 다시 단지하였음.	선조 때 표창됨. 단지를 두 번 행함.
新續5-68	熙光 斷指																		부친이 증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려 치료함.	선조 때 표창됨.
新續5-69	順傑 斷指																		14세에 부친이 증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나옴.	선조 때 표창됨.

新續5-70	德隣 斷指	○	○	○												10세에 부모가 모두 죽으니 3년을 시묘함에 정성껏 하였으며, 조모 섬기기를 공손히 하였으며, 여 어긋남이 없이 하였고, 죽음에 임하자 상분과 단지를 하였음.	선조 때 표창됨. 위단지의 기록되지 않음.
新續5-71	夢慶 盡誠	○														부친이 첩의 자식을 사랑하여 소홀히 대하였으나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였으며, 병 구완에 지극히 하고 상을 당하자 애통함을 예에 넘치게 하고 몸소 제물을 마련하였음.	선조 때 표창됨.
新續5-72	公謙 斷指		○					○								어머니 병에 단지하여 올렸으며, 상을 당하여 시묘 3년을 극진히 행하다가 죽음.	선조 때 표창됨.
新續5-73	漢京 居廬							○								부모상에 모두 3년씩 시묘를 함.	선조 때 표창됨.
新續5-74	台輔 感神		○					○		○	○					부친의 병에 상분을 하였고, 상을 당하자 시묘를 하는데 상물이 없음을 근심하자 꿈에 노인이 나타나 바위 밑을 파라고 알려 주어 그대로 하니 과연 물이 나옴.	선조 때 표창됨. 선물 이적.
新續5-75	汝諧 孝友	○						○	○	○						음식 공양과 뜻을 받들며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모셨으며, 주변에서 벼슬을 권해도 연로한 부모를 인하여 사양하였고, 부친이 병에 걸리자 지극한 태도로 병 구완을 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시묘에 어긋남이 없었고, 비록 가난하였어도 제물을 잘 장만하였음. 기일에는 초상처럼 슬퍼하기를 평생 동안 계속하였으며, 형을 아비 섬기듯 하였고 친척들과 화평하였음.	監察. 선조 때 표창됨.
新續5-76	吳綱 居廬							○								나이 70에 상을 당하여 시묘 3년을 정성껏 행함.	선조 때 표창됨.
新續5-77	亨貞 孝養	○														모친을 지극히 봉양하여 마을 사람들이 칭송함.	甲士. 선조 때 표창됨. 특별한 행위 없이 순수한 효행으로 표창된 사례.
新續5-78	昌孫 忠孝							○								명종 승하시 3년을 行素하였고, 부모가 하루 사이로 죽으니 각각 3년상을 치르며 애통함을 지극히 하였음.	書吏. 선조 때 표창됨.
新續5-79	鄭傑 斷指		○													모친이 병에 들자 단지하였음.	정로위. 선조 때 표창됨. 단지 효행 기록 없음.
新續5-80	石環 斷指	○	○	○				○								부친의 병에 상분과 단지를 하여 병이 나아 10년을 더 살았고, 상을 당하여 시묘 3년을 지극히 하다가 임진란을 만나 70세의 나이에 90세의 모친을 업고 산 속에 피신하여 봉양을 극진히 하였고, 상을 당하여 시묘 3년에 소홀함이 없었음.	절정. 선조 때 표창됨.

新續5-81	彦沉 斷指																		부친이 중풍으로 기절하니 단지하여 입에 흘려 다시 살림.	정로위. 선조 때 표창됨.
新續5-82	於貞 執喪																		아버이 상을 마치고 다시 3년을 복을 입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며, 국상에 행소 3년을 하였음.	별시위. 선조 때 표창됨.
新續5-83	應清 廬墓	○																	과거를 그만두고 부모 "양에 정성을 다하다가 모친상을 당하자 3년 시묘함에 하루 한 중 번씩 부친을 뵈러 왔으나 문문 문지방을 넘지 않았고, 부친상에 다시 3년을 시묘함.	현감. 선조 때 표창됨.
新續5-84	文根 斷指																		모친이 병으로 기절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 올려 다시 살게 함.	正兵. 선조 때 표창됨.
新續5-85	莫失 追虎																		모친이 산골 냇가에서 나물을 씻다가 범에게 잡히니 막대를 가지고 소리 지르며 쫓으니 범이 버리고 가서 살게 됨. 다음날 부친이 산중에서 소를 먹다가 다시 범에게 잡혀가자 돌로 범을 치니 범이 즉사하여 부친이 살았음.	保人. 선조 때 표창됨. 모, 호환에서 각각 구한 사례.
新續5-86	克元 斷指																		부친이 병으로 기절하니 7세의 나이에 단지하여 입에 흘려 넣어 살림.	선조 때 표창됨.
新續5-87	朴元 斷指	○																	아버이 섬김을 지극히 하였으며, 부친의 병이 심하자 밤낮으로 하늘에 빌며 단지하여 피를 입에 흘려 넣으니 15년을 더 살았음. 상을 당하자 애통함을 다하며 시묘 3년을 살았음.	唱準. 선조 때 표창됨.
新續5-88	自珍 斷指	○	○	○	○														아버이 섬김을 지극히 하였으며, 모친이 병이 들자 머리의 이를 옮겨오게 하고, 상분을 하였으며, 왼손가락을 잘라 약에 넣었고, 다리 살을 베어 올려 다시 살아가게 하였음. 상을 당하자 애통하며 3년을 행함.	私奴. 선조 때 표창됨. 상분, 단지, 분술 등 두 가지 행위가 이루어진 사례.
新續5-89	子張 斷指																		모친의 병에 단지하여 살림.	私奴. 선조 때 표창.
新續5-90	莫德 斷指																		부친의 병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려 효험을 얻음.	선조 때 표창.
新續6-1	二子 孝友	○																	형제가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하며 한 집에 살았음.	私奴. 선조 때 표창. 특별한 행위 없이 효와 우애로 정려된 사례.
新續6-2	貴千 逐虎																		범이 아버를 물고 재를 넘어가자 낫을 휘두르며 쫓아가니 범이 버리고 가서 아버가 피를 많이 흘리긴 했으나 죽지는 않았음.	私奴. 선조 때 표창됨.
新續6-3	金石 斷指																		아버가 병에 걸려 주야에 구완하다가 단지하여 입에 피를	官奴. 선조 때 표창됨.

																			부으니 병이 나옴.	
新續6-4	銀今斷指																		어미가 몸쓸병에 걸리자 단지 하여 울리니 병이 나옴.	여자. 官婢. 선조 때 표창됨.
新續6-5	林忍同死																		부친 섬김을 지극히 하여 60에 이를 때까지 변함이 없었음. 임진란 때 아버가 병에 들어 업고서 수풀 속에 피란하였는데, 왜구가 이르자 아버를 가리고 울며 대신 죽기를 청하니 그냥 갔으나, 다음 날에 온 왜구는 듣지 않고 부자를 모두 죽이니 부자가 서로 안고 죽음을 당함.	萬戶. 선조 때 표창됨.
新續6-6	禮男活母																		14세에 임진란을 만나 왜구가 어미를 해치고자 하니 어미를 안고 하늘에 부르짖으며 대신 죽기를 빌자 예남을 대신 죽이고 어미는 살게 됨.	선조 때 표창됨.
新續6-7	二子活母																		형제가 함께 살며 효도하더니 임란을 당하여 어미를 업고 파주로 피란하였는데, 왜구가 당도하니 형제가 다투어 어미 대신 죽기를 청하자 형제를 죽이고 어미는 살려줌.	선조 때 표창됨.
新續6-8	二子被害																		아버가 아우와 더불어 부친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가 이천 땅에서 왜적에게 아우 문형이 죽고 또 위험이 따르니, 형제에게 멀리 피하라고 하자 '아버님이 할아버님을 떠나지 않으시는데, 아버님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함. 왜적이 부모를 해하고자 하니 형제가 서로 붙잡고 울며 대신 죽기를 청하여 결국 함께 죽음.	선조 때 표창됨.
新續6-9	文衡當刃																		이려서부터 효성이 깊고 학문을 널리 하였는데, 16세에 임진란을 만나 아버를 따라 임금 있는 곳으로 향하다가 이천 땅에서 왜구를 만나게 되어 겁박을 당하였으나 굴하지 아니하니 도적이 아버를 해코자 하자 대신 죽기를 청하여 몸으로 부모를 가리어 스스로 칼을 맞으니 도적이 더 이상 해하지 않아 비록 문형은 죽었으나 부모는 살았음.	선조 때 표창됨.
新續6-10	鴻海抱母																		임란 때 어미를 모셔 이천으로 피하였는데, 왜구가 어미 숨은 곳으로 가니 도적에게 내달아 어미 대신 죽기를 청하여 어미를 안고 죽었음.	선조 때 표창됨.
新續6-11	夢熊活母																		임란 때 70 노모를 모시고 양주 홍복산에 피란하였는데, 왜구가 닥쳐 그 어미 앞으로 향하니 몸으로 가려서 자신은 죽고 어미는 살게 됨.	생원. 선조 때 표창됨.
新續6-12	器之赴水																		어미를 모시고 하빈현으로 피란하였는데, 왜구가 이르러 강을 미처 건너지 못한 상태로 어미가 물에 빠져 죽으니	선조 때 표창됨.

															물에 뛰어 들었는데, 왜구가 쫓아가 죽임.	
新續6-13	二子蔽父					○								○	임란 때 왜구가 아버지를 해하려 하니 형제가 몸으로 가려 함께 죽음.	선조 때 표창됨.
新續6-14	洪遠冒刀					○								○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는데, 임란에 왜구를 충주에서 만나 아버지가 골치 않고 죽으니 칼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아버지를 구하다가 함께 죽음.	진사. 선조 때 표창됨.
新續6-15	李旻活父					○								○	임란에 아버지가 섬곡현령이었는데 왜구가 이르러 현령을 찾으니 스스로 현령이라고 나서서 죽어 아버지를 구함.	별좌. 선조 때 표창됨.
新續6-16	梅邑山誠孝	○						○	○					○	어릴 적부터 부모 섬김에 지극한 정성으로 하였으며, 부모상을 당하자 3년 복을 입고 상을 마친 후에는 삭망제를 정성껏 모셨으며, 눈이 내리면 무덤에 가서 보살피며 돛 자리를 옆에 깔고 밤을 새웠음.	白丁. 趙梅邑山(조매산). 선조 때 표창됨.
新續6-17	良女捕虎					○								○	범이 아버지를 무니 손으로 쳐서 범을 잡음.	여자. 石乙畝(돌합). 선조 때 표창.
新續6-18	繼業負母	○				○								○	어버이를 잘 섬겼으며, 정유란에 차자를 버리고 어미를 업고 왜구를 피하였는데, 왜구가 어미를 잡아 가려고 하자 이를 막다가 죽으니 어미도 그 옆에서 죽었음.	선조 때 표창.
新續6-19	終伊負姑					○								○	첩의 딸이었으나 적실 시어미 섬김에 지극하였는데, 임란에 시어미가 병들어 걷지 못하자 업고 다니더니, 도적이 꺾박하자 어린 중이 말하기를 업고 가면 살기 어렵고, 시어미는 늙어서 헤치 않을 것이니 돌려놓고 달아나는 것이 좋다 안전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결국 왜구에게 잡혀 왜구를 꾸짖다가 죽었음.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20	鄭淹誠孝	○		○										○	어려서부터 배움과 행실이 두터웠고,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어미가 병에 걸리니 주야에 곁에서 구완하며, 상분하였음. 상을 당하여 애통함을 극진히 하자 아내가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고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	승지.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21	權常至行	○												○ ○ ○	7세에 아버지가 죽으니 애통함을 어른처럼 하고 조식전을 반드시 직접 올리며 어미가 슬퍼 눈물을 흘리니 항상 닦아주며 위로함. 성장하여 어미 봉양에 정성을 다하더니 어미가 병이 들자 지극히 구완하며 하늘에 대신할 것을 빌었으나 상을 당함에 시묘 3년을 극진히 하고 탈상 후에도 조식전을 30년 동안 계속	同知. 선조 때 특명으로 벼슬을 받았고, 광해군 때 정려됨.

																				하였으며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사당에 문안과 출입시 안부를 고하였고, 기일이 있는 날에는 행소를 하였음.	
新續6-22	孝甲 吮腫	○	○																	친성이 효성스러웠는데, 16세에 아버상을 당하여 죽을 먹으며 애도 3년을 하였음. 몹시 애통하여 몸이 상하였음. 어머니가 낫게 하였고 또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 마침 꿩 한 마리가 길에 었어져 있어 가져다 올렸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23	應井 爭死																			임란 때 80 노모를 업고 산골에 숨었다가 왜구를 만나자 피하고자 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절벽 아래 떨어졌는데, 아내와 딸이 물에 빠져 죽었음. 뒤에 또 왜구가 와서 어머니를 해코자 하니 몸으로 가려 대신 죽기를 원하자 어머니는 자식을 해하지 말고 자신을 죽이기를 원하여 서로 다투니 도적이 모두 죽임.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24	順川 孝友	○																		부모 섬김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다가, 잇달아 부모를 잃고 슬픔이 지극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는데, 거상을 마치고 또 행소 3년을 하고 형, 아우와 더불어 매달 상당에 예를 올림.	宗親. 명종 때 특명으로 되고, 정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25	應世 至行																			친성이 순효하여 13세에 어머니가 병이 드니 상분하고, 중년에 어머니가 중풍하여 장차 기절하게 되니 병구완을 지극히 하면서 하늘에 빌어 몸을 대신하기를 청하고는 단지하여 약에 타서 바치니 어머니 병이 나음. 어머니 상에 애통함을 지극히 하고 시묘 3년을 정성껏 치르고, 제사에도 공경을 다함.	司果.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26	爾瞻 至行																			대사헌 이이첨은 서울 사람이라. 증 영의정 광안부원군 이우선의 아들이라. 효성과 동생 사랑함이 하늘에 나고 날범법대로 함을 맑고 괴로이 하더라. 연하여 아버와 계조모 상사 만나 거려하고 죽을 먹어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더라. 어머니 병들때 똥을 맛보고 언 샅에 목욕 감고 하늘을 불러 목숨을 빌고 손가락을 찢러 피 내어 약에 타 올렸음. 근심을 만나서 물과 장을 입에 들이지 아니한 지가 이레더라. 분묘에 여막하여 조석에 무덤의 오르며 최질을 벗지 아니하고 소금 장 나물, 과실을 먹지 아니하고 죽 마시기를 3년을 하였다. 복을 마침에 매양 새벽에 사당에 보침하고 기일이면 재계하여 행소하	大司憲. 東國行 新續三綱 實圖가 비파반인인 사후에 된 장본인인 사림의 침의 레임. 광해군 때 표창됨.

																	기를 이레를 하고 달이 다하 도록 잔치와 음악에 참여하지 아니하더라.	
新續6 -27	元祿 畫像		○									○	○	○	○		10세에 아버가 병이 드니 직 접 약을 달이며 정성껏 구완 하기를 8년에 걸쳐 하고 상을 당하자 시묘하였음. 글을 지 어 아버지께 헌수하였으며, 어미가 병에 걸리자 상분하였 고 상을 당하자 매일 세 번 무 덤에 가서 살피고 상을 그려 제정된 위에 걸었는데 일찍이 죽은 후에 모친의 상을 관 안 에 넣어 장례하면 지하에서 모시겠다.'고 말하였음. 스승 상에 3년 심상을 함.	訓導. 고려 효자 신우의 후손.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 -28	天宙 斷指		○														어미가 병이 중하여 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의 원이 사람의 생피로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음.	兪知.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 -29	孝成 誠孝											○	○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어미 상을 당하자 지극히 슬퍼하여 이레 동안 물도 먹지 않을 지 경이었고, 장례를 치르고 나 서는 정성과 애통을 다하여 무덤을 돌보았음. 선조 상에 복을 입고 예를 지극히 하였 음.	兪正.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 -30	弘績 請死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으며, 임란에 80세 조모를 모시고 피란하였는데, 왜구가 조모를 해치려 하니 대신하기를 청하 여 죽음.	正字.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 -31	仁厚 同死																고경명의 아들로 임란 때 금 산에서 왜구를 치다가 아버와 더불어 죽음.	正字.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 -32	景禧 活父																임란 때 아버가 왜구에게 잡 혀 죽게 된 상황에서 몸으로 아버를 가려 대신 죽고 아버 를 살림.	觀象監直長. 광해군 때 정 려됨.
新續6 -33	光祚 斷指		○														부친의 병이 심하자 단지하여 올리니 즉시 나왔으며, 12년 후에 다시 부친의 병이 있으 니 또 단지를 하여 올렸음.	參奉.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 -34	德輔 斷指		○														모친이 병에 들자 단지하여 올려 낫게 하였고, 상을 당하 자 3년 동안 죽을 먹으며 애 통해 함.	主簿.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 -35	景福 斷指		○														이러서 아버가 종기로 근심하 니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빈 다 음 두 번 단지하여 올려서 효 험을 얻음.	軍守.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 -36	禹臣 嘗糞	○	○														이러서부터 부모를 지성으로 섬겼으며, 항상 부모 곁에서 봉양하였는데, 어미가 병에 걸리자 상분을 하고, 상을 당 해서는 죽만 먹으며 애도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름.	현감.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 -37	從厚 舉義																고경명의 아들로 아버가 왜적 에게 죽으니 그 원수를 갚으 려 나서 진주성에서 죽음. 명	佐郎. 광해군 때 정려됨.

																			장수의 朝鮮記에 칭송시가 실림.	
新續6-38	光弼 誠孝	○																	부모 섬김을 극진히 하였으며, 부친상에 죽만 먹으며 3년 상을 치르고, 국상에 행소함을 두 번에 걸쳐 하다가 몸이 상하여 죽음.	正郎. 광해군 때 국상에도 정성을 다한 사례.
新續6-39	壽岷 居廬								○										부모상에 6년을 시묘하면서 한번도 집에 가지 않았으며, 임금을 3년 동안 호종하였는데, 시사에 생각이 미치면 슬피 눈물을 흘렸으며 등창으로 죽음.	宗室.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40	龍城 乞母																		임란에 어머니가 왜구에 잡히니 대신 죽기를 빌어 왜구가 목을 베었는데, 미처 목이 잘리기 전에 '어머니 편안하소서, 편안하소서.'라고 기원하고 절명하였음.	宗室. 광해군 때 정려됨.
新續6-41	宅仁 孝感	○																	부모의 뜻에 흡족하게 잘 섬겼는데, 상을 당하자 시묘를 정성껏 하였으며, 형의 집이 남아 신주를 모신 곳이 좋지 않으니 자신의 집에 사당을 세워 문안과 제를 지극히 하생였음. 한번은 초하루 제에 생선을 올리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큰비가 오면서 한 자 크기 의 물고기가 공중에서 사당 앞으로 떨어졌음.	萬戶. 광해군 때 정려됨. 하에서 떨어지는 제물로 이적 사례.
新續6-42	朴峻 斷指	○																	아버지가 늙고 병들자 4년 동안 병 구완에 정성을 다했으나 차도가 없고 기절하자, 단지하여 올려 다시 살게 함. 2,3년 후에 죽으니 시묘하며 상을 마쳤으며, 비록 가난하였으나 장례와 제사에 예를 다하였고, 계모와 서모 섬기기를 아버지 있을 때와 같이 하였으며, 계모의 생각이 자신과 다를 때는 간언하는 효의 본을 보임.	현감. 광해군 때 표창됨. 계모, 서모에 대한 지극한 효. 모범 사례.
新續6-43	二子 孝友																		형제가 우애하였는데, 나이 50에 잇달아 어머니 상을 당하자 시묘 3년을 지극한 정성으로 마침.	奉事, 訓導. 효자 김담의 아들. 광해군 때 표창
新續6-44	哲命 衛親		○																아버지 병에 상분하였고, 임진란 때 부모가 왜구에게 잡히자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해를 당하였음.	봉사.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45	象乾 復讎																		김천일의 아들.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으며, 임란에 아버지를 따라 종군하여 2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진주성에서 부자가 함께 죽음.	별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46	彦邦 感賊		○	○															부모에 지극히 효도하였는데, 아버지 눈이 멀자 목욕제계하고 단을 쌓아 하늘에 밤낮으로 제를 올려 비니 한 달여 만에 다시 눈이 보임. 또 다시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상분하고 단지하여 올리니 다시 살아났고, 상을 당하자 시묘를 지극	習讀. 광해군 때 표창됨.

																				히 하였음. 임란 때 왜구에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신주를 업고 고깃살려준. 국상에 심상 3년씩을 함.	
新續6-47	世勳 嘗羹	○	○																	아버가 병이 들자 상분하였으며, 상을 당하여서는 애통하는 예를 지극히 하며 시묘를 하면서도 처자는 돌보지 않고 어미에 대한 문안을 극진하게 하였으며, 어미 상에 다시 시묘 6년을 살았음.	忠義衛.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48	師賓 入火	○																		일찍이 아버를 여의고 어미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하루는 집에 불이 나서 어미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 뛰어들었다가 함께 죽음.	훈도.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49	遵忠 蔽父																			임란 때 왜구가 아버를 해하려 하니 몸으로 가려 함께 죽음.	훈도.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50	賢臣 斷指																			어미가 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음.	훈도.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51	若虛 復讎																			임란 때 아버를 위해 원수 갚고자 왜구를 치다가 잡혀서 항복을 권유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꾸짖다가 죽음.	及第. 광해군 때 표창됨. 원수 갚으려다 죽은 사례.
新續6-52	有富 斷指																			아버 병이 심하자 단지하여 올려 살렸는데, 12년 후 다시 병에 걸리니 또 단지하였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53	佑民 斷指																			9세 때 아버의 병이 위중하니 상분하며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바로 나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54	景福 負母																			임란 때 90 노모를 업고 험한 곳에 피신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지극히 애통하며 3년상을 치름.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55	時中 廬墓																			아버 상을 당하여 시묘 3년을 지극히 하며 애통하다가 결국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56	卓崔 活父																			임란 때 왜구가 어미를 죽이고 또 아버를 해치고자 하니, 칼날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칼을 빼앗아 왜구를 죽여서 아버를 구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57	彦吉 斷指																			일찍이 아버를 여의고 어미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어미가 병에 들자 단지하여 약에 섞어 올리니 효험이 있었고, 한 달이 넘어 다시 병이 도지니 다리 살을 베어 올림.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58	宋杞 斷指																			아버이 섬김을 정성스럽게 하였는데, 아버의 병이 중하니 단지하여 올렸고, 상을 당하여 지극한 애도로 3년상을 치름.	광해군 때 표창됨. 단지의 기록 없음.
新續6-59	宋諷 買頭																			임란 때 왜구가 아버의 목을 베어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 가니 머느리는 목을 찢러 자	광해군 때 표창됨.

																				결하였고, 아들이 뒤따라가서 사흘을 머물면서 아버지의 머리를 사서 돌아오다가 승례문에 함께 죽었음.	
新續6-60	天民引賊																			임란 때 어린 동생과 더불어 아버지를 모시고 숲속에 숨었는데, 왜구가 갈을 휘둘러 찾으니, 아버지와 동생에게 자신이 뛰어나가 달아나면 왜구가 자기를 뒤쫓을 것이니 둘은 살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숲에서 왜구에게 활을 겨누며 뛰어나오니, 왜구가 그를 쫓아가 아버지와 동생은 살게 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61	慶昌蔽父																			임란 때 아버지와 더불어 피란을 갔는데, 아버지가 왜구에게 잡혀서 회유해도 듣지 않고 왜구를 꾸짖어 죽게 되니, 경창이 자기 아들에게 피하여 자신과 할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라 이르르고, 몸으로 그 아버지를 가려 둘이 함께 죽었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62	誠一斷指																			아버지 병이 심하여 기절하게 되니 단지하여 약에 섞어 올려 살게 하였으며, 아버지가 접에게 빠져 어머니를 소박하여 버리니,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몹시 슬피 울기를 계속하여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와 화합하게 함. 아버지 상에 3년상을 정성껏 치름.	광해군 때 표창됨. 소박당한 모친이 다 예전처럼 화합할 수 있도록 한 사례.
新續6-63	二孝乞賊																			임란 때 왜구가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 하니 왜구를 안고 슬피 빌었으나 결국 해함을 당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64	興世搏賊																			임란 때 형과 더불어 어머니를 모시고 왜구를 피하였는데, 갑자기 왜적이 이르러 형은 화살에 맞아 절벽에 떨어지고, 어머니도 화살에 맞아 죽으니, 크게 소리 지르며 바로 나아가 왜구를 돌로 치다가 마침내 죽게 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65	誠立斷指																			어머니가 병이 깊어 거의 죽게 되니 단지하여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병을 낫게 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66	國樑斷指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단지를 두 번 하여 피를 내어 올리니 병이 조금 나음.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지극히 애통해 하면서 묘를 돌봄.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67	召遠蔽父																			임란 때 아버지가 왜구에게 잡혀 죽게 된 상황에서 몸으로 아버지를 가려 함께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68	張健斷指																			아버지가 병이 중하여 장차 죽게 되니 단지하여 다시 살아나 4년을 더 살게 하였고, 상을 당하자 3년 시묘를 정성껏 하였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79	孟慶指																	어려서부터 효행이 뛰어났는데,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중에 있으니 12년 동안 한결같이 병구완을 하였고, 상을 당하자 시묘 3년을 지극히 하였고, 어머니가 병에 걸리니 의원이 고슴도치가 좋다고 하자 이를 구하여 올리니 병이 나았으며, 또 병이 도지니 단지하여 올렸음.	참봉.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80	弘彦蔽母																	입란 때 왜구가 어머니를 죽이려 하니 몸으로 가려 함께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81	士豫禱天																	13세 때 아버지의 병이 위중하니 결에서 밤낮 울며 함께 하다가, 상을 당하자 애통함을 어른처럼 행했음.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정성으로 보살피며 하늘에 빌어 몸으로 대신하기를 빌고, 상분하였는데, 상을 당하자 슬픔을 지극히 하고, 무덤 옆에 여각을 짓고 조석으로 정성껏 살피며 근신하기를 3년 동안 했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82	敬仁赴水																	입란 때 아버지가 왜적을 만나 해침을 당하니 계모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물에 빠져 죽었고, 경인 역시 물에 빠져 죽었음.	광해군 때 표창됨. 아버지를 버린 사례.
新續6-83	尙溶居廬																	부친상에 시묘를 하면서 정성껏 제를 올리며 무덤을 돌보았으며, 3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근신하였는데, 너무 슬퍼하여 눈이 멀었음.	광해군 때 표창됨. 지나친 애도로 실명한 사례.
新續6-84	忠震斷指																	일찍 아버지 여의고 3년을 시묘하였고, 어머니 병이 중하니 상을 분하고 단지하였으며, 상을 당하니 장례와 제사를 예에 넘치게 하였고, 국상에는 날마다 대궐을 향하여 절하고 소상을 지내어 거의 죽을 지경에 달할 정도였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85	士尙執喪																	어려서부터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는데, 아버지 상에 예에 어긋남이 없이 장례하고, 어머니 상에는 죽만 먹고 상복을 벗지 아니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86	敬天活母																	7세에 어머니를 잃고 예법을 잘 지키며 3년을 지냈고, 17세에 입란을 당하여 왜구가 계모를 해치고자 하니 돌입하여 항거하자 허리를 베어 죽임을 당하였고, 계모는 살게 됨.	광해군 때 표창됨. 계모를 위한 헌신한 사례.
新續6-87	金軫救母																	어미 섬김에 정성을 다하더니 입란 때 왜적을 피하여 금산에 있는데, 왜구가 어리를 해하려 하니 몸을 던져 구하려다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6-88	南宮同死																	입란 때 89세인 아버를 업고 피란하다가, 왜구를 만나자 몸으로 아버를 가리고 함께 죽었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1	忠弼嘗糞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의 뜻을 받들며 옛사람의	광해군 때 표창됨.

																행적에 어긋남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병에 드니 상분하고, 상을 당하니 시묘를 극진히 함은 물론 탈상 후에도 조석제를 올리기를 20여 년 동안 계속하였음.	
新續7-2	春陽斷指		○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들어 기절하는 상황에 이르니 겨우 13세의 나이에 단지하여 피를 입에 흘리니 즉시 다시 살아났으며, 8세에 어미 여의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으며 애통해 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3	應翼蔽父															임란 때 아버지가 죽산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죽게 되니 몸으로 아버지의 앞을 가려 함께 죽음.	선조 때 표창됨.
新續7-4	命達孝感															이미 상에 지극히 애통하며 시묘하였고, 아버지가 병이 들어 노루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 노루가 스스로 동산 가운데 나와 잡아 올렸음. 상을 당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를 올리는 데 제물이 없음을 슬퍼하니 갑자기 울타리 밑에 버섯이 돋아났음.	광해군 때 표창됨. 노루, 버섯의 이적이 있는 사례.
新續7-5	仁俊割股		○	○												성품이 효도하고 우애하더니 아버지가 병이 위중하여 다리를 살을 베고, 단지를 하여 피를 내어 약에 타서 올리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	孟寶孝感		○													아버지가 병에 드니 상분하며 지극히 구완하였고, 상을 당하자 애통에 겨워하며 3년 시묘를 살았고, 집이 가난하여 제에 쓸 고기가 없음을 걱정하자 산 노루가 스스로 와서 이를 잡아 제물로 씌. 어미 상에도 변함없이 치름.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7	鏡輝搏賊															임란 때 양부와 더불어 피란하였다가 양부가 적에게 죽으니 나서서 왜구와 서로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죽음.	生貞.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8	元潛斷指		○													부모의 병에 단지하여 효험을 얻음.	진사.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9	汝鯉負母															양모가 왜적에 포위되니 양모를 업고 달아나다가 모자가 철환에 맞아 죽자 아들이 칼날을 무릅쓰고 들어가 몸으로 가렸다가 죽음을 당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10	林萱墓	○														6세에 항상 조부 곁에서 아버지가 효양하는 것을 돕더니 자라서 부모 섬김을 정성과 효도로 하였는데, 어미 상을 당하자 3년 시묘를 지극히 하였고, 아버지상에도 같이 하여 조석 성묘를 정성껏 행함.	광해군 때 표창됨. 부모의 행실을 따라 행한 사례.
新續7-11	命一蔽父															임란 때 왜구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니 몸으로 가려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를 살림.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12	麟瑞斷指		○													일찍 아버지를 잃고 조부 봉양하기를 극진히 하였는데, 조	광해군 때 표창됨.

																	부가 병이 증하니 단지하여 올리자 병이 나음.	
新續7-13	彭年居廬		○														이미 상에 시묘하고, 아버지가 병에 걸리니 상분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애통하여 근신하기를 3년 하였고, 국상에도 심상 3년을 하였는데, 당시 나이가 70이었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14	思仁救母	○											○				늙은 어미를 정성껏 봉양하여 나이 50이 넘어도 문안에 소홀함이 없었고,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약 수발에 정성을 다 하였음. 도적이 집에 들어 미쳐 어머니를 업고 달아나지 못 하였는데, 칼날을 무릅쓰고 도적과 싸우다가 죽으니 어머니를 살았으나 그 아내가 곡기를 앓고 슬퍼하다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15	弘仁斷指			○	○	○											어미가 병에 들자 상분하고 단지하였으며, 겨울임에도 어머니가 고기 회를 먹고 싶어 하니 마침 날아가는 새가 黃魚를 물고 떨어지자 회를 만들어 올렸음.	광해군 때 표창됨. 단지의 기록이 없으나 사려.
新續7-16	元祐守墓													○	○		3세에 부모 모두 잃었는데, 20세가 되자 추복을 함에 3년 시묘를 하며 지극히 애통하기를 초상과 같이 함.	광해군 때 표창됨. 추복의 사려.
新續7-17	李晦執喪																부모를 잇달아 잃고 지극히 애통하며 근신하기를 6년을 하여 상을 마칠 무렵에는 눈이 멀 지경에 이룸.	광해군 때 표창됨. 애통이 극도에 이르러 눈이 멀 정도에 이룬 사려.
新續7-18	敬訓負父	○						○									아버가 지병이 있어 정성껏 구완하였는데, 왜구가 침범하자 산으로 피신하였으나 아버지와 함께 해를 입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19	介白斷指	○		○	○								○	○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의 병에 항상 정성을 다 하여 곁에서 수발하였고, 어머니 상에 시묘를 살았으며, 아버지를 위해 상분과 단지로 구완하여 낮게 함. 아버지 상에 다시 시묘 3년을 하였으며, 탈상 후에도 조식제를 지속하였고, 국상에는 심상을 철저히 행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20	時振斷指	○			○												아버가 지병으로 2년이 넘게 병석에 누워있으니 12세의 나이에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고, 상을 당하자 슬픔을 지극히 하여 난리통에도 상복을 벗지 않았음. 어머니 병이 증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상을 당하자 애통하며 3년상을 치르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21	致中活父								○	○							임란 때 아버지를 백암산에 피신시키고 동생과 함께 활을 쏘아 왜구를 막더니 동생이 탄환에 맞아 죽자 차라리 죽	광해군 때 표창됨. 아버지를 지키다 투신자결하였고,

																		을지언정 굴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절벽에 떨어져 죽으니, 그 아내도 계집종과 더불어서 몸을 던져 도적이 물러가서 아버지는 살아남.	아내도 따라 죽은 사례.
新續7-22	麟祥 感雉																	이미가 병에 걸려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 부르짖어 울자 날던 꿩이 집에 들어와 잡았더니 이미가 즉시 좋아졌으며 부모상에 지극히 애통하며 상을 예에 맞도록 하였고, 탈상 후에도 변함이 없었음. 국상에도 심상 3년을 하였고 해는 입금이라 하면서 매일 해 뜰 무렵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심돌 아래에서 절하였음.	광해군 때 표창됨. 날아드는데 금에 입을 새 예를 한 사.
新續7-23	純善 斷指																	부모 병이 중하자 단지와 할고름을 행하였고, 상을 당하여 슬픔을 지극히 함.	광해군 때 표창함.
新續7-24	敬遠 救父																	임란 때 상주목사였던 아버가 왜구에 굴하지 않고 장차 해를 입게 되자 칼날을 무릅쓰고 왜구를 꾸짖으며 아버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왜구가 모두 죽임.	진사. 광해군 때 표창함.
新續7-25	智賢 忠孝																	이미 상에 시묘 3년을 하고 아버를 지극히 섬겼는데, 60세가 넘어서 아버 상을 당했을 때도 한결같이 애통함을 다하였고, 국상에 모두 행소를 하였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26	懷瑾 誠孝																	이미를 정성을 다하여 섬겼으며, 상을 당하자 지극히 애통하며 조석 성묘를 하루도 빠짐없이 행함.	진사.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27	荊粹 斷指																	이미 병이 중하자 단지하여 피를 내어 올려 다시 살게 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28	時伯 同死																	임란 때 아버 김제갑과 더불어 영원성에 있었는데, 성이 함락되어 아버가 죽으니 그 시신 곁에 있다가 도적에게 해침을 당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29	金涵 同死																	임란 때 아버를 따라 의병을 일으켜 죽산의 왜구를 치다가 아버가 잡히니 말을 달려 적중에 뛰어들어 아버 잡은 도적을 죽이고 아버와 함께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30	金培 執喪																	정성과 효도가 뛰어났는데, 이미 상에 애통함을 지극히 하며 3년상을 치름.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31	弘俊 斷指																	아버가 학질로 위독하니 단지하여 약에 섞어 드렸고, 기절하자 또 단지하여 올림.	광해군 때 표창됨. 단지의 효함이 기록되지 않은 사례.
新續7-32	元忠 孝友																	군대를 뺏을 때 동생을 숨겼다가 발각되자 형을 군법으로 다스려 목을 베려 하니 동생과 형이 서로 자신을 벌하라	광해군 때 표창됨. 위법했으나 우애가 용지극하여

																					고 다투자 원이 모두 방면하였음. 60세에 인란이 나자 어미를 업고 피란을 다녔고, 어미 상을 당하자 3년 시묘를 한 이후에도 매일 성묘하며 애 통하기를 83세까지도 변함이 없었음.	서 받아 효행을 한 사례.
新續7-33	得礪活母						○								○						인란 때 어미가 왜구에게 잡혀 죽게 되자 몸으로 가려서 칼에 팔이 잘렸음에도 어미를 안고 피하지 아니하여 결국 목이 잘려 죽었고, 어미는 살았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34	宗挺救父						○								○						인란 때 77세인 아버가 왜구에게 잡히자 울면서 몸으로 가렸다가 함께 죽음.	진사.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35	朴潤嘗糞	○	○								○				○						어미를 지극히 봉양하였는데 어미 병에 상분하였고, 상을 당하자 슬픔을 다하여 시묘 3년을 살았음.	진사.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36	四子活父										○										인란 때 아버가 왜구에게 잡히자 네 아들이 간절히 빌어 아버지는 살렸으나 자신들은 죽음.	校生.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37	蓋世斷指																○	○			80세 노모가 병이 심하니 단지하여 살림. 국상에 행소 3년을 하였음.	校生.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38	金塾斷指																				효성스러웠으며, 어미 병이 심하여 기운이 다하게 되자 단지하여 피를 애어 올리니 다시 살아남.	校生.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39	忠言斷指																				아버 병이 심하자 단지하여 약으로 쓰니 다시 살아남.	校生.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40	希忠斷指																				아버 병이 위중하여 죽게 되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즉시 병이 나음.	校生.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41	紹文斷指																				아버 병이 위중하여 죽게 되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즉시 병이 나음. 부모상을 당하자 3년 시묘를 극진히 하였으며, 서모 봉양에 정성을 다함.	校生. 광해군 때 표창됨. 서부모 사후 서모 봉양을 잘 한 사례.
新續7-42	崔泳斷指																				효도와 우애가 뛰어났는데, 어미 병이 위중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려 낫게 함.	校生.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43	文英禱天	○	○	○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아버 병이 위중하니 하늘에 빌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기를 원하였음. 상분하고 단지하여 피를 받아 올리니 아버가 다시 살아남. 상을 당하자 슬픔에 근신 3년을 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44	勇男活父										○										9세에 조부상을 당하여 부모가 상례를 치르니 이를 도우면서 함께 3년을 지내었고, 인란 때 어비와 숲 속에 숨었다가 왜구에게 잡혀 죽게 되니 자신을 죽이고 어미를 살려달라 하여 둘이 다 살게 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45	金氏祈天																				부모, 시부모 섬김이 지극하였는데, 어미가 병에 걸리자	여자. 효자 김인상의 딸.

																병구완에 정성을 다하며 목숨을 대신하기를 하늘에 빌었고, 상분하였음. 상을 당하자 근신하며 3년상을 치르고, 이후에도 신위를 모셔 조석 제를 직접 올림.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46	李氏斷指		○													아버지 병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다시 살아났으며, 상을 당하자 6년을 거상하였음.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47	李氏斷指		○													나이 17세에 부모 봉양함에 지극하더니 어머니 병이 위중하여 죽어가자 단지하여 피를 올리고, 또 손가락 뼈를 불에 살라 올리니 어머니가 다시 살아남.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48	光男感倭		○													10세에 嫡母의 병이 위중하니 상분하였고, 12세에 아버지가 왜구에게 잡히니 울면서 청하여 풀려나게 하였음.	광해군 때 표창됨. 嫡母를 위해 상분한 사례.
新續7-49	金氏執喪															아버지 상에 예를 다하여 3년상을 치렀으며, 남편이 죽자 슬퍼함이 깊어 죽음.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贈貞敬夫人.
新續7-50	文氏救父															임란 때 아버지가 병에 걸리니 업고 가다가 왜구가 잡아가려 하니 병든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으니 차라리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를 살려 달라 하였으나, 모두 죽음을 당함.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51	俞氏誠孝		○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상분하고, 약을 달여 먼저 맛보며, 항상 곁에서 정성껏 구완하였음.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52	尹氏結項															임란 때 아버지가 왜구에게 해를 당하자 남동생과 더불어 목을 매어 죽음.	여자. 奉事 勳의 광해군 때 표창됨. 아버지 사후에 따라 죽은 사례.
新續7-53	趙氏活父	○														항상 시부모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화적이 집을 태우니 남편의 신주를 안고 칼날 곁과 불꽃을 무릅쓰고 아버지 곁에 가서 몸으로 가리니 머리와 얼굴을 모두 상하였으나 아버지는 살아남.	여자. 進士 趙의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54	鄭氏溺水															아버지가 왜적에게 죽는 모습을 보고 차식을 업고 물에 빠져 죽음.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55	朴氏斷指		○													시부모 섬김을 지극히 하였는데, 시아버지 병이 위중하자 하늘에 빌며 단지하여 피를 약에 타고, 손가락 뼈를 살라 먹이니 병이 좋아져 19년 만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죽으니 6년 간 근신하며 상을 치름.	여자. 參奉 朴文경의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56	朴氏救父															임란 때 아버지가 왜구에 잡히니 아버지를 붙들어 안고 대신하기를 원하자, 왜구가 대신 잡아가고자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죽음을 당함.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57	朴氏斷指																			아버가 병에 걸리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렸으며, 남편이 죽자 손가락과 귀를 베어 관에 넣어 묻음.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단지 효행 사례. 귀를 잘라 관에 넣어 준 사례.
新續7-58	高氏誠孝	○																		시부모 섬김을 지극히 하였는데, 전염병으로 남편과 시아비를 잇달아 잃고, 거상에 애통함을 극진히 하고, 이후에도 조식제를 행하였음.	여자. 참봉 최수의 아내.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59	堅世斷指																			아버가 병이 위중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바로 나아옴.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0	金順斷指																			아버가 병에 걸리니 항상 곁에서 구완하다가 병이 위중해지자 단지하여 피를 약에 타서 올리니 바로 나아옴.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1	金謹菅蕘																			아버이 뜻에 어긋남이 없이 섬기다가 부모가 병에 걸리자 상분하였고, 상을 당하자 시묘살이를 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2	二子赴火																			15세, 12세인 형제가 서재에서 자다가 집에 불이 나자 부모가 불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함께 불에 뛰어들었다가 죽음.	의금부도사 이수현의 아들.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3	金?斷指																			아버 병에 걸려 죽게 되니 단지하여 살림.	효자 김유령의 아들.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4	千鎰斷指																			어미가 병이 위중하니 단지하여 피를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아옴.	효자 김성진의 아버지.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5	應福斷指																			13세 때 아버의 병이 위중하니, 상분하고 단지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지극히 슬퍼하여 예에 넘을 정도에 이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6	閔洛斷指																			14세에 어미 병이 위중하니 단지하여 피를 입에 넣어 올리니 즉시 병이 나아옴.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7	彦琛抱死																			10세에 어미가 죽으니 3년 동안 매우 슬퍼하였고, 아버가 불에 빠지니 물에 뛰어들었는데, 다음날 아버 시신을 안고 떠오름.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68	彦忠斷指																			부모 섬김을 지성으로 하였는데, 어미가 병이 위중하니 두 번을 단지하여 올렸고, 상을 당하자 시묘하며 상을 마쳤으며, 아버가 沙淋에 걸리자 밤낮으로 빨아 병이 나아옴. 국상 3회를 만나 모두 심상 3년씩을 지름.	광해군 때 표창됨. 단지 효행 없는 사례.
新續7-69	興國斷指																			12세에 아버의 병이 중하니 단지하여 약에 섞어 올리니 바로 좋아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70	得新斷指																			13세에 아버 병이 중하니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즉	광해군 때 표창됨.

																				주자 등을 어루만지고 돌을 놓아줌.	
新續7-85	應瑞斷指																			16세에 어미가 역병으로 죽고 아버지 또한 병이 중하니 단지하여 피를 내어 약에 타 올리니 병이 즉시 좋아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86	堯立斷指																			아버가 몸쓸병에 걸려 기절하니 불과 8세의 나이로 단지하여 올리니 효험이 있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87	益昌斷指																			부모 섬김이 지극하였는데, 아버가 병을 앓으니 상분하고 단지하여 올렸음. 상을 당하자 3년의 시묘를 철저히 하였고, 동생이 몸쓸병에 걸리자 또 단지하여 구하였음.	광해군 때 표창됨. 동생을 단위해서도 단지한 사례.
新續7-88	德龍誠孝																			부모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상을 당하자 백일 간 죽만 먹으며 애통하였고, 조식, 삭망의 제를 지성으로 올림.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7-89	元吉斷指																			어려서부터 부모 섬김을 지극히 하였는데, 어미 병이 중하니 단지하여 구하였고, 아내 또한 단지하여 올리니 병이 즉시 좋아짐.	광해군 때 표창됨. 부부가 단지한 사례.
新續8-1	末叱世同死																			14세에 임란을 만나 아버가 왜구에게 잡혀 죽게 되니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하였으나 모두 죽임.	孫末叱世(손긋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	河平負母																			어미가 병이 드니 상분하였고, 임란에 어미를 업고 피신하다가 왜구에게 잡혔는데, 몸으로 대신하기를 원했으나 죽음을 당함.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3	鄭?守柩																			임란에 아버가 죽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모두 피란 간 상황에서 홀로 관을 지키고 있는데, 왜구가 이르니 관을 산간에 옮기고 밤낮으로 곁에서 모셔서 온전히 보존하였으며, 지극 정성으로 3년상을 치름.	兼司僕.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	先白同死																			임란 때 아버가 왜구에게 포위되자 아버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으나 결국 아버지 시신 곁에서 죽음.	鄉史.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5	光哲救母																			임란 때 어미가 왜구에게 잡히자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었다가 죽고, 어미를 살게 됨.	正兵.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	義連活父																			임란 때 아버가 왜구에게 몸을 다치자 밤낮으로 아버지 곁에서 보살피는데, 왜구가 다시 와서 그 효성에 감동하여 죽이지 않고 돌아감.	正兵.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7	召史活母																			임란 때 왜구가 어미를 해치려 하니 몸으로 가려 칼을 맞아 모녀가 함께 살았는데, 십여 일 후에 다시 왜구가 와서 어미를 칼로 찌르니 또 몸으로 막아 자신은 죽고 어미는 살게 하였음.	여자. 召史(조이) 정삼성의 처.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8	都致活母																	일찍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섬김을 지극히 하더니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병구완을 정성껏 빌어 하였는데, 상분과 하늘에 기를 하였음. 임란 때는 어머니를 업고 숲 속에 숨었는데 왜놈구가 어머니를 죽이려 하니 몸으로 가려 대신 죽기를 빌어 자신은 죽고 어머니는 살게 함.	忠勳府奴.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9	是加活母																	어미가 80이 넘어 걷지 못하니 임란에 어머니를 업고 하며 고생을 하였는데 하루는 왜구를 만나 어머니를 죽이려 하자 간절히 빌어 살게 하였음.	관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10	二子負母																	형제가 함께 살며 어머니께 효도하더니 임란을 당하자 처자를 버리고 어머니를 업고 피란하였음.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어머니를 소중히 여긴 사례.
新續8-11	丁福孝感																	임란 때 어머니가 왜구를 피하여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으려 하니 시신을 찾기 위해 석달을 헤매다가 마침내 떠오른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름.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12	李氏抱母																	임란 때 어머니와 함께 피란하였는데, 왜구가 따라와 칼로 위협하니 어머니를 안고 왜구를 꾸짖다가 죽음.	여자. 시fruit 박의 처.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13	沈氏誠孝																	흉년으로 어려울 때 쌀을 꾸어 시부모 봉양을 극진히 하였고, 시부모가 역병에 걸리자 항상 곁에 모시고 시약하였음. 상을 당하자 지극한 예로 3년 동안 상을 치름.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14	四子同死																	정유재란 때 어머니를 모시고 산골에 피신하였는데 네 아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어머니 살려주기를 빌다가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15	柳瑛抱屍																	정유재란 때 왜구가 어머니를 죽이자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안으니 오른 팔을 베어 죽였는데, 팔은 그대로 어머니를 안고 있었음.	진사.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16	柳?同死																	정유재란 때 온 식구가 황석산성에 피신하였는데, 성이 함락되니 어머니를 먼저 업어 성 밖으로 피신 시키고, 다시 아버지를 피신 시키려 하였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두고 피신하라 하니 듣지 않고 있다가 함께 목숨을 잃음.	忠義衛.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17	振幹同死																	정유재란에 80노모를 업고 피란하였는데, 도적에 잡혀어 함께 죽음.	訓導.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18	應會同死																	아버지 상에 시묘하고 어머니 봉양에 정성을 다했는데, 정유재란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 속에 피하였는데, 왜구가 이르러 어머니를 해치니 달려들어 손으로 치다가 함께 죽음.	진사.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19	壽慶俱死																			정유재란에 아버가 증풍에 걸려 남여에 태워 산골로 피신하였는데, 왜구가 이르니 아버가 피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함께 있다가 같이 죽음.	주부.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0	慶男俱死																			임란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는데, 정유재란에 왜구가 부모를 해치려 하니 몸으로 가려 막다가 부자가 함께 죽음.	생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1	廷父活父																			6세에 정유재란을 만나 부모와 산골에 숨었는데, 왜구가 이르러 먼저 어미를 해치고 또 아버를 해치려 하니 도적 가운데 뛰어들어 울며 비니 도적이 버리고 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2	二子同死																			정유재란에 아버를 따라 황석산성에 들어가 왜적에 맞섰는데, 장차 성이 함락되려 하니 아버가 형제에게 달아날 것을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고 함께 죽음.	충신. 광해군의 때 표창됨.
新續8-23	鄭氏斷舌																			정유재란에 시어미를 모시고 피란하였다가, 왜구가 이르러 시어미를 해치려 하니 자신이 대신 죽기를 빌었으나 시어미를 죽이고 겁박하여 끌고 가려 하자 크게 꾸짖고 땅에 엎어져 움직이지 않으니 왜구가 허와 오른 팔을 베고 갔음.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4	崔潑抱父																			정유재란에 병든 아버를 업고 피란하였는데, 왜구에게 아버를 잡아 해치고자 하니 몸으로 대신하기 위하여 아버를 가리다가 부자가 함께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5	德鳳共死																			정유재란에 아버가 왜구에게 잡히는 것을 숲에서 보고 차마 홀로 살 수 없다 하고 나가서 함께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6	一麟誠孝																			아버를 지극히 섬겼는데, 상을 당하자 매우 애통하여 3년상을 치렀고, 3세 때 어미가 죽어 상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이어서 추복 3년을 하였음.	甲士.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7	流齡斷指																			어려서부터 부모를 정성껏 모셨는데, 어미가 병에 걸리니 항상 곁에서 약 수발을 하였으며, 기절하자 단지하여 약에 타서 올리니 즉시 다시 살아남.	司僕.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8	彦瑚誠孝																			부모 섬기기를 지극히 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시묘 6년을 살았음.	甲士.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29	蒸臣斷指																			12세에 아버가 병이 중하니 단지하여 피를 입에 올리니 다시 살았으며, 아버가 죽은 후에는 어미에 지극한 정성으로 효를 행함.	定虜衛.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30	允海居廬																			부모 섬기기를 지극히 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시묘 3년을 정성껏 행함.	定虜衛.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31	連守斷指																		아버 병이 중하니 왼손가락을 잘라 살라 올리니 병이 나았고, 후에 또 병이 심해지니 오른손가락을 잘라 올리니 병이 나옴. 후에 연수 자신이 병에 걸려 기절하게 되자 아들 둘이 단지하여 구하였음.	보병. 광해군 때 표창됨. 아버 단지를 한 후에 단지하여 구한 사례.
新續8-32	彭壽忠孝																		어려서 어미를 잃고 봉양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뒤 상에 3년을 거상하였고, 아버 상에 시묘하며 애통하였으며, 계모상에도 정성과 예를 다하였고, 국상에도 3년을 거상업고 능 아래에서 시묘를 삼.	정병. 광해군 때 표창됨. 국상에도 시묘를 한 사례.
新續8-33	崔浩斷指																		14세에 아버 병이 위중하니 단지하여 약에 섞어 올리니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남. 국상에 아내와 함께 3년 동안 상복을 입음.	정병.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34	元男斷指																		어미가 중풍으로 기절하자 단지하여 피를 올리니 살아남.	기병.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35	應男割股																		아버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 올리니 병이 나아 8년을 더 살았음.	보병.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36	忠國斷指																		부모 섬김을 효로써 하였는데 부모가 병이 위중하니 상분과 단지를 행함.	保人. 광해군 때 표창됨. 단지의 효험 기록 없음.
新續8-37	彦鏡入火																		집에 불이나 어미가 불 가운데 있으니 뛰어들어 업고 나왔는데, 모자가 불에 데어 어미가 2, 3일 후에 죽음. 그 때 아버 몽상 중이었으므로 아버 거상을 마치고 다시 3년상을 치름.	보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38	元伯斷指																		아버 병이 위급하니 단지하여 피를 올려 다시 살아나게 함.	보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39	仁元割股																		부모 섬김을 극진히 하였는데, 아버 병이 위중하니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 올리고, 이튿날 다시 피를 내어 올리니 병이 나옴.	營吏.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0	二子斷指																		아버 병이 위중하니 단지하여 피를 내어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나옴. 아버가 또 병에 드니, 전처럼 단지하여 올리니 효험이 있어 한 해를 더 살았음.	향리.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1	尹洛割指																		11세에 아버 상을 당하자 거상의 예를 다하고 숙부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있으니 왼손 무명지를 베어 피를 올리니 병이 즉시 나옴. 국상에 3년 행소를 함.	역리. 광해군 때 표창됨. 할 사 때 숙부 병에 한 사례.
新續8-42	貴男斷指																		부모를 정성껏 섬겼으며, 아버 상을 당하여 예를 다하여 3년상을 행함. 어미 병에 단지하여 약에 타 올리니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났으나 이튿날에 죽음.	향리.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3	聲振斷指																	10세에 어미 병이 위중하니 단지하여 피를 약에 타서 올리니 다시 살아남.	貢生.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4	大洞執喪																	8세에 아버지가 죽으니 3년상을 예에 넘칠 정도로 치르고, 후에 고기를 먹지 않음.	공생.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5	論介割股																	10세에 어미 병이 위중하니 천지에 빌고 다리의 살을 베어 적을 만들어 올리니 어미 병이 즉시 나옴.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6	銀厚同死																	왜구를 피하여 아버지와 황석산성에 들어갔는데, 성이 함락되면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가 찾아 업고 달아나는 중에 왜구에게 함께 죽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7	鶴守誠孝																	부모와 계모 상에 모두 시모하고 계사에 정성을 다했으며, 상을 마친 후에도 차마 집에 가지 못하고 분묘를 조석으로 뵈고 울었음.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8	春福斷指																	아버지 병이 위중하여 온갖 약이 효험이 없으니 단지하여 피를 약에 타서 올리니 병이 즉시 좋아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49	長福斷指																	아버지 병이 위중하여 죽게 되니 단지하여 피를 올리자 병이 좋아졌다가 한 달 후에 죽음.	羅將.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50	天守斷指																	아버지 섬김을 지극히 하더니, 아버지 병이 오래되자 정성껏 구완하였는데, 기절하니 단지하여 입에 흘려 넣어 다시 살아나게 함.	館軍.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51	士堅割股																	아버지 섬김에 지극하더니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다리 살을 베어 올리고, 아버지 병에 걸리자 역시 같이 하여 약에 섞어 올리니 살아났음. 상을 당하자 예를 다하여 거상하였고, 서모를 생모나 다름없이 섬김.	漕軍.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52	允慶忠孝																	어미 상을 당하자 군역을 행하면서도 소복을 입고 죽마시기를 3년을 하였으며, 국상에 3년 복을 입음.	수군.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53	葵花割臀																	어미가 병에 들었는데, 의원이 '자식의 피와 살을 먹으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불과 9세의 나이에 자신의 불기를 베라고 하여 올리니 즉시 병이 나옴.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54	召史入虎																	시어미와 산의 밭을 매다가 시어미가 큰 범에게 물리니 호미를 들고 달려들어 시어미를 구해냄.	召史(조이),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55	召史斷指																	18세에 아버지가 병이 위중하여 기절하니 단지하여 피를 내어 올렸음.	召史(조이),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단지의 효행이 없는 사례.	
新續8-56	召史姑																	정유재란에 늙고 병들어 걷지 못하는 시어미를 업고 피란하였는데, 왜구가 이르러 시어미를 해치려 하자 몸으로 막아 시어미가 살아남.	召史(조이). 여자.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57	遇春死塋																	정유재란에 아내와 함께 왜구에게 잡혔는데, 보물을 숨겨놓았다고 죽여 왜구를 선영에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선영에서 죽으면 한이 없다 하고 꾸짖으며 죽이라 함. 차고 있는 침통을 보고 의원으로 생각하여 잡아 가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죽이려 하자 아내가 가로 막으니 부부 모두 죽임.	忠順衛. 광해군 때 표창됨. 선영에서 죽기를 택한 사례.
新續8-58	季福孝友																	부모를 지성으로 섬겼는데, 어머니가 죽으니 거상을 잘 하였었고, 형이 죽자 행소 1년을 하니 주인이 감동하여 종으로 대접하지 아니 함.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불문도 불문제간에도 상례를 다한 사례.
新續8-59	千同斷指																	어미의 병이 위중하니 간병을 정성껏 하였으며, 기절하니 단지하여 불에 살라 술에 타서 입에 붓자 어미가 즉시 다시 살아남.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0	忠奉斷指																	14세에 아버지가 학질로 죽게 되니 단지하여 술에 타 홀리니 병이 즉시 좋아짐.	관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1	成龍斷指																	아버지 상에 3년 거상을 지극히 하였으며, 어미 병이 위중하니 단지하여 피를 약에 타서 올려 다시 살게 하였음. 어미 사후에 신주를 만들어 조석에 제를 올리며 3년을 근신함.	관노. 광해군 때 효자 성인기의 아들.
新續8-62	性龍斷指																	어미 병이 위중하니 분향하고 하늘에 빌어 몸으로 대신하기를 원하더니 어머니가 기절하자 단지하여 피를 올리니 다시 살아남.	관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3	玉振誠孝																	아버지 90세에 미친병에 걸리니 항시 곁에서 수발하였고, 상을 당하자 지극히 슬퍼하여 뼈만 남을 정도였음.	內奴.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4	四龍割脚																	아버지 병이 위중하니 다리 살을 베어 올려 낮게 함.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5	希守孝友																	부모 섬김을 지극히 하였는데, 6형제가 이웃하여 살며 각각 5일 간씩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봉양하였고, 명절이면 형제와 조카들이 모두 부모를 모시고 잔치를 벌임. 어머니 상을 당하자 정성껏 치르고 이 후에도 살아 있는 것처럼 섬겼음.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6	石松斫虎																			아버가 산에서 범에게 물리자 바로 들어가 도끼로 범을 베고 아버를 구하였음.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7	應連斷指																			아버가 악질에 걸리니 10세의 나이에 단지하여 피를 울리자 즉시 나옴.	寺奴.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8	汝述守喪																			아버 상에 3년을 근신하였으며, 국상에도 3년 거상을 하였고, 어미를 극진히 봉양함.	寺奴.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69	論石誠孝																			일찍 아버를 여의고, 어미를 지극히 섬겼는데, 상을 당하자 3년을 근신하였으며, 이십리 길을 걸어 매일 아침 성묘 하였음. 국상에 거상 3년을 함.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70	世民代父																			독자인 아버가 사수로 전쟁에 나가게 되니 혼자 있는 할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다며 대신 가겠다고 하였으나 아버가 허락지 아니하자, 주변 사람들이 병조에 알려 대신하게 하였음. 이후 충주에서 왜구와 싸우다가 전사함.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71	李注畫像																			어미를 정성껏 봉양하였는데, 하혈증으로 위중하니 자리 수발을 직접하고 상분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지극히 슬퍼하며 따로 집을 지어 어미 화상을 모시고 제사를 올림. 어려서 아버가 죽어 상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어미 상을 마치고 3년 복을 입고 애도하였는데, 이로 인해 몸이 여위어 죽음.	관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72	夢吉斷指																			13세 때 아버의 병이 중하니 단지하였고, 적모를 모시기를 친모처럼 하였음.	관노. 광해군 때 표창됨. 嫡母를 잘 봉양한 사례.
新續8-73	聆金斷指																			어버이를 정성껏 봉양하였으며 아버가 병에 걸리니 두 손가락을 베어 피를 울리니 병이 즉시 좋아짐.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74	同伊誠孝																			부모상을 마친 다음에도 행소하며 소복 입고 제 올리기를 20년을 계속함.	여자. 驛婢.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75	禿終斷指																			아버 병이 심하니 단지하여 효험을 얻음.	여자. 私婢.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76	牧丹割股																			부모가 모두 병들어 누워 있으니 정성과 힘을 다하여 기절하니 즉시 다리의 살을 베어 약에 타서 구하여 다시 살아남.	여자. 私婢.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77	春今燒指																			아버의 병이 위중하니 소지하고 밤낮 하늘에 빌자 병이 나옴.	여자. 私婢. 광해군 때 표창됨. 燒脂를 행한 사례.

新續8-78	粉德同死							○											정유재란의 부모가 왜구에게 잡혔는데, 남편이 자기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자 하니 부모를 버리고 갈 수 없다고 하고 결국 부모와 함께 해를 당함.	여자. 私婢. 광해군 때 표창됨. 부부 관계보다 우선한 사례.
新續8-79	二子誠孝	○								○									아버지가 죽으니 어미 봉양을 극진히 하였으며 어미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지극히 애통해 하였음.	사노. 광해군 때 표창됨.
新續8-80	季男取首							○											임란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는데, 하루는 왜구와 싸우다가 귀를 잃었음. 왜구가 아버지의 목을 베어 조령진 가운데 매달자 다친 귀를 찌매고 왜구의 진 가운데 달려가 아버지의 머리를 빼앗아 돌아와 몸과 함께 장례를 치름.	조방장. 광해군 때 표창됨. 선조 때에 戶曹判書에 추증됨.
계		129	19	59	211	39	15	24	137	17	257	149	66	655	38	8	22	4	1,849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분석 통계

구분	孝行事例												褒賞內譯				
	生前								死後				旌門	官職	財物	復戶	其他
	奉養	看病						獻身	其他	侍墓	祭禮	其他					
吮腫		嘗糞	斷指	割股	異蹟	其他											
사례수	129	19	59	211	39	15	24	137	17	257	149	66	655	38	8	22	4
비율(%)	17.4	2.6	8.0	28.4	5.3	2.0	3.2	18.5	2.3	34.6	20.1	8.9	88.3	5.1	1.1	3.0	0.5